기술교육을 통한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연구
(태양에너지 전문인 사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ANZANIA MISSION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CENTERED ON SOLAR ENERGY PROFESSIONAL MINISTRY)

By

Roh, Christopher Moo Hong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ew York
2014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기술교육을 통한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연구
(테양에너지 전문인 사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ANZANIA MISION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CENTERED ON SOLAR ENERGY PROFESSIONAL MINISTRY

CONTEMPLATION

presented by

Roh, Christopher Moo Hong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Academic Dean's Signature

May 2014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개요 (ABSTRACT)

논문의 핵심연구주제는 태양열 에너지 전문인 사역을 통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을 가르쳐 일터와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대학진학의 꿈을 제공하며, 예배공동체, 삶의 공동체 자립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연구에서 제기한:

1. 태양열 에너지 전문인 사역은 왜 필요한가?
2. 현지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
3. 오아시스 솔라센터 선교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4. 아프리카 기술인 선교를 통한 비젼은 무엇인가? 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8 장으로 구성 되어있다. 오아시스 솔라 선교센터는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을 전수함과 동시에 오아시스 선교센터가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립의 꿈을 심어주었다.

오아시스 선교센터를 통하여 핸드폰을 충전하고 컴퓨터 사용, projector 를 통한 성경영화상영및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영어공부와 함께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함으로 학비및 기술습득을 통한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또한 소규모 대출을 통한 Matching Fund System 을 적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태양에너지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 선교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고 평가 된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뉴욕신학대학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에서 학위를 마칠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N.Y.T.S. 에서 학위를 마칠수 있도록 려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전의 길로 안내하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제가 학위를 마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백창건 목사님, 근차근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김상목 목사님, 탄자니아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작성을 위한 귀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최홍교 선교사님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저와함께 있으며 힘들고 어려울때마다 격려해주고 말없이 후원 해 준 사랑하는 아내 혜순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진우 (Michael), 민우 (Samuel), 사랑의 기도로 후원하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 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권유하신 작은형님 (노시홍) 과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막내동생 (노은홍)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앞으로 사역과 학문의 현장에서 균형있는 사역자가 될수있도록 하기를 허락하신 주위의 모든분들과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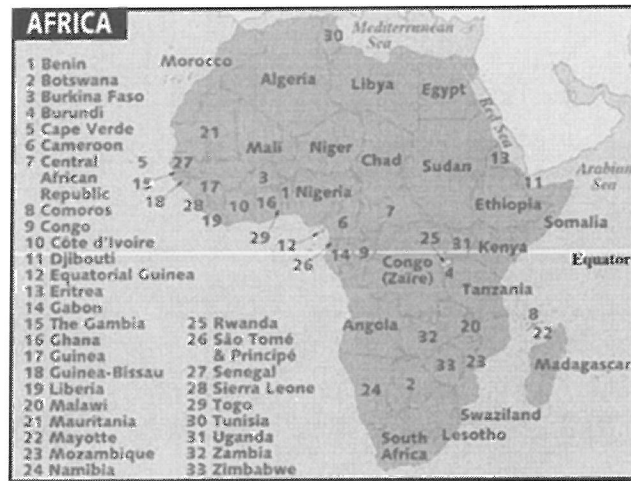
Ⅰ. 서론: 선교와 탄자니아

신 구약 전체에 일관하여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핍박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애틋한 긍휼과 관심을 가지셨다.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와 함께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임을 믿게 하셨다. 예수님은 결코 좁은 의미의 영적 복음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 사람이 지닌 가치를 부여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집중적이고 일관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구원과 더불어 사람들의 전인적, 총체적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행위와 믿음, 세계관(Worldview)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는 사람들로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교 사역의 두 축인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의 균형을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날 21 세기에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선교환경에 적합한 기술교육선교를 통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탄자니아에 대해 고찰해 보고 바람직한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탄자니아의 배경

1) 지리적 배경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우간다 및 케냐, 남쪽으로는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자이르, 부룬디, 르완다에 인접해 있다(지도 1, 2 참조).

지도 1. 아프리카 지도[1]

지도 2. 탄자니아 지도[2]

---

[1]아프리카 지도, http://www.lonelyplanet.com/maps/africa/

[2]탄자니아 지도, http://www.lonelyplanet.com/maps/africa/Tanzania/

국토 총면적은 948,650Km^{2}로 세계에서 31번째로 넓은 나라이다. 이 크기는 한반도의 약 4.3배, 남한의 9.7배, 캘리포니아의 2배에 해당된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와 고원으로 되어 있다. 북동부는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Mt. Kilimanjaro, '빛나는 산' 이란 의미, 해발 5,895m)을 비롯해 해발 4,000m 가 넘는 산악지대이다. 세계에서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깊은 담수호인 Tanganyika(수심 1,410m)가 부룬디, 잠비아, 콩고, 탄자니아 등 4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이 호수는 콩고(45%)와 탄자니아(41%)에 속한 영역이 가장 크며, 이 호수의 물은 콩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 대서양으로 나간다.[3] 탕가니카 호수 남쪽 끝에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Kalambo 폭포가 있는데 탄자니아 정부는 이 폭포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4] 북서쪽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고 세계에서는 3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면적 73,682Km)가 위치해 있다. 탄자니아 북쪽에는 지름이 20km 이상인 초대형 화산 분화구로 '거대한 분화구' 란 뜻을 지닌 응고롱고로 분화구(Ngorongoro Crater)는 사화산이 된 지금 많은 사자, 물소, 치타 등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의 터전이 되었다. 마사히어로 '끝없는 평원' 이라는 의미를 지고 있는 세렝게티 국립공원(Serengeti National Park)은 탄자니아의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4백만 마리의 동물의 다양성과 그 지역의 생태학의 중요성으로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 등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중부 지방은 넓은 평원으로 경작지대이다. 동쪽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면해 있으며, 고온 다습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지역적 변화가 많고 기온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인도양 상의 잔지바르(Zanzibar)섬은 펨바(Pemba)섬을 포함하여 면적이

[3] *World Book Encyclopedia Vol 19*, (Chicago: A Scott Fetzer Company, 2012), 33.

[4] *Tanzania Travel and Touism Diretory,* (Zanzibar: Tanzania Tourist Board, 2012), 22-25.

2,500Km^{2}로 산호초로 이루어진 평탄한 섬이다. 계절풍으로 인한 건계와 우계가 뚜렷이 구별된다.[5]

2) 역사적 배경

(1) 고대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인류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 케냐에 파견된 영국인 기독교 선교사 부부의 아들인 루이스 리키(Louis Leakey: 1903-1972)는 1931년에 올두바이 조지(Olduvai George)계곡에서 200만년전 인류의 먼 조상인 '도구인간'의 화석을 발견하여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카게라(Kagera)주에 살고 있는 하야(Haya)부족은 2,000년 전부터 약 1,800도의 고온으로 철 합금 기술을 보유했음이 그들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6]

(2) 식민지 시대

주후 8-9세기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상인들이 무역을 하며 동부해안에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본토와 잔지바르 섬의 항구지역은 상업과 스와힐리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아랍, 페르시아, 인도 등의 이슬람교도의 지배하에 있었다. 15세기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동해안을 1세기간 점령하면서 기독교를 탄자니아에 전파시켰다. 1840년에는 오만 술탄이 잔지바르에 술탄정부를 수립했으며, 노예무역이 성행하며 많은 충돌과 함께 사회를 피폐시켰다. 1880년대부터 1919년까지 독일 제국이 잔지바르를 제외한 현재의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를 독일령 동아프리카로 식민통치를 하였다. 1890년에는 영국이 잔지바르와 펨바섬을

[5]*Tanzania National Parks*, (Arusha: Fotorafx, 2009), 20-30.

[6]Thomas P. Ofcansky, *Historical Dictionary of Tanzania,* (Maryland: Scarecrow Press, 1997), 12.

점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하며 탕가니카(Tanfanyka)라고 하며 신탁통치하였다. 북부 일부 지방은 벨기에에 편입되었다가 르완다와 부룬디로, 남부 일부 지역은 포르투갈 동아프리카에 편입되었다가 모잠비크로 편입되었다.[7]

(3)독립과 사회주의 체제

1954년 니예레레(Nyerere)는 조직한 아프리카 민족동맹(TANU: Tanzana Africal National Union)을 조직하여 평화적으로 탕가니카 독립운동을 벌렸다. 1961년 영국이 정권을 TANU에게 인계하면서 탕가니카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1963년 독립한 잔지바르와 함께 1964년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으로 탄생하였다. 독립의 영웅 니예레레는 1968년 아루샤 선언(Arusha Declaration)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며 자본주의도, 연방주의도 상태를 말한다'는 아프리카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은행과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였다.[8]

(4)시장경제로 체제 전환

우자마(Ujamaa)사회주의 체제하에 농업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 후퇴를 초래했고, 1978년 우간다와의 전쟁시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함으로 국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5년 니예레레가 대통령을 사임하고 시장경제로 체제를 변환하였다. 체제전환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선거를 통한 대통령 교체가 평화로이 이루어 지고 있고 있다. 음파카(Mkapa) 대통령에 이어 2005년부터 제3대 대통령인 킥위티(kikwete)는 New Zeal, New Vigor,

---

[7]Ibid., 39.

[8]Report on the Fifth Years of Independence of Tanzania, (The President's Office, 2011), 10-19.

New Speed 를 표방하며, 2000 년대 이후 10% 이내의 물가상승률과 7% 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9]

3) 사회적 배경

탄자니아의 지방행정은 본토에 25 개, 잔지바르의 5 개로 모두 30 개 주로 나누인다. 수도는 도도마(Dodoma)이지만 탄자니아 최대도시인 다레살람(Dar es Salaam)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 곳에는 탄자니아가 가입되어 있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Orgarnization of African Unity)의 본부가 있다.[10] 2012 년 통계 기준으로 탄자니아의 총인구는 4 천 6 백 2 십 만 명이며, 14 세 이하는 전체의 42% 15-64 세는 55.1%, 65 세 이상은 2.9% 이다. 여성은 50.5% 이고, 남성은 49.5 % 이다. 평균수명은 53 세이며, 남성은 51 세, 여성은 54 세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약간 높은 편이다.[11] 인구증가율은 2.6 % 인데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아 5 세 이전에 10% 가 사망한다. 성인인구의 약 7% 가 HIV/AIDS 감염자(약 140 만명)로 매년 14 만명이 AIDS 로 사망하고 있다. 에이즈 보균 율이 세계 6 위이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4 위이다. 또한 말라리아로 매년 30 만명이상이 사망하고 있다.[12]

인구의 75% 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화률은 25% 이다. 주요 도시의 인구는 다레살람은 110 만명, 므완자(Mwanza)25 만명, 타보라(Tabora)에 21 만명, 므베야(Mbeya)에 19 만명, 도도마에 18 만명으로 약 200 만명에 이른다. 인구밀도는 25 명/ km^2 이다. 인구의 97.6% 가 아프리카 인이며 수쿠마(Sukuma)족 등

---

[9]Ibid.,72-81.

[10]Ibid., 3-7.

[11]*Human Right & Business in Tanzania*, (Togo: Systematic Investment, 2012), 35-45.

[12]탄자니아 통계, http://data.worldbank.org/country/tanzania

120 여개의 소 부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 부족 간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처럼 부족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13]

국어는 스와힐리어 이며, 영어는 공용어로 사용한다. 탄자니아는 탄자니아의 문맹률은 80-85% 였다. 정부의 노력으로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률이 2000 년 60%에서 2006 년에는 96%가 되어 문맹률도 31% 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은 20% 정도 이다.[14]

탄자니아의 도서지역에는 이슬람교가 95% 로 지배적이나 본토에서는 기독교 35%, 이슬람교 35%, 전통종교 20% 등을 믿는다. 탄자니아의 기독교는 1505 년경 포르투갈이 점령했을 때 가톨릭이 전파되었다. 1840 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선교회가 들어 왔다. 독립 후 대부분의 미션단체는 1934 년 Christian Council of Tanzania 라는 공동체 안에서 운영하였다. 반면 이슬람교는 아랍의 노예상인들이 잔지바르를 비롯한 도서 지역에 퍼져나갔다. 1969 년 탄자니아 본토에 National Muslim Council 이 세워졌다.[15]

4) 경제

탄자니아 1 인당 국민소득이 약 550 달러(2011 년)로 과다채무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중의 하나이다. 탄자니아의 경제지표를 보면 2010 년 기준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는 220 억 달러이며 GDP 성장률은 6.4%, 물가상승률은 12.7 %, 정부예산은 87 억달러, ODA(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는 약 26 억달러로 정부예산의 약 30% 이다. GDP 구성은 농업이 42.5 %, 서비스가

---

[13] *Tanzania Daily News*, 2013 년 1 월 5 일자.

[14] *Report on the Fifth Years of Independence of Tanzania*, 65-75.

[15] Ibid., 209-210.

38.5%, 공업이 19% 이다. 2011/2012 년 정부예산은 약 84 억달러로 GDP 의 약 24% 를 차지한다. 정부예산의 세입은 내국세 비중이 약 55% 정도이며, 나머지는 원조 30%, 차입 15% 정도이다. 2007 년 이후 국제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펼쳐왔으며 이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0/11 년 예산적자 2 억불, 국가부채 110 억 달러이다.[16]

2011 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업환경지수" 에서 탄자니아는 128 위로 최근 3 년 동안 하락 추세로 발표하였다. 부패문화와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기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반면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정치적 안정, 넓은 국토, 대서양과 인접한 항구 등을 배경으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동아프리카 최대이다.[17] 한국과는 1998 년 투자보장협정과 1999 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최종 합의되었으나 발효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8]

2011/12 년 탄자니아 정부예산은 약 84 억달러(11.6 조 실링)으로 GDP 의 약 24%를 차지한다. 정부예산의 세입은 내국세 비중이 약 55% 정도이며, 나머지는 원조 30%, 차입 15% 정도이다. 2007 년 이후 국제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0/11 년 예산적자 2 억불, 국가부채는 110 억 달러이다.[19] 움쿨로(Mkulo)재무장관은 2011 년 7 월 국회 예산설명회에서 2011/2012 예산의 우선 순위로 1. 전기 2. 물 3. 교통인프라 4.

---

[16] *Report on the Fifth Years of Independence of Tanzania,* 251-260.

[17] *기업환경*, http://data.worldbank.org/country/tanzania.

[18] *탄자니아 경제통상 및 자원 현황,* (다레살람: 주탄자니아대한민국 대사관, 2012) 6-7.

[19] *Report on the Fifth Years of Independence of Tanzania,* 265-270.

농업과 관개 5. 일자리 창출 이라고 밝힌 바 있다.[20] 국가부채가 2010 년 말 108 억 달러, 2011 년 말 110 억불로 증가했으며 2008 년 약 55 억 달러에 비해 3 년 만에 2 배로 늘어났다. 이는 재정 팽창정책, 2010 년 말 대/총선, 원조공여 국 2.2 억 달러 삭감과 전력 생산용 석유구매 예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국가부채의 구성은 91 억 달러가 정부와 공기업 부채이며, 17 억 달러가 민간 부분 부채이다.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은 2008 년 25% 였으나 2010 년에는 약 50% 수준으로 짧은 기간 사이에 급등하고 있다. 지금까지 1997 년(10 억달러), 2000 년(30 억달러) 2 차례에 걸쳐 부채탕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21]

2000 년대 이후 평균 약 6%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물가도 한 자리 수 이하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2010 년 5.5 % 에서 2011 년 12.7%로 급등하여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율은 2.9% 의 인구증가와 수출의 2 배가 넘는 초과 수입 및 투명하지 못한 기업환경 등으로 지속 평가 절하 추세이다. 2011 년 한때 1,800 실링까지 절하되었으나, 중앙은행이 2011 년 10 월부터 은행의 지준율은 20%에서 30%로 높이는 등 강력한 개입으로 2011 년말부터 1,500 실링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금리는 대출은 약 15%, 예금은 6% 수준이었으나, 2011 년 하반기 환율안정을 위해 실링화 예금 이자율을 다소 높였다.[22]

실업률은 약 13% 로 추정되며, 연간 70 만명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실업률은 16.5%, 농촌 실업률은 7.5%, 청년(15-25 세)실업률은

---

[20] *탄자니아 2011/2012 예산 우선순위*, Tanzania Dialy News, 2012 년 1 월 1 일자

[21] *Human Right & Business in Tanzania*, (Togo: Systematic Investment, 2012), 20-30.

[22] Ibid., 50-55.

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탄자니아의 가장 큰 대도시인 다레살람의 실업률은 31.5%로 매우 높은 편이다.[23]

5) 산업

탄자니아는 관광, 통신, 금융 부문의 서비스업 성장을 기반으로 1998-2007 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6.3 %를 기록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GDP 의 28%와 50%에 육박한다. 2003-2008 년 원조자금을 활용해 도로, 항만, 호텔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입은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금, 은, 다이아몬드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분의 견실한 성장을 하였다. 2010 년에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 년에도 해외 원조에 따른 인프라 부분 투자 및 금 수출 호조에 따라 6% 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24]

제조업은 전력, 항만,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농업의 경우 GDP 의 28.4%, 노동인구의 약 80% 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이지만 경작지가 국토의 약 4% 에 불과하다. 기후조건에 따라 작황의 변화가 심하고, 소규모 생계 농업이 대부분이며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나, 에너지, 수송 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걸림돌이 작용되어 정부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과 광물 자원의 높은 개발

---

[23]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Vice President's Office, 2012),23-25.

[24]Ibid., 30-41.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농업 위주의 저개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1 인당 GDP 가 500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25]

2005 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킥위티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와 원조 유치를 통해 자국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각종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업, 광업, 관광업 등을 중점 육성하며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한 정책이 "Tanzania Vision 2015" 로써, 이는 농업의 현대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조에 대한 의존성 및 1 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한 국제 상품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신기술 수용에 대한 취약점을 극복하여 2015 년에는 개발수준이 높은 중소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6]

탄자니아 정부 재정의 개발 분야 지출 순위는 교육, 도로, 보건, 농업, 수자원 순이다. 탄자니아 재경부 측은 개발 분야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인프라(도로망 등) 개발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 교육을 통한 비즈니스 용 에너지분야, 보건, 수자원 등을 꼽고 있다. 탄자니아 산업 유망 분야의 순위는 전기, 도로, 광물, 관광, 농업이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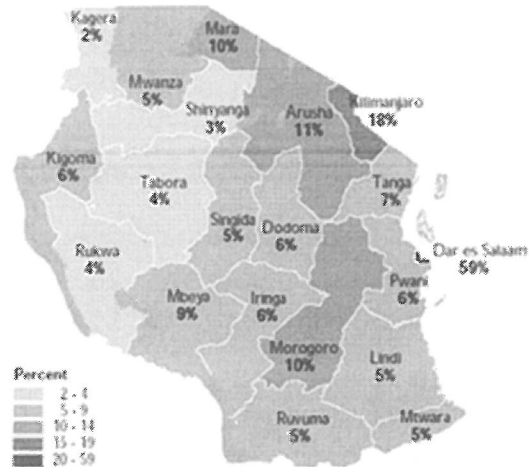
(1) 전기

탄자니아의 전기보급률이 4,500 만 인구 중 14%에 불과하고 이 중 97% 는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도 3 참조). 탄자니아는 세계은행이 2012 년에 대상국가 214 국가 중에서 170 위로 최저 빈곤국가 중의 하나이다. 국민 일인당 연간 전력사용량은 100kw/hr 로 120kw/hr 이하인 에너지 빈곤국가로 구별되었다.

---

[25]Ibid., 42-50.

[26]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2, 5-10.

[27]Ibid., 15-25.

지도 3: 탄자니아의 전기보급률[28]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는 광활한 영토에 산재해 있는 지방 주민들에게 기존의 수력 혹은 화력,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비싼 송전 비용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전력수요는 10%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 년도 연중 발전량이 300MW 에 불과하고 수요량을 800MW 로 500MW 의 전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연중 내내 하루 12 시간 이상 제한 송전을 하였다.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은 현대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전기와 물의 극심한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전력부족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고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부는 2011/12 년 1.2 조 실링 에너지 예산 특별 편성을 하였다.[29]

---

[28] Uisso, Justina P., Rural Energy Agency and Innovation in Delivery of Modern Energy Services to Rural Areas,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Rural Energy Agency(REA, 2009), 3.

[29]Poverty and Deforestation in Tazania, (Dodoma, REPOA, 2012), 20.

발전설비용량은 865 MW(수력 561 MW, 화력 304 MW)이나 설비용량의 6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소가 최근 가뭄으로 제한 발전을 하고 있다. 2011/12 년 약 7.4 억 달러 긴급 에너지 예산 편성하여 2012 년말까지 약 900MW 전력 추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전력생산 확충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화력발전 방식으로 건설하되 국내 풍부한 자원인 가스와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할 전망이다.[30]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과 환경보전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본적 노력이 고조되면서, 대체에너지가 해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31] 대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태양에너지(solar energy),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 매스(Biomass) 등이 포함된다. 대체에너지는 무한하고, 재생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이다. 기후 변화 협약 및 에너지 자립에 대처하고자, 이미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제전망 모델에 근거하여 향후 20 년 후, 대부분의 전력 및 에너지 응용산업에서 솔라 에너지가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태양에너지는 전기의 공급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자가 발전을 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생활 에너지와 산업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가장 유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탄자니아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솔라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솔라는 필요한 전기량에 따라 자유자재로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 대규모의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탄자니아에 설치된 솔라 시스템의 규모는 현재

---

[30]Barth M. Lyimo,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anzania, (Dar es Salaam: Helio, 2010), 25-29.

[31]Ibid., 30.

약 4.5메가와트로 추정되며, 최저로 예측한 시장 규모는 35메가와트이다. 현재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약 2억불에 해당한다.[32]

(2) 도로

탄자니아 도로 총 연장은 약 85,000km이며, 이중 포장 도로는 약 6%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 관리는 국영도로공사(TANROAD)가 33,000km, 총리실 산하 지방행정실이 52,000km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공사 재원은 주로 원조자금이며, 탄자니아 도로기금(2010년말 약 2,9000억 실링 규모)은 90%가 도로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다.[33] 우리나라도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를 통해 Malagarasi 교량과 인근 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 공사의 70% 이상을 중국기업이 압도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를 내세워 도로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문제는 시공도로와 건물 품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12년도에는 Kawe 도로포장을 일본기업에게 건설부장관이 재포장을 지시한바 있다.[34]

재 탄자니아 중국인은 19세기 독일령 동아프리카 시절 Usamnara 농장 인부로 약 500명의 중국인과 자바 인이 들어왔다. 20세기 영국령 신탁통치 잔지바에 화교들이 진출하여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후 라마단이 끝나는 날(Iftar)저녁에 중국국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50-60년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반식민투쟁 지원으로 정치적 연대를 갖기 시작하였다. 1968년 탄자니아 사회주의 선언으로 중국과 이념적 동질감을 공유하게 되었다. 70년대 중국, 탄자니아 다레살람과

[32]Travis Bradford, *Solar Revolution*, (Boston: MIT press, 2012), 35-41.

[33]*Human Right & Business in Tanzania*, (Togo: Systematic Investment, 2012), 25-30.

[34]*탄자니아 경제통상 및 자원 현황*, 36-38.

잠비아 카피리 연결철도(1,860km)부설과 함께 약 13,000 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도래하였다. 90 년대 중국 기업인들이 사업기회를 찾아 탄자니아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2000 년대 이후 중국 고위 인사 방문을 정례화 하고 국가체육관, 정부청사, 공항 등 대형 건물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대 아프리카 교역량은 2000 년 106 달러에서 2008 년 1,068 달러로 상승하였다. 직접투자도 2000 년 2.1 억달러에서 2009 년 14.4 억 달러로 상승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중국 기업 수는 2,000 개 이상이며, 약 1 만명의 중국인이 탄자니아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3) 광업

탄자니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국토의 약 10% 정도로 광물개발이 더딘 편이다. 그러나 정부가 친 광물 투자정책을 유지하며 사회주의적 광물 탐사 및 지진 조사를 통해 취득한 광물자원과 지질 구조에 대한 시추자료가 인근 국가에 비해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광물은 수출의 42 %, GDP 의 3.5%, 노동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 년간 광업 계 FDI 는 약 25 억달러이다. 탄자니아의 주요 광물중 보석광물은 금, 다이아몬드, 탄자나이트이다. 금속광물은 니켈, 구리, 철광석, 희토류가 있으며, 에너지 광물로는 우라늄, 석탄, 가스가 있다. 그러나 인프라, 에너지, 관료주의, 부패 등이 광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호주의 EAR 사와 탄자니아 남부지역 음쿠주 우라늄 탐사 공동탐사 양해각서를 2011 년 12 월에 체결한 바 있다. 탄자니아의 광업은 독일식민지 시대(1884-1918)에 제한적 광업을 시작하며 철광석위주로 개발되었다. Sekenke 금광이 1909 년에 발굴되었다. 영국 보호령 시대(1918-1961)에는 1923 년에 Geological Survey 를 창설하고, 1925 년부터

[35] Ibid., 37.

다이아몬드 채굴이 시작하였으며 1930 년대에는 대규모 금광탐사를 하였다. 독립 후 사회주의체제시대(1961-1985)에는 광산국유화(Williamson Diamond 제외)로 광물생산이 급감하여 1960 년에는 금이 3 톤, 1970 년에는 10Kg 이었다. 1986 년부터 체제를 전환한 후 광산 민영화와 개방을 한 후 1997 년 Mineral Policy 와 1998 년 광물 법을 제정하고 탐사활동이 급증해 2004 년에는 예비탐사가 2,200 건이나 되었다.

탄자니아 동해바다는 수심 500m-3,300m 약 75,000 평방 km 크기의 분지구조로 석유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첨단 시추선으로 탐사하고 있다. 가스매장량은 7 조 cf 로 확정되었고 60 조 cf 로 추정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동해안의 음나지만(Mnazi Bay)와 다레살람 가스관을 건설 중이다.[36]

(4) 관광

탄자니아의 관광 수입은 2010 년 기준으로 연간 13 억달러로 탄자니아 외화수입의 25%를 차지한다, 세렝게티, 킬리만자로산, 잔지바르 섬 등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15 개의 국립공원과 토지면적의 1/4 을 동물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탄자니아에는 연간 약 70 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1992 년 관광 청 창설 후 관광분야가 민영화되었으나 천혜의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전력부족으로 저개발 되어 있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 총 GDP 의 약 39% 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급신장하고 있다.[37]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은 아루샤에서 여행가이드와 다레살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교포가 약간 있다. 다레살람 취항 국제항공사는 15 개사로

---

[36]Ibid., 42-58.

[37]Ibid., 59.

국제공항은 다레살람, 아루샤, 잔지바르 3 곳뿐이고 아시아와 미국 항공사 미 취항으로 탄자니아 접근이 불편하다. 자연자원관광 부 산하 14 개 기관 중 관광관련 기관은 5 개 이다.[38]

(5) 농업

탄자니아 노동력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로, GDP 의 50%, 수출품 중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외화의 50%를 농업에서 획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품은 농산물이 43%, 광물 36%, 공산품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품은 면화, 캐슈넛(cashewnuts), 담배, 커피, 차(tea)순이다. 토지 면적 9,550 만 ha 중 경작 가능한 초지는 4,400 만 ha 이나 경작중인 토지는 ¼ 인 약 1,000 만 ha 에 불과하다. 경작 가능 토지(4,400 만 ha)중 관개시설이 된 곳은 1/10 수준인 300 만 ha 에 불과하다. 1ha 당 비료 사용량이 9kg 으로 선진국의 200kg 에 비해 5% 수준이며, 트랙터는 70 년대 약 17,000 에 비해 2008 년 2,000 대로 감소하여 농업생산성이 극히 저조하다. 휴경상태에 있는 토지를 활용 상업적 농업을 도입하기 위해 남부 농업 성장지대 (SAGCOT)를 2011 년에 설정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루피지(Rufiji) 강 하구에서 농업개발 협력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루피지강은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강으로 남부지역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 흘러 들어 가고 있다.[39]

킥위티 현 대통령은 2009 년 8 월 중농정책(Kilimo Kwanza)을 주창하여 영세기계화, 과학화 및 영세농과 영농기업을 결합하여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산시킨다는 취지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사한 계획으로 니예레레 초대

---

[38] Ibid., 60.

[39] *Human Right & Business in Tanzania*, (Togo: Systematic Investment, 2012), 45-50.

대통령도 주창한 바 있으며, 2001 년 농업분야개발전략(ASDS)를 수립, 농업을 매면 5% 성장시켜 영세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 변모하자는 정책도 수립한 바 있었다. 이 중농정책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09 년 9 월 인도를 방문한 Pinda 총리는 "Kilimo Kwanza 의 궁극적 목표는 '괭이 농업'에서 탈피해 농기계와 최신 농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에 따라 2010/11 년 농업예산이 전년 6%에서 10%로 증액되었으며 남부농업성장지대(SAGCOT)도 2011 년 1 월 13 일 Pinda 총리 참석 하에 출범하였다. 이 지대는 탄자니아의 1/3 에 해당하는 남북벨트 전역에서 환금작물을 재배하여 인근 국에 수출하는 상업적 영농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2009 년 9 월 7 일에는 Mizengo Pinda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승수 총리와 회담을 갖고 관개, 농업기계화, 농업시설, 농산품 가공 및 원예 농업 등 5 개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2009 년 11 월 5 일부터 11 일 탄자니아 농업실무대표단이 한국의 농어촌 공사를 방문했으며, 2009 년 11 월 23 일부터 28 일 한국 지경부 대표단이 탄자니아 루피지강 하구를 방문하였다. 이후 농어촌 공사 기술진이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고 2010 년말 농어촌공사는 강 하구 지역에 10 만 ha 시범지역 5,000ha 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40]

6) 한국과 탄자니아 교역 현황

한국과 탄자니아의 교역은 1992 년 수교 이후 1 억 달러 미만에 머물러 오다가 2010 년 1.8 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11 년에는 수입감소로 1.5 억달러로 감소되었다. 한국은 합성수지(약 2,700 만불), 백신(약 1,300 만불), 의류와 신발(약 800 만불)과 진단시약(약 500 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탄자니아로부터는 광물과 고철(약 6,400 만불)을 제외한 커피, 보석원석, 활어의 수입총액이 60 만불에 불과하다.

---

[40]Ibid., 62-65

2011 년에는 광물제품 수입이 약 2,000 만불로 급감했다.[41] EDCF/KOICA 발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이 진출을 시작했으나, 2010 년 한국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가입으로 우리 기업들도 2015 년부터 우리의 ODA 사업에 외국회사와 공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42] 대외해발협력기금 (EDCF)사업의 예산 순위는 직업훈련원, 말라가라시 교량건설 및 연결도로, 킬리-아루샤 및 이링가-신양가 송전망과 변전소 사업, 무힘빌리 의과대학 건물 및 의료기자재, 도도마 상수도 공급이다. 국제협력 단(KOICA)지원 사업 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농어촌개발,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환경 분야의 순위로 지원하고 있다. KOICA 는 모로고로 농촌개발, 관세행정 현대화, 다레살람 보건소 강화, 모로고로, 다르, 잔지바르 등의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관개시설 재건과 농업기계화, 다레살람 공대 ICT, 도도마-신양가 식수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3,260 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43]

탄자니아에 있는 한인 교민은 약 370 명 이하이며, 이중 70% 는 선교사, 25%는 KOICA 자원봉사자이다. 5%만이 주로 의약품, 가발 업, 식당, 차량정비, 배터리, 의류도매, 목재업 등에 종사하는 교민이다. 교민조직으로 한인회, 상공회의소, 한인학교, 한인교회 가 있다. 탄자니아는 정치, 사회적 안정, 인도양과 연결, 정부의 친 투자정책으로 EAC 진출 교두보가 되는 많은 기회(potential)이 있지만 부패, 신뢰 부재 문화, 낮은 노동 생산성, 전력과 인프라 부족, 소말리아 해적 등의 위험(climate)가 공존하는 곳이다. 현지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인맥을 구축하고 지속관리를 한다면 동아프리카 회원국으로 확장하기가 수월한 곳이다.[44]

---

[41]정유경, 탄자니아 환경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5-8.

[42]Ibid., 9.

[43]Ibid., 10-11.

[44] *탄자니아 경제 통상 및 자원 현황*, 73-75

2. 탄자니아 선교 전략

1950 년대에는 선진국의 도시화가 두드러졌으나, 1985 년부터는 제 3 세계의 도시인구가 선진국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짧은 역사 속에서 제반 준비가 부적한 가운데 도시화가 이루어진 결과 기형적인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 빈민의 증가, 심각한 주택난, 열악한 보건 위생, 청소년 문제, 취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의 특히 제 3 세계의 대도시들은 21 세기 선교의 핵심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20 세기 말 에 중요한 화두였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처음에는 정치, 경제 문제의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후에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를 통한 정보화 차원으로 모아졌다. 현재는 문화, 혹은 문명과 관련하여 집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세계화 논의로 전재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타 문화의 접촉 점을 모색하는 기독교 선교 역시 세계화의 문화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고찰해야만 하는 것이다.

세계화란 용어는 현재 인터넷이나 21 세기라는 말과 함께 정치, 경제, 종교 등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세계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여러 학문의 탐구 대상이 되었다. 세계화란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통해 문화적으로 단일화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45] 그러나 문화적 단일화 과정이 반드시 평화공존과 서구적으로 바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46] 이는 세계화와 지역문화 사이의 상호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세계는 상호의존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 공존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47]

세계화는 기독교 선교가 지향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신약에서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과(마 28:18-21)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해방의 복음은

---

[45]이후천, *현대선교학의 이슈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17.

[46]Ibid., 220.

[47]Ibid., 232.

세계화를 지향한다(눅 4:18-19). 특히 유대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인 구원에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 처음부터 선교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로 (땅끝까지)확대되는 놀랄 만한 삶과 증언을 실행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삶의 문화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한다. 즉 과학과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문화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서시대에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21 세기의 과학과 기술 문화가 가져다 주는 급속한 인류 문화 변혁의 예고들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접근 할 수 있겠는가? 서구적인 관점으로 점철된 과학과 기술의 독점을 경계하면서 복음을 과학 기술이 지배함으로 문화와 역사 속에 성육신 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 과제라 할 수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선교학의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48]

교회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고 모든 성도가 가지는 환경, 기술, 직업,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만인제사장론의 근본이다. 평신도 신학의 두 기둥은 만인제사장론과 은사론이며 이것은 평신도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핵심적인 진리이다.[49] 현대 선교가 현지인들의 세계관까지 변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수용성 중심의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신을 절제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전문적 학문을 활용하여 그들의 실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가르치고,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의 삶은 현지인들의 모범이 될 것이다.[50]

아프리카를 비롯한 열악한 제 3 세계에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자립을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 까? 그 해답은 선교

---

[48]김은수, *해외선교정책과 현황*(서울: 생명나무, 2011), 45.

[49]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33-35.

[50] 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232-234.

지의 자립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정책의 삼자원리(Three-Self Principle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한국에서는 삼자원리라 하기보다는 John Nevius 에 의해 소개되었기 때문에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불리운다.[51] 19 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중국선교는 당시 중국의 극심한 경제적 피폐함으로 물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선교 방식이었다. 그 때 중국에서 선교를 이러한 전례의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던 네비우스는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귀국을 했다. [52]그 무렵 영국의 Henry Venn 과 미국의 Rufus Anderson 에 의해 제시된 삼자원리에 기초한 토착교회 설립정책을 접하게 되었다.[53] 즉 자립(Self-Supporting), 자전(Self-Propagating), 자치(Self-Gove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이란 현지 교회가 선교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전은 현지인 교회 스스로가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치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벗어나서 현지인 자체의 지도력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54]앤더슨은 자전을 우선으로 둔 반면, 벤은 자립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두었다. 논리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자전이 뒤따라 오게 때문이다. 또한 벤은 빠른 시일내에 선교사의 철수(선교사의 안락사: euthanasia)를 주장하고, 앤더슨은 선교협력(mission cooperation)을 주장했다. [55]

이러한 삼자원리는 그 당시 사구 교회의 가부장적인 선교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당시 영국성공회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

[51]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네비우스의 고유원리(서울: 정음출판사, 1983), 6-7.

[52]Ibid., 10-15.

[53]Ibid., 20-26.

[54]Ibid., 30-40.

[55]Ibid., 51-59.

현지인들을 사제로 안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기독교적 전통도 없는 아프리카 인에게 성직을 넘겨 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사제들이 탄생하였고, 앤더슨의 양향으로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에 재정을 당연히 다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네비우스는 중국 산동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이 삼자원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역에 적용함으로써 전례의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토착교회 설립에 근거한 새 방법을 시행하여 선교의 많은 귀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56]

사람의 욕구가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르듯 사람의 영적인 욕구도 자신의 개성과 영적인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기독교의 인류구원의 복음(Gospel), 그 자체는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복음사역(The Christian Ministry)의 방법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역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사회, 경제적 변화가 따르지 않고는 그것이 뿌리 내리기는 쉽지 않다.[57]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랑의 실천과는 불가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 선교 지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무는 벗어날 수 없다. 선교사는 사회 행동을 취하는 곳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적응을 해야 한다. 그들의 세계관과 도덕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변화를 지향하도록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전문인 사역자는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되고 그들과의 인간관계와 전문지식과 기술이 새로운 인간 상황에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행동은 그 지역 현지인들의 신조, 가치에 적합해야 하며 그들의 배경, 필요, 가치 그리고 추정이 그들의 인간관계나 사회 변화를 위한 사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

[56]Ibid., 61-68.

[57]Louis Luzbetak, *문화인류학*, 채은수 역,(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8), 9.

선교사가 또한 현지에서 협력을 얻으려면 지역의 지도체제를 알고 활용해야 한다. 선교사는 문화변화, 영적 지도, 사회적 행동 그리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적 상황을 알고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58] 인간의 마음을 표적으로 삼는 선교사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하기에 좋은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접촉점으로의 전문인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함에 있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전문인 선교사의 일은 그들의 생활의 편익을 위하는데 있는 데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들과의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교육적(문화적)인 목적을 성취함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구제가 필요한 것보다 인간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인종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양육해야 하며 온정주의로 돌보는 데만 급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 스스로에 의해 그들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야 한다. 성공적인 선교 방법은 우리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져야 한다.[59]

현대는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도로 변하고, 물량적인 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다양한 변화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가치관(The View of the Values)의 변화이다. 사람이 사물을 보는 가치관에 대해 John Dewey 는 '가치란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그 귀중한 것을 지키는 행위이며, 또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인생관이 그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되고, 한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을 총합하면 그 시대의 한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58]Hesselgrave, David, *선교 커뮤니케이션,* 강승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309-310.

[59]Ibid., 86-91.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Secular View of the Values)에 근거하면 세속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가치관(Spiritual View of the Values)을 소유하게 되면 영적인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60]

Lesslie Newbigin 은 기독교적 소명이 충실한 공동체가 복음을 어떻게 삶을 위한 틀로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한없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찬양과 감사의 공동체이다.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또 자신만을 초점으로 삼지 않고 이웃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진 공동체이다. 우리의 사회의 공적인 삶에서 자신의 다양한 은사들을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순종의 희생을 바치는 공동체이다. 서로를 책임을 지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에 기초한 사회 질서의 전조가 되는 공동체이다. 학교에 관련하여 대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펼치도록 도와 주는 데 있다. 회심을 위한 영적이 동기에 우선권을 두는 노력과 동시에 세상적인 필요를 섬기는 데도 역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의 다 나은 수준의 삶, 가치관, 정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열망하는 것은 분명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단계로 영혼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전인격을 사역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과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61]

태양에너지 사역은 탄자니아 최대도시인 다레살람, 행정 수도인 도도마, 킬리만자로 산이 있어 관광지로 유명한 아루샤 부근을 중심으로 현지 상황에 맞추어 현지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전화기의 충전 장치를 적정기술에 맞게 개발

---

[60]채은수, *역사와 문화 속의 선교*,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435-444.

[61]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 (서울: IVP, 1989), 365-373.

보급하면서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 하여 그들이 직접 만들고 직업을 창출하여 교육과 함께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역이 중심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도마에서 22km 떨어진 이홈와(Ihumwa)에서 현지인 Budala 목사가 20 여년이 된 이홈와 교회 안에 2012 년에 세운 St. Joseph Technical Chrity 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교회는 2010 년에 이미 건물에 솔라 시스템을 설치하여 솔라에 대한 장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6,500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1000 명 정도가 노인이며 장년층의 여자는 1500 명, 남자는 1000 명정도 되며, 2000 여명의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데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이 학교에서 돌보고 있다. 전기와 물로 아주 부족하여 마을 에는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농업으로 의존해 살고 있다. 젊은이들이 실직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다. 필자는 연구 목적으로 교회와 학교로 쓰이고 있는 이 곳에 태양에너지 충전 센터를 세워 기술교육과 함께 복음이 전해 지는 과정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마을의 센터를 통해 도시 빈민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기회와 세계화에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 그들에게 소망과 함께 자립할 기초를 닦게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센터에는 networking computer, 프린터, 팩스, 스캐너, 복사기, 프로젝터 등을 구비 한다. 청소년 들에게 수학과 과학, 영어와 컴퓨터와 사무실 기기 조작법 등을 가르쳐 간단한 사무실 업무를 익히게 하여 서비스에 대한 실비의 수익을 올리게 한다. 한편 솔라 휴대폰 충전기 겸용 램프 제작법을 가르쳐 유능한 학생을 발굴하여 그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는 파급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다.

솔라 충전기 제작 방법은 VICOTA(Village Community Bank)라는 탄자니아 전역에 8,000 개의 지점이 있는 현지 소액 자본 대출 은행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 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in Bank)을 모델로 하며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 의 국가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은행이다. 조직 그룹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적절한 기술과 타당한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 빈곤퇴치를 목표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사람과 개발 노력의 팀 정신 사이에서 평등을 소중히 하며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에서 단결과 연대감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동질감이 있으며 솔라 아카데미의 학생들의 부모들을 참여시켜 센터를 통해 직업 교육과 함께 가족들도 기독교인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을 위해서 센터에 책꽂이를 마련해 기독교 서적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들이 자유로이 보게 하는 마을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한다.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기독교 관련 영화를 일주일에 한번 상영한다. 센터 안에는 늘 기독교 음악을 조용하게 틀어 놓고 학생들에게 CD 나 DVD 복사 하는 것을 가르쳐 직업에 활용하게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전에는 간단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과 끝을 맺게 하며 그들의 변화를 살펴 본다. 일주에 한번 정도 성경 66 권 중 인물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일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 하면 영성 수련회를 가짐으로 그들의 영성 변화를 연구해 본다. 탄자니아 현지에서 각 선교단체와의 협력 선교를 도모하며, 현지 기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태양에너지 전문인 사역이 기술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편 필자는 오아시스 솔라 미션을 뉴욕과 커네티컷에 창설하여 기도 모임의 주축이 되는 팀을 구성하여 탄자니아 솔라 미션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현지에서의 선교 능력을 연구하며 자기 능력 개발에 활용되는 바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선교를 재조명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생들을 현지에서와 같이 성경 인물 중심으로 성경공부로 인도하며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선교를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젊은이들을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현지 청소년들을 도우며 같이 생활

함으로 현지 청소년들이나 단기 선교 청년들이나 기독교인의 나눔과 사랑을 몸소 익히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목표와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선교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 점으로 탄자니아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기술교육을 통한 자립의 전략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있다. 선교 지의 현지인 개개인들의 영(Spirit), 혼 (Soul), 육(Body)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전인적 선교에 중점을 두어 성경적인 지역사회 개발(Biblical Community Development Ministry)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선교(Holistic Mission)로 자립선교가 될 수 있는 선교전략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탄자니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문지식과 대중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주력하며 산업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기술교육을 연구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진학과 직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 훈련 및 삶의 공동체 등 총체적 신앙(삶)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적 중요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통한 기술선교 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둘째로는 탄자니아를 위시한 절대빈곤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제 3 세계를 후원하는 선교단체에 중요하다. 과거 수년간 많은 선교 비와 노력이 투자되었지만 현지 교회들은 자립할 수 없고 선교=돈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낳게 됨으로 의존성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기술교육을 통해 자립을 시켜 줌으로 선교회가 안고 있는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로는 선교학적 중요성이다. 육체적 기아가 있는 곳은 언제나 영적 기아도 공존하므로 구제와 개발 사역은 종족 집단내의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Ⅱ. 성서적 연구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바라시는가?' 이와 같은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깨닫기를 원하며 또 깨달은 바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는 성경에 뿌리를 박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교 운동은 전혀 의미가 없다. 특별히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 문화권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1]

20 세기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성서의 권위에 도전하여 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과 논쟁들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신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성서의 가르침이 유일의 구원에 이르는 진리(a truth 가 아닌 the truth)요, 그것만이 참 계시임을 믿는다. 모든 신학과 신학적 주장들의 기초는 성서여야 하고, 성서에 굳게 기초를 두지 아니한 어떠한 신학이나 신학적 주장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성서에 근거한 주장이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성서 전체의 흐름과 가르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2]

---

[1]Georg F. Vicedom,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5.

[2]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서울: IVP, 1989), 23-27.

선교도 마땅히 성서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모든 선교학적 주장이나 선교활동도 성서에 비추어 평가되고 그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독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성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구약성서를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선교의 주역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3]

1. 구약에서 본 선교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분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 (창 12:3)고 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지를 볼 수 있다. 구약 성경 속에는 선교라는 문자적 표현이 전무하지만 문맥과 전체의 구성 속에서 선교를 의미하는, 또는 선교로 해석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 구약성경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의미에서의 선교 활동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상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심도 아담의 후손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 담겨있는 것이었고, 노아의 사역에서도 어느 족속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없었으니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기회는 주어져 있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도 만민 곧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실천이었다. 열방 민족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한 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작업, 그것이 구약의

[3]Roger E. Hedlund,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19-20.

선교인 것이다.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모든 죄와 불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의의 법대로만 살게 하시려는 작업이 구약 선교의 핵심인 것이다.[4]

구원의 백성의 세계성(universalism)이 곧 구약 선교의 뿌리이다. 이러한 구원의 범위의 세계성(universalism)이 곧 구약 선교의 뿌리이다. 독일의 신학자 구스타프 바르넥(G. Warnectk)은 일찍이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중점을 두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이지만, 그러나 '만민을 위한 하나님' 이라는 세계주의가 지배한다.' 고 하였다.[5]

구약 선교의 내용은 구원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하나님과의 화해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새로운 영광과 기쁨의 축복이다(사 25:6-8; 11:6-9). 선민을 택하셔서 보내시고 증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적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선교사상이라고 하겠다(사 41:8, 9; 43:10; 51:5).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곧 만민 열방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다(사 2:2, 3:19: 19:23-25).

흔히 구약의 선교는 '자발적 도래(spontaneous coming) 곧 구심적(求心的; centripetal)선교로 설명하나(시 68:31; 수 8:23)빛을 발함이 없이, 본을 보임이 없이, 부름이 없이 도래할 것을 말함이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사 55:5)한 것은 이사야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을 뜻한다.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구원의 도구적 사명을 감당케 하심은 오직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구원의 주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욜 2:28). [6]

---

[4]*DTP 교리강해연구: 제 14 권 선교편* (서울: 선린출판사, 1990), 114.

[5]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의회, 1985), 39.

[6]박영지, 최영일, *선교신학개설* (서울: 성광문화사, 1997), 15-17.

1) 보편적 역사 시대

창세기 1-11 장에 나오는 역사, 곧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까지를 보편적 역사시대(universal history)라 부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특정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요,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셨다.[7]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하시고, 지키시고, 보전하신다. 하나님은 최초의 자연보호자요, 창조질서 보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보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셈이다. 이러한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심은 당연한 귀결이요,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심판을 행하심도 오직 그의 뜻과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8]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선교를 펴시는 구원의 주이시다. 창조사역 전체의 중심과 정점(頂点)은 인간의 창조에 있으며, 성서의 초점은 그 인간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하나님은 창조사역에 머물지 않고, 그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보다는 긍휼과 관용을 베푸시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창 3:8, 4:9, 6:13).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9]

---

[7]Hedlund, 25.

[8]Ibid. 24-25.

[9]Arther F. Glasser,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63-64.

아담을 통하여 인류에게 약속된 최초의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 3:15 에 주어진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희망이다. 이 희망의 약속에서 제외된 족속은 없다. 이와 유사한 구원의 약속은 노아와의 언약(창 8:20-9:28), 바벨탑의 사건이(창: 10) 그것이다.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소외의 결과로서 인류를 전세계에 분산시키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구원사업을 이루어 가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10]

2) 족장들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부르심으로 새롭게 전개 된다. 이 선택과 부르심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이 드러난다(창 12:1-3).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시발로 꼽을 수 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곧 선교로의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창 12:1, 2). 선교는 자신의 문화와 삶의 장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새 문화를 열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곧 이방 문화 속에서의 선교 기능이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복을 얻는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그 살던 곳을 떠나라는 명령은 오늘 타지로 복음을 갖고 떠나라는 선교에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1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부르심의 목적은 그 창대한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고 그를 통해 모든

---

[10]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42-44.

[11]*DTP 교리강해연구*, 114.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편적인 계획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준비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다.[12]

이러한 선택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볼 때 봉사로 나타난다. Herbert J. Kane 은 그것을 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수행하고 보존할 사명, 이스라엘의 인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구속자'의 통로 역할을 담당할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국 중에서의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그것이다.[13]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개인의 구원과 더 깊이 관계된다(롬 8:29-30). 그러나 선교적 관련에서 보면 '선택은 사명을 위한 것' 이요, 이런 주장이 교리적 진술과도 모순되지도 않는다. 그 사명은 열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봉사적 사명인 것이다. 선택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무조건적 은총으로 택함을 입었던 것이다.[1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 12:1-3)은 그 뒤 세 번에 걸쳐(창 13:14-17, 15:1-21, 17:2-21) 확인된다. 언약의 확인은 주어질 땅과 자손의 번성으로 이루어 진다. 이런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믿음으로 나타난다(창 15:6). 이는 그가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뜻한다. 이것은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고 응답하는 것은 인간 임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다(창 17:10-14)는 표식이요, 하나님의 구속적 관심권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로 세례가 베풀어 지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만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고, 언약의

---

[12] Hedlund, 40-47.

[13]Herbert Kane, *28.*

[14]이광순, 이용원, 46.

백성이 되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 주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창 18:16-33). 이것은 하나님과 악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한다.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00 세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으로 하여금 희생(창 22:6)과 화평(창 26:12-33)의 표상이 되게 하셨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반복이요(창 28:13-15),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한 성실히 이행하여 주셨다. 열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는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시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그들은 각기 주어진 몫을 담당하였던 것이다.[15]

3) 출애굽 시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시는 전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된다.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출애굽기 3: 7-8 장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상태의 고역에서 벗어나게 한 사건이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언제나 정치적, 현실적 의미에서의 해방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예상태에서의 해방은 구원으로 이해되었다.[16] 이때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중심이었다. 여기서도

[15]Ibid., 47.

[16]Ibid., 116.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역이셨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셨을 뿐이다.

출애굽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은 출애굽기 9:15-16 에서 볼 수 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하신 관심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만민에게 자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공표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교적 구원의 관심은 갈등 상황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보고 심판하시면 인간의 고통에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이다.[17]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큰 구원사역의 도구로 삼으셨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살아온 애굽의 왕궁을 벗어나 광야에 은둔하여 사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장면 역시 오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출 3:3, 4). 애굽을 피하여 나온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선교사명을 모세에게 지워 주신 것이다. 아울러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개척지 가나안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 모세를 향한 선교 명령으로서 오경 속에 제시하는 구약의 선교적 지반이라고 할 수 있다 (출 3:8).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18]

모세의 선택도 사명과 봉사를 위해서였다. 성경은 모세의 소명을 결코 그 자신의 구원과 관계시키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 미리 준비시키셨다.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선교적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능력을

---

[17]Ibid,. 117.

[18]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82.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불순종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가 되었고,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와 보호의 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애곡과 슬픔을 맞게 된 것이다.[19]

택함을 입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언약과 선택에 대한 응답을 보여야 했다. 그 응답은 예배와 봉사라는 양면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배는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 표시요, 봉사는 만민을 향한 책임의 표시이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책임을 통해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출 19:5-6).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한 종교 형태를 갖추게 하신다(출 33:7-111, 36:1-38, 25:1-40, 37:1-9, 40:12-16)를 확립하게 하셨다. 예배의 정신은 생활 전반에 미쳐야 한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들을 예배의 규례에 더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20]

4) 약속의 땅과 예언자들

출애굽 이후 바빌론으로 포로 되어 잡혀가기 까지(586 BC)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때에도 선교적 관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역사서와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들 속에서도 선교에 대한 개념은 쉽게 발견된다. 수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호와의 보호를 기대하는 기생 라합의 행위는, 자신의 살던 문화에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개척자적 선교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

[19]이광순, 이용원, 50.

[20]Ather F, Glasser, 132-133.

(수 2:8-14), 시어미를 따라 낯선 땅을 향하여 나선 룻의 행위 역시 같은 선교적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21] 이스라엘 회중에의 가입은 바로 개종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국적을 바꾸지 않고 종교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고, 셈족의 민족주의는 종교적이었기 때문이다.[22] 둘째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만민을 향한 선교적 관심의 모형을 볼 수 있다. 그 기도는 솔로몬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왕상 8:22-40, 44-53)와 이방인을 위한 기도(왕상 8:41-43)로 되어 있다.[23]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방종교와 혼합된 혼합종교, 바알 숭배, 이방인들과의 혼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맺는 동맹 등으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던 시대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요, 어떤 의미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24]

도전에 맞서기도 하고 개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행위도 구약에서 엿볼 수 있는 선교적 자료들이다.[25] 문학서 속에서도, 특히 시편은 이방을 향한 선교의 요청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 67:1-7) 이방인들이 구원되기를 앙망하고 있기도 하다.[26] 끝으로 선지자들 역시 선교적 개념의 구약 계시를 읽을 수 있는 언급들을 하고 있다. 만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사 2:3-14)은 그 일례이며, 이방인의 회심과 메시아의 구원 행위를 내다보는 선지자들의 언급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의 구약적 시각을 제시한다고

---

[21] *DTP 교리 강해연구*, 132-133.

[22] Richard R. De Ridder, *Discipling the Nation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9), 26.

[23] George Peter,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서울: 크리스천출판사, 2004), 117.

[24] De Ridder, 54.

[25] *DTP 교리 강해연구*, 132-133.

[26] Ibid,. 152.

볼 수 있다.[27] 따라서 그들의 메시지는 흔히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다. 특히 아모스나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가난하거나(신 15:4-5) 압제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요(암 5:24),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된다.[28]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사 42:6, 49:6)으로 세움을 입고, 그 빛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모여들어 여호와를 경배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사 45:22, 시; 22:27).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할 것이다.[29]

요나는 구약성경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방인들의 개종을 위하여 직접 파송받은 선교사였다. 요나는 그런 파송에 처음부터 순종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다. 그는 선민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의 대상으로 택하신 이상 그는 느니웨로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집단 개종'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얻어냈다.[30] 마지 못해 따른 순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다. David Bosch 는 "요나는 선교 정신이 없는 선교사"라고 말했다.[31]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들의 육축에까지 (욘 4:11)미친다. 또 한 가지 선교적 관심에서의 통찰이 여기에 요구된다. 150 년 후에 나훔을 통한 느니웨에 대한 경고(훔 1:1, 3:1 이하)와 심판의 선포는 요나의 선교를 무위로 돌리는

---

[27]Ibid., 114.

[28]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역(서울: 두란노서원, 1980), 79-81.

[29] 이광순, 이용원, 55

[30]Ibid., 56.

[31]David Bosch, *Witness to the World* (Great Britain: John Knox Press, 1980), 53.

듯하다. 왜 요나의 선교는 비효율적이었을 까? 우리는 거기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는 양육과정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32]

5) 포로기와 중간시대

(1) 디아스포라

정치, 경제적 변화는 종교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선교적 노력을 가져온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두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 그 이후 희랍과 로마의 침공 점령이 낳은 중요한 선교적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것과, 흩어진 유대인들(diaspora)을 양산하게 되었다.[33] 하나님의 복음전파의 전초작업으로 본국 거주 하나님의 백성보다 흩어진 유대인의 수를 더 많게 하셨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종교를 가져갔고, 비록 국가는 잃어버렸어도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었다.[34]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그 죄과로 흩어짐을 당했다(레 26:33, 신 4:27, 28:64, 30:3, 렘 9:12-16)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교적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이런 유대인의 흩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중심의 구약적기독교 복음선교의 길을 닦아 둔 셈이다.[35]

(2) 선교의 도구: 회당 제도

---

[32]이광순, 이용원, 56.

[33]C.P.Donald Senior & Carroll Stuhmuller, *The Biblical Foudations for Mission (*Maryknoll, N.Y:Orbis Books, 1993), 36.

[34]Johannes Blaws,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옥 역(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88), 63.

[35]De Ridder, 76.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을 세워 이 곳을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예배가 확립된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 쉐마(신 6:4-5)를 낭송하고, 기도, 성경낭독, 권면, 축도 등이 포함된 예배를 드렸다. 물론 선전예배를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못했지만 유대 전통을 계승해 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모두 하였다. 따라서 제사장이 없어도 회당제도는 어디에서나 발전할 수 있었다.[36]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전출입이 금지된 이방인들도 회당출입은 자유로웠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부각된다. 회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에 구애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장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장이었다.[37]

(3) 선교의 도구: 성경의 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 선교에 있어서 성경번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번역사업이 B.C.3 세기 경에 이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국제어였던 헬라어로 유대인들의 유산인 구약성경이 번역된 것이다(70 인역). 번역된 이 성경은 강력한 선교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다. 원래 번역의 의도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교의 도구로 쓰신 것이다. 번역된 성경과 회당에서 사용된 코이네 희랍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고, 역으로 그 말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이다.[38]

---

[36]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888), 77-78.

[37] 이광순, 이용원, 58.

[38]이광순, 이용원, 29

(4) 신앙과 생활

흩어진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이 또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정욕적이고 부도덕한 그들의 다신들 과 비교하여 전재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였다. 다음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다. 희랍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가 제공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 대망의 신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빛으로 보였다.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의 신앙은 선교적 역할을 다했고 기독교 복음의 길을 열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엄격하고 독특한 종교생활, 특히 안식일 준수와 타 종교와는 전혀 다른 예배생활, 그리고 건전한 도덕생활 등이 모두 퇴폐와 부도덕에 살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39]

(5) 개종 권유 운동

유대인들의 선교적 활동은 이방인을 개종시켜 유대인의 회중에 들도록 하는 적극적 활동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구심적 선교에서 원심적 선교에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회당을 중심 하여 종교생활을 영위하던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환영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사상과 생활을 배워 실천하였다. 이렇게 개종하고 들어 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God-fearer)와 철저한 개종자(proselyte)가 그것이다. 전자는 유대교의 의식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도행전의 고넬료(행 10:2) 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후자는 유대교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할례의식까지 행하였으며, 유대교공동체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모든 면에서 유대인으로 간주되었고, 유대인의 묘지에 묻히는 것' 까지 허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39]Kane, 41-42.

회당예배에는 순수한 유대인들과 철저한 개종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세 부류가 참여하였다.[40]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개종운동 은 선교사 양성과 파송이 아니므로 오늘날에는 적극적 선교운동이었다고 할 수 없지만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개방적인 태도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구약성서는 결코 선교와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 정신, 곧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으로 가득하다. '구원의 보편성'(universality of salvation)이라는 생각이 구약성서 전체에 퍼져 있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이 이스라엘의 선책과 사역으로 드러났다. 구약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선교적 활동을 충분히 보여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적 사역은 충분히 보아 주었고,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임을 증거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광대한 선교적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반역을 되풀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책으로서 구약성경을 지켜 주셨고, 그 선교사역의 담당자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41]

2. 신약에서 본 선교

그리스도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시작되는 신약 속의 선교 개념은 곧 신약 신학적 선교 개관이 되기도 한다. 복음서 속에서의 선교와 사도행전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제 서신서들 속에서의 선교와 공동 서신, 계시록 속에서 제시하는 선교 개념들을 정리하고 요약함으로써 신약 속에서 선교 기원은 정립될 수 있다.[42]

---

[40]De Ridder, 89-90.

[41]이광순, 이용원, 61.

[42]*DPT 교리강해연구*, 191.

복음서 속에서의 선교 관계 언급은 무엇보다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 언급은 세상의 끝날 이 다가오는 이 시대가 곧 선교의 시대임을 강조하시는 것이다.[43] 하나님께서 신 구약 중간 시기에 지중해 주위에 있는 복음의 밭을 복음의 씨가 잘 뿌려지고 자랄 수 있도록 갈아 놓으셨다. 특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복음 전파의 물꼬가 트여지게 되었다.[44]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 선교의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요 3:16),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요 3:16),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명령을 하신 후 승천을 하셨다. 승천 후 제자들이 요엘서의 예언대로(욜 2:28-32) 성령에 충만하였으며, 이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서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45]

예수의 생애와 교훈 속에서 복음은 점진적으로 드러났다. 예수의 천국 복음은 이미 시작된 종말(already)과 아직 끝나지 않은 미래의 종말(not yet)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곧 구원의 역사는 항상 각각 개인적으로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며 과거와 미래가 결부되는 것이다.[46]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이방을 비추는 빛" (눅 2:32)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방 모든

---

[43]Ibid., 193.

[44]Hedlund, 236.

[45]전호진, 59.

[46]Oscar Cullman, *구원의 역사*, 김광식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180-182.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고 기록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에게 있어 선교의 성격이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는 것에 있음을 아울러 제시하고 계신다. 또 열두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선교의 본질이 천국을 알리고 치유하는 것에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마 10:7, 8). 그러나 보다 확고한 주님의 선교관 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대위임령 이다.[47]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그리스도의 선교 개념이 천국의 선포와 교육, 제자 육성이라는 표현들에서 나타나고 선교 개념은 보다 확장적이고 교회적인 적극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선교 당부가 개개인을 암시한 직접 명령형이고 인간 내면과 영혼의 개조에 있음에 반하여 바울과 여타 제자들의 서신들에는 선교의 개념이 조직적이고 문화적이며 보다 거시적인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였고, 실라, 디모데, 빌립 등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Great Commission)또한 선교인 것이다.[48]

신약은 구약을 통해 이해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구약은 또한 신약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선교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선교는 신약에서 볼 수 있지만 구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구약적 선교의 완성이 바로 신약의 선교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만민의

---

[47] *DPT 교리강해연구*, 191.

[48] 전호진, 59-61

구원을 궁극의 목표로 가지셨다.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여 그들로 이방의 빛을 삼으시고 만민이 그 빛을 보고 찾아 오시게 하였다. 신약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명을 주어 흩으심으로 시작된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물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어 왔다. 구약의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주제였다면, 신약에서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된다. 구약의 하나님의 주권성은 언약관계의 형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수행, 곧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이웃에 대한 선행을 요구하였다.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성은 그리스도의 '주와 구주'(Lord and Savior)되심 에로 이어지고, 새로운 신앙공동체는 그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고 하신 선포는 교회의 선교, 곧 '복음의 선포'와 연관되는 것이다.[49]

1)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 복음서의 선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다(사 5:1-5).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서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편적 구원 약속(창 12:2)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땅 위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를 행하셨다. 성육의 사건(요 1:14)은 하나님의 인류구원 역사의 중심이며, 절정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2;10)이었고, 인류구원이라는 대업의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의 발현이었다(요 3:16). 그는 '세상의 빛'(요 8:12)과 '이방을 비추는 빛'(눅 2:32)으로

---

[49]이광순, 이용원, 63-64.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마 20:28)로 내어 놓으신 것이다.[50]

예수께서는 인성(人性)을 지니시고 아담의 후예의 한 사람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이끌며'(요 12:32) 자기 백성들을 죄와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분이었다. 그는 실로 인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으로 오셨으니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나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해야 했으며, 돌아온 뒤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민의 구주와 주로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 만민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51]

이사야서 53 장에 예고된 야웨의 종은 고난의 종이었고 희생제물로 드려져야만 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의 일을 하는 것(요 9:4)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 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할 수 없으며, 성육의 위대한 사건을 설명할 수도 합리화 시키지도 못한다.[52]선한 목자로 오신 그는 자기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을 내줌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했으며, 세상의 죄를 홀로 담당하는 어린 양(요 1:29)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으심만이 아담 이래의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했으며, 그의 성육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근본적 목적이 이스라엘

---

[50]Hedlund, 242-248.

[51]이광순, 이용원, 64-66.

[52]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2), 46.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인 구원임을 확인하고, 그의 죽으심이 만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연납하셨음을 의미라며 하나님의 우주 선교 계획이 성취되어 감을 의미한다. 부활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삶과 죽음이라는 일상의 질서를 초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건이다.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공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세상의 구주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사역에서 그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성육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고 입증되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에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 예수의 사역과 교훈을 통한 선교가 그의 제자들에게서 불붙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은 그이 부활에 대한 목격과 경험 때문이다. 이것은 무기력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뵈옵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뒤 세계 선교 무대의 첫 주역들이 된 사실이세 알 수 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교

언제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던 반면 예수께서 친히 이방인을 찾아가신 예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천국의 비밀을 전해 주셨고, 그 대화 이후에도 이틀이나 그 곳에 더 머무시며 일하셨다(요 4 장). 열 사람의 나병환자를 고치신 사건(눅 7:11-19)에서도 고침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와 감사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었다. 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으며(마 8:4-13),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다(마 15:21-28). 그의 선교사역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이 먼저였지만 결코 이방인이 선교사역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53]

예수의 사역은 말씀의 전파와 병 고침, 이적과 기사, 귀신을 쫓아내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가 '타자를 위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 주셨다(눅 22:32, 23:34; 요 17 장). 그를 찾아 온 병든 자, 죄인, 불구자, 과오를 범한 자, 영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대중 등이 모두 그에게서 도움과 위로를 발견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천국의 표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54]

그는 또한 제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셨다.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은 먼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부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부름 받은 열 두 사람이 좀 더 공고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와 더불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훈을 들었다. 이들을 훈련시킬 때 예수께서 사용하신 방법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범을 통한 훈련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교훈을 베풀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이심으로 이론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시범을 통한 교육을 하신 것이다. 그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선교현장으로 파송하셨다. 이 같은 제자들의 훈련과 파송은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부활 후의 지상 명령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충분히 보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공적인 선교경험(눅 10:17)을 가졌기 때문에 훗날에 교회가 세계의 선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55]

복음서가 보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전통에서 보면 율법 밖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그의

---

[53]Kane, 32-33.

[54]Walund Scott, 104-108.

[55]George Peters, 136-137.

사역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의 사역 초기 거버나움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의 예언 성구가 그것을 예고해 준다(눅 4:18-19). 그는 실제로 버림 받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식탁을 함께 하였고(마 9:10, 11:19, 막 2:15-17, 눅 7:31-35), 부자와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눅 6:20-26, 16:14-31)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 이것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의 선교적 관심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데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선교의 주요 과제 임을 증거하는 것이다.[56]

3)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선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한 교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집약된다. 그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고 외쳤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의 총괄을 보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계의 역사이며,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57]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미 도래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도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나타났다는(딛 2:11) 점에서 그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순종을 요구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58]

---

[56]전호진, 60-66.

[57]John Bright, 55-60.

[58]Ibid., 60.

하나님 나라 비유는 대개 비유를 통해 주어진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 축복된 삶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된다(마 13:1-9, 막 4:1-9, 눅 8:4-8). 잔치의 비유는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참석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가난한 자, 병신과 소경들)로 자를 채우고 강권해서까지 자리를 채운다. 초청과 응답이 그 초점이 된다. 역시 선교적인 의미이다. 청지기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마 25:14-30)와 므나 비유(눅 19:12-27)를 들 수 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개인적인 책임성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므나 혹은 달란트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것으로 장사할 의무를 지고 선교의 대열에 동참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선교적 비유는 감추인 보화 (마 13:44)와 진주 비유(마 13:45-46)는 모두 하나님 sk 라의 소유를 위해서는 가진 바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을 의미하며, 잃은 것을 찾는 비유들(눅 15 장)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의 생애와 사역에서 교훈(마 21:43; 막 14:9; 요 3:16, 3:17,12:47)에 나타난 것처럼 보편적 선교로 나타나지만 온전히 선교적 관심으로 가득 찬 것은 그의 부활 후에 가르침이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마 22:37-40)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세계 선교를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 명령은 흔히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마 28:19-20). 이 말씀은 예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를 이어주는 교량적 말씀이다.[59] 이러한 선교는 세상 끝날 까지 계속될 것이었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선교의 주역으로 그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요 20:21).

---

[59]전호진, 64.

4) 교회와 선교: 사도행전

복음서에서 주어진 지상 명령은 사도행전에서 다시 강조된다. 사도행전의 성격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선교적 행적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교회 공동체의 행적이기도 한다. 따라서 제자들과 그들의 중심이 된 교회공동체의 선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연속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60]

교회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공동체가 되고 사명을 위하여 선교공동체가 되며, 그 결과로 교회는 수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61]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받지 못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된다. 사랑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선교적 종교일 수 밖에 없다. [62]

---

[60]이광순, 이용원, 75.

[61]이광순, 이용원, 77.

[62]David J. Bosh, *Witness to the World*, 전재옥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85), 73.

Ⅲ. 신학적 연구

Kark Rahner는 신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선포하신 실제적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적 노력"이라고 했다. 라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의 요소를 표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말씀의 계시"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한편 신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신앙하는 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정의는 신학의 학문성은 과학적이며 방법론적인 "확고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식의 대상에 대한 성찰적 전개"로 유도한다는 것이다.[1]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말씀을 통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의 많은 명령 가운데 하나의 명령 그 이상이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단 하나의 명령 때문에 그리고 사복음서 기자가 각기 강조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지상 명령이 더욱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이해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만들어 준다.

첫째, 기독교 복음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마 28:18)
둘째, 기독교 복음의 명령(마 28:18-20, 막 16:15-16, 눅 24:44-47)
셋째, 기독교 복음의 우주성(마 28:18-20, 막 16:15-16, 눅 24:44-47, 행 1:8)
넷째, 기독교 복음의 특성(눅 24:46-47, 요 20:23, 행 26:15-23)
다섯째, 기독교 복음 선포에 나타난 인간적인 수단들(마 16:15-16, 눅 24:48, 행 1:8, 26:16)

---

[1]Dorothee Sölle,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광선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0.

여섯째, 기독교 복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영적 준비의 필요성(눅 24:49, 요 20:22, 행 1:8)

이처럼 지상명령은 위대한 신학적인 조직으로 그것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2]

Donald McGavran 은 모든 교회의 목표는 모든 문화의 모든 공동체 속에 참으로 토착화 된 교회를 가지는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 만이 우리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토착교회 개척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다.[3] 주님의 이 대위임령은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또 다른 교회를 재 생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

1. 4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복음의 전파의 다양성이 시대의 변천과 함께 더욱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선교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선교를 이루어 가는 데는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없다. 복음서는 다양한 각도로 선교의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1)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선교의 방법은 가장 틀이 잘 짜여 있어서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지침서가 된다.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그를 제자 삼아 가르치고,

---

[2]George W. Peters,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서울: 크리스천 출판사, 2004), 184

[3]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72.

[4]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서울: 국민일보, 1995), 18.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선교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5] 참으로 어려운 선교 형태이지만 가장 모범적인 선교형태이다. 마태복음의 결론인 28 장 18 절 이하 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고 말했다. 마태복음 10 장에서의 3 년동안의 혹독한 제자 훈련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6] 선교지에서 한 사람 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선교사는 언제나 돕는 자로 있어야 하고 현지인이 리더십을 갖게 해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만들게 위해 3 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며 삶의 훈련을 시켰다. 공동체 생활을 통한 훈련을 참으로 어렵다. 영적 성숙도가 깊어짐에 따라 지도자의 삶의 자체를 모범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교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훈련이다.

맥가브란은 제자 삼음(discipling)과 양육(perfecting)을 구분하여 전자는 전도의 단계, 후자는 윤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성숙의 단계로 해석한다. 그러나 맥가브란의 이러한 구분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맥가브란은 제자 삼음의 단계는 다만 지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는 단계로만 정의한다. 그러나 제자 삼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 신자에게 봉사하는 참 신자를 의미한다. 신자가 되는 과정을 1 단계 2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7]

2) 마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선교를 '선포'(Proclamation)이라 하였다. 마가는 예수님의 선교를 소개하면서 한 말, "때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4-15) 가운데 그 주제는 집약되어 있다. 또한 마가복음 16 장 15 절에

---

[5]이재환, *미션파서블*, (서울: 두란노, 2010), 233

[6]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서울: 컨콜디아사), 248-249.

[7]Ma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75-76.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의 선교의 형태는 순회 복음 전파자 같은 모습이다. 빌리 그래함이나 라인 하르트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다.[8] 가능한 모든 이가 복음을 듣게 하는 ‘만민선교’ 를 외치고 있다.[9] Hahn 은 마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10] 복음이 전해 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소위 능력대결(Power Encounter)과 확신의 대결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적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는 먼저 저들로 복음을 먼저 듣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막 16:16)라고 말씀하신다. 전도자가 위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전도(Power Evangelism)하는 모습이 보인다. 말씀전파와 이적을 통한 신적 선포의 모습이다. 바울도 제 3 차 선교여행의 일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였다.

선교현장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사역은 양육보다는 집회, 문서선교, 방송, 영화전도, 같은 선포에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다.[12]

3) 누가복음

---

[8]Peter C.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187-188.

[9]이재환, 236.

[10]Ferdinand Hahn,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5), 98.

[11]Peter C. Wagner, *선교현장의 영적전쟁),* 정운교 역 (서울: 나눔터, 1994), 20-28.

[12]이재환, 236

누가복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을 통해 선교적 확산을 기대한다. 회개 없는 회심은 가능하지 않다.[13] 누가복음 24 장 47 절에 "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 기록하므로 온 세상에 회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 죄 사함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선교의 꽃과 열매는 회개를 통한 부흥이다. 1907 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틀을 만들었다. [14] 회개도 부흥의 열매다. 부흥이 없이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죄 사함의 복음 전파가 진정한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죠지 휫필드, 요한 웨슬레 같은 부흥사를 통해서 미국 땅이 복음의 물결로 파도쳤다.[15] 누가복음의 부흥의 복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는 진정한 복음의 파워를 알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곧 부흥임을 알았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선교는 인간의 사랑이나 연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며, 메시지의 내용은 초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고 했다.

John Stott 도 1966 년 백림 대회에서 대사명에 대하여 "선교란 우리가 선택하거나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령 때문이다."고 하였다.[16]

4) 요한 복음

---

[13]이재환, 233

[14]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역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14-215.

[15]Ibid., 150.

[16]David J. Bosch "*The Structure of Mission: An Exposition of Matthew 28:16-20" Exploring Church Growth Wilbiert R. Shenk. Edit.*(Grand Rapids: Eerdmans pub., 1983), 219

요한 복음에서는 선교를 '성육신 함'이라고 하였다. 요한 복음의 선교 형태는 주님이 하신 20 장 21 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의 중요한 성육신적(Incarnational Mission)선교의 원리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선교사의 삶의 모습이며 기본적 태도이다.[17] 선교란 '언어라는 도구를 이용한 복음전달' 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선교사는 항상 주민들과 얼굴을 대하면서 사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선교란 기술이 아니라 전 생애를 투자하는 삶이다. 선교사는 철저한 헌신을 바탕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인격을 필수조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자 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선교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빌립보서 2 장 5 절 이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선교의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리이다. 선교는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며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복음 전파 사역이며 그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요한 복음은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통한 '생활 복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교는 선교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성육신의 선교로 '내 자신이 복음'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선교사의 삶이야 말로 수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력을 있는 것이다.[18]

사복음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통한 선교의 원리를 보여 준다. 대사명의 내용은 본문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마태복음은 선교의 권위를, 마가는 선교의 범위가 전세계적임을,

---

[17]전호진, *선교학*, 237-238.

[18] 이재환, *미션파서블*, 241.

누가는 선교의 순서를, 요한은 영적 자격과 요구를 각각 강조한다.[19]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회심시키고,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는 방법이 4 복음식의 선교일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삶으로 보여 주는 선교이다. 복음 전파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하나는 소리를 내어 진리를 외치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소리 없이 진리를 외치는 방법이다. 사실은 소리 없는 외침이 선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류학 전문가들은 사람들 간의 의사전달의 30%가 말로 전달되고 나머지 70%는 행동양식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20]

2. 사도행전의 선교

선교학자 Bavinck 는 "선교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설립과 그 확장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21] 선교의 목적은 곧 이방인의 회심과 교회의 설립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함과 영광올림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선교의 근거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째,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역사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역사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의 선교활동은 종말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속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이다. David Bosch 에 의하면 종말론은 마지막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here and now)"와 관련시키는

[19]전호진, *선교학*, 66.

[20]Charles H. Kraft,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김동화 역 (서울: IVP, 1989), 133-135.

[21]J. H. Bavinck,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서울:성광문화사,1978),

것이라 했다.[22]예를 들어 오순절의 결과로 나타난 선교의 계속적인 활동이 있을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 자신이 선교의 주인이지 교회가 선교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사도행전은 평신도 들의 활동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이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개인적 회개는 개인을 살리는 생명이 되며, 집단적 회개는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 대한 자료가 풍부한 가장 우수한 선교문서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 구절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이것은 모든 지역이 다 선교의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 시작하여 급속히 지중해 전역에 확산되어 교회론 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당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었으며, 특정인들로 만 구성되는 동질 집단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과정을 기술하였거니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잘 알려 주는 선교의 책으로 사도행전이 없으면 바울의 서신도 잘 이해될 수 없다. 선교의 원리와 전략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참고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은 당시의 문화의 장벽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며 지중해 세계 공통어로 언어의 장벽이 없었으며 지금 전세계에 만연되는 민족주의 같은 장애가 없었다.[24] 사도행전의 선교는 바울의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22]David J. Bosch, 234.

[23]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35-40.

[24]전호진, *선교학*, 68.

3. 사도 바울의 선교

영국의 선교학자 Roland Allen 은 그의 저서 선교의 방법들(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에서 바울의 선교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울의 선교 활동과 우리들의 선교와의 큰 차이는 바울은 교회를 세운 반면, 우리는 선교부(missions)를 세웠다. 선교부 설립이 현대선교의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부는 교회가 아니다."[25]

그는 바울 선교 전략이 비록 시대와 문화가 다를 지라도 현대에도 기본 원리로 적용될 것을 주장했다. 19 세기 서구 교회의 자립 선교 원리는 초대 교회 선교 전략을 모델로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교과서로 인정한 데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보다 앞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토착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치, 자립, 자전하는 토착 교회를 설립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의 선교전략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1) 도시집중선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세웠고(롬 15:20, 고전 3:6-11), 그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가능한 "멀리 이방인에게로" (행 22:21) 가서 선교하였다. 특히 그는 그들 중 인구가 많고 왕래가 빈번한 4 개의 지역, 즉 아시아 대륙에 속한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유럽대륙에 속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였다. 바울과 누가는 교회들에 언급할 때에 도시보다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행 9:31), "수리아와 길리기아" (행 15:23),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살전 1:8)와 같이 지역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5]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Michgan: Erdmans Puplishing Co, 1962, 83.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할 때는 지역의 중심도시들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은 대개 그 당시에 문화를 주도해온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교통이 편리한 세계상업의 중심지였고 유대주의의 중심지였다." 바울이 이러한 곳을 선교의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는 "도시생활의 편리함이나 군중 때문이 아니라 복음화된 그 도시가 인근지역의 복음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가 안디옥(수리아)에서 바나바와 목회를 하다가 그 그곳을 기점으로 세계선교를 시작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26]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제국 내의 3 대의 도시로서 여러 종족이 함께 살던 도시이고, 동서의 상업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사방으로 전파되는데 최적의 도시였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인접해 있어서 예루살렘교회와의 연계도 유지할 수 있었고,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와 희랍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은 당시 로마제국을 선교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즉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이며 로마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욱 현대적이었다.[27] 실례로 빌립보를 보면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속령이었으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정치, 종교, 상업의 큰 도시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3 년간 체류하면서 그곳을 아시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았다.[28] 대도시는 큰 도로 복음전파가 용이하며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소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로 연변의 도시들은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길목에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저 통과했을 뿐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행 17:1). 바울은 3 차에 걸친

---

[26]박근용, *바울서신* (서울: 기독교문사, 1986), 240.

[27]Roger, S,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서울: 여수룬, 1988), 26-27.

[28]박근용, *바울서신*, 241.

선교여행을 통해 로마의 도시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시들을 선별하여 선교를 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도시교회 설립자였다고 R. Allen 이나 R.S. GreenWay 는 주장한다. 특히 알렌은 바울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전에 전도의 전초기지 도시를 정하고 선교를 펴고 있음을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도시 사람이었고 생계를 도시에서 영위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29] 그 가운데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며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로마제국의 종교적 중심지로 매년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곳이었다(행 19:25-27). 바울은 이 곳에 한 도시의 체류기간으로는 최장시간인 3 년을 머물렀고(행 20:31).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는 디모데를 후임으로 세워 일을 계속하게 하였으며(딤전 1:3),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도 이곳에서 활동하였다(행 18:24-26).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 이외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에베소의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귀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골로새는 에베소의 동쪽으로 90 마일 떨어진 곳으로 바울이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교회는 세워졌다(골 2:1). 골로새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로' 로 바울의 동역자이고 그곳 태생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골 1:7).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에바브로가 에베소를 방문하여 바울을 만났고,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골 1:7).

이러한 실례들은 한국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국 장로교의 부흥발전을 일으킨 원인도 이러한 것에 기인한다. 그것은 미국의 북 장로교가 선교지역을 경기도와 충청도로 택한 것은 "경기도에는 수도 서울이 있으며, 통신, 교통, 정치 등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

[29]Wayne Meek, *바울의 목회와 도시 사회,* 황화자 역(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29-30.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30].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은 대도시를 선교의 전략지로 삼았는데 선교활동을 위해 복음전파지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사도행전 32:21 에서 보듯이 "멀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인구가 많고 문화가 번성한 도시들을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1 차 선교지로 갈라디아와 아시아에 2 차 선교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집중전도하기로 계획했다. 이 네 개 도시 중 갈라디아와 아시아는 아시아지역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유럽지역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최초로 이곳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었다.[31]

2) 교육선교

바울의 선교는 전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교회건축과 성숙한 신자로 양육하였다. 골로새서 1:28-29 를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하노라" (골 1:28-29). "회심자 들이 생기면 바울은 그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는 조직을 갖춘 교회를 세웠다." [32] 그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행 14:21, 23).

또한 바울은 빈부의 차이, 지식이나, 학식이 있고 없음, 천하거나 억눌린 자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

[30]김성남, *한국장로교교회의 태동과 성장 분열*, 뉴욕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1987.

[31]박근용, *바울서신*, 242.

[32]Oswald J.Sanders, *지도자 바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5), 26.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전하기를 원하노니” (롬 1:14-15).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이방인을 위한 선교활동을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롬 11:14)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입었고 또한 사도직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였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롬 11:14).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교육선교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의 체계적이고 대표적인 교육선교는 “두란노 서원의 성경학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두란노 서원은 12 명의 제자 훈련반과 일반의 전도집회 및 말씀의 교육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의 교육선교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33]

3) 문화연결점을 활용한 선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대하였다(고전 9:19). 오늘날 선교적 용어로 말하면 토착화(상황화, 문화순응)선교를 적극 시도하였다.[34]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던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 명이상이면 어디서나 세울 수 있으며 유대인 생활의 종교적, 사회적 중심지이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으나 회당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신앙에 대해 알게 되고, 개종자들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바울은 항상 회당을 방문하여 유대인, 개종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복음을

[33]박근용, *바울서신*, 242.

[34]김은수, *해외선교정책과 현황*, (서울: 생명나무, 2011), 12.

전하며 특별히 그들이 잘 아는 구약성경을 통해 접근하였다(행 13:14, 28:23). 특히 회당을 방문한 랍비에게 모인 경배자들을 상대하여 "권면의 말씀" 을 하도록 청하는 습관이 있다 (행 13:15). 그리고 우상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들의 종교심을 연결점으로 삼았다(행 17:22).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의 말하는 이 새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행 17:19)고 물었을 때 바울은 그들의 신전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행 17:23)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찾았으나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신을 이제 알게 하겠노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 설교는 오늘날 타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며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는 유명한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 아래 언덕, 곧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인 것이다.

이에 대해 Kane 은 "이것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맞춤복과 같은 준비된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건하며 성경지식이 있는 청중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 독특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위대한 선교자였다."고 했다.[35]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한가지 방법에 대해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이건, 약한 자이건, 강한 자이건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의 위치 속에 두었다. 그 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 집단에 동화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 이렇듯 바울은 복음의 대상자들의 주된 관심사와 문화적 특성을 연결점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단절함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섞임 없이 전달하는 것이 오늘날 선교에 절실히 필요하다. [36]

4) 동역자와 교회간의 협력선교

---

[35]Herbert Kane, *선교의 성서적 기초*, 김명혁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5), 33.

[36]David J. Hesselgrave, *선교케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81.

바울은 세계선교를 위해 여러 동역자와 교회와 함께 일을 하였다. 바울은 1 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한 팀이었고 제 2 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으로 조직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단합이 잘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협조자였으며 특별히 헬라 문화권과 로마시민권 자였기 때문에 용이한 선교의 팀이 될 수 있었다. 루스드라 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일하고, 누가와는 드로아에서 합류하였다. 이외에도 사도행전(20: 4)에는 소바더, 아리스다고, 가이고, 두기고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외에 그의 서신에는 에바브라, 데마, 에바브로디도, 아깁보, 브리스길라, 아볼로, 디도, 뵈뵈 등 동역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로마서 16 장에도 그의 동역자 27 명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듯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 즉 oikos 에서 유래한 Oikoumence (ecumenical) 선교는 바울이 지향했던 선교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전 3:9-10) . '오이쿠메네' 는 신약성경에서 15 번 사용된 매우 중요한 용어로 오늘날 영어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의 성서적 근거가 된다.[37] 일치와 협력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선교를 위해서는 신생 교회든 서구 교회이든, 혹은 손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토착교회이든 하나 되어야 하고 동등한 사역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은 여성이든 젊은이든 주위 명령 앞에서는 동등한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아직 젊은이였던 마가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빌립보교회의 지도자 루디아를 비롯하여 브리스길라, 뵈뵈, 유니아 등 여성들과도 기꺼이 동역하였다.[38]

---

[37]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1.

[38]김은수, *해외선교정책과 현황*, 45.

바울은 사람뿐 아니라 교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였을 때 그들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면 항상 안디옥으로 귀환하여 오래 머물면서 선교보고를 상세히 하였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행 14:26). 또한 예루살렘교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였다. 특별히 이방교회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구제활동을 너머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이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ecumenical)을 나타내는 것이었다.[39]

현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교에 있어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선교센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바울은 1 차 전도 때부터 안디옥을 선교의 전략기지로 삼고 예루살렘을 선교의 모처로 삼았다. "바울은 역시 예루살렘교회와 계속 접촉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 없이는 그의 이방인 선교가 위험에 부딪칠 것이다." 바울은 적어도 20 년동안 예루살렘을 모교회로 간주하였다. 바울은 "그 유력한 교회와 계속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적어도 다섯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교회를 방문하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계 기독교와 이방계 기독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아가야의 이방교회들이 보내는 사랑의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에게 지원해 주기도 하였는데 바울의 이러한 선교전략은 "그 헌금이 또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유용한 희망을 준 것이다. 즉 유대계 기독교와 이방계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띠로 묶어 두기를 희망한 것이다." [40] 이러한 방법이

---

[39]Ibid., 46.

[40]Kane, *선교의 성서적 기초*, 134.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선교의 성공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교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는 곳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싹이 터서 성장하게 하였다.[41]

이러한 그룹선교와 함께 동역자와 교회간의 긴밀한 협력선교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는데 좋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점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살전 1:7-8).

5) 자급자족한 선교

바울은 유대인의 생활습관에 의해 13 세때 부터 천막 짓기 기술을 배웠다. 우리는 그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의 작업장을 통하여 선교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자급자족 함으로 타인이나 교회에 채무를 지지 않았음도 분명하다(딤전 3:9). 이것을 볼 때 바울의 일반적 선교활동이 자급을 위하여 일하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의 3 번째 선교여행을 살펴보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고후 12:14).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로서 신자들에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전 9:14, 마 10:10)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값없이" (고전 9:18)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였다. 이것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

[41]Ibid., 137.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살전 2:9)고 편지한 것과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행 20:33)고 말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42]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어리석은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순회교사와는 대조되는 바울의 청렴하고 깨끗한 선교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교회도 자신처럼 자립하도록 권면하였다. 바울이 선교한 사람들 가운데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스스로 자립할 것을 기대하며 권장하였다(고후 8:2).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제를 포함한 봉사도 하게 하였으며, 결코 헌금으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등의 일을 없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립하도록 하였다.[43]

바울이 바랐던 교회의 최종적 목표는 자립(self-supporting)하는 교회 뿐 아니라 스스로 선교(self-propagating)하는 교회였다. 바울에게는 2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세계를 신속히 복음화하는 것과 그의 궁극적 목적은 지교 설립이다. 그는 믿지 않는 유대인의 소동으로써 쫓겨 다니지 않는 한 보통 2-3 개월은 한 도시에 머물면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더 오래 체류함)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여 교회들이 자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들 스스로가 복음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살전 1:8). 바울의 선교활동은 15 년간으로 생각 되는데,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1, 2, 3 차 선교활동을 통하여 앞에 언급한 네 개의 지역전체에 강하게 번성하는 자립적인 교회들을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호켄 다이크는 선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들이 한 것을 즉, 선교를 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결코 이해 할 수 없다. 사도직분이 없는

---

[42]김은수, *해외정책과 현황*, 42.

[43]Ibid., 43 .

사도직은 사도직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직이 증거할 신앙을 떠나는 배교일 뿐이다(Bosh 1985:236). 19 세기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 되면서 영국의 Henry Venn 과 미국의 Rufus Anderson 에 의해 제시된 삼자원리(Three-self principle), 즉 자립(self-supporting), 자전(self-propagating), 자치(self-governing)선교는 근원적으로 바울의 선교전략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절일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립정신을 한국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실천했기 때문이다[44]

6) 성령에 의존한 선교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철저히 의존하였다. 그는 재능과 학식이 많은 자였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자신은 다만 그의 도구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롬 15:18)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롬 1:16), "그리스도의 능력" (고후 12:9), 그리고 "성령의 능력" (롬 15:18)으로 표현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을 말한다. 바울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교하였다.[45]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의 수고가 헛되며, 인간적 모든 노력들로 유익이 없음을 확신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으며,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에 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일찍부터 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다.

바울은 1 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와 그의 선교보고를 할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셨고, 자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되는 도구였음을 거듭

[44]Ibid., 43.

[45]Ibid.,46.

밝힌다. 바울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로서 여러 일들을 이루셨다는 선교의 전 과정에 나타난 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46]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도구인 이유는 높임 받은 주님은 세계의 주인일 뿐 아니라 교회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Missio Deo'를 처음 채택한 칼 하르텐슈타인은 "교회는 땅 위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중심이자 세계 역사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수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공동체라는 그의 구속사적 신학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47]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인격으로 지금도 우리의 선교를 이끌고 계신다. 성령은 오순절에 나타나시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선교의 주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안에서 우리의 선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교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점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실한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 그들 스스로 이끌어 나가게 하며, 현지의 경제적 필요는 그들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선교지를 떠난 후에도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교회의 선교(Missio Ecclesiae)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근거한 선교전략을 항상 새롭게 세워가야 할 것이다.

---

[46]Ibid., 47.

[47]Ibid., 48.

4. John Nevius 의 선교

선교지의 자립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정책은 삼자원리(three-self principles)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한국에서는 삼자원리라기 보다는 네비우스에 의해 소개되었기 때문에 '네비우스 선교정책' 이라고도 한다.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사역했던 초기 당시 서구 선교사들이 하던 방법대로 선교기지 안에 병원, 학교 등을 짓고 중국인들을 모아 전도하여 회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9 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중국선교는 당시 중국의 극심한 경제적 피폐함으로 물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쌀신자(rice Christian)들을 양산하게 되었다.[48] 네비우스는 첫 중국 선교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이 때 Venn 과 Anderson 의 삼자원리에 토착교회 설립정책을 접하게 되었다.

Venn 과 Andrson 의 삼자원리가 생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Willam Carey 이후 개신교 선교는 주로 선교기지(mission station)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각 선교기지에는 선교사들의 숙소와 교회, 서구식 학교와 병원, 때로는 인쇄소까지 갖추고 선교사들이 선교기지 안에 모여 살면서 토착민들을 선교기지 안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전도하고 회심시켜 그들을 고용하여 다른 토착민을 전도하게 하고, 선교사들은 보고만 받고 재정만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결국 회심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선교기지 안에서 선교사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현지 지도력은 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49]

미국해외선교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ners for Foreign Secretary) 파송 선교사인 Anderson 은 이러한 당시 서구 선교 방법의 폐단을 직시하고, 바울의 선교방법을

---

[48]John L. Nevius, *네비우스 선교방법론,*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5.

[49]윤성범, *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80-86.

규범삼아 서구의 기독교 교육보다는 토착적 기독교 교육을 주장하고 토착교회의 운영의 자립을 제시하였다.

한편 영국교회선교협회(Church Missionary Society)소속이었던 Henry Venn 은 당시의 선교는 식민통치하에서 토착민들을 순화시켜 잘 복종케 하는 국가정책의 선봉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서구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직시한 Henry Venn 은 토착인들을 훈련시켜 목사나 장로를 세워 그들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이전시키고 선교사는 다른 개척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토착 교회 설립은 이전의 선교기지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지인 중심의 토착 교회를 세우려는 정책으로서 그 핵심 개념으로 자립, 자전, 자치의 삼자 원리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립이란 현지 교회가 선교사들의 선교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전은 현지인 교회 스스로가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치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벗어나서 현지인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와 같이 Venn 과 은 당시의 흐름을 반박하고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선교정책을 제시하였다. 앤더슨은 자전(Self-propagation)을 우선으로 둔 반면, 벤은 자립(self-support)을 실제적이며 신학적 이유 때문에 우선으로 두었다. 논리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면 자전이 뒤따라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립에 의한 자전은 네비우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벤은 빠른 시일 내에 선교사의 철수(선교의 안락사: euthanasia)를 주장하고, 앤더슨은 선교협력(mission cooperation)을 주장하였다.

삼자원리는 그 당시 서구 교회의 가부장적인 선교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당시 영국성공회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현지인들을 사제로

안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기독교적 전통도 없는 아프리카인 에게 성직을 넘겨준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헨리 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사제들이 탄생하였고, 앤더슨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에 재정을 당연히 다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삼자원리에 근거하여 네비우스는 중국 산동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사역에 적용함으로써 옛 방법을 철처히 배격하고 토착교회 설립에 근거한 새 방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선교의 결실을 보게 되었고, 이 경험을 1854 년에 *중국 선교 기록서(*Chinese *Recorde*r)라는 저널에 기고하였다. 그는 나중에 이 기고문을 엮어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50]

이 무렵 한국에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도착한 언더우드는 언어를 배우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가운데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 내용에 매료된 언더우드는 네비우스에게 한국을 방문하여 그의 선교정책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90 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던 길에 제물포를 통하여 서울에 와서 장로교 선교사들과 열흘간 머물면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을 언더우드는 한국적 상황에 재적응시켜 1891 년에 한국 장로교 선교부의 선교정책으로 삼았다.

언더우드는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가르쳐 그가 개인 전도하는 일꾼, 즉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한다. 둘째, 교회의 운영과 기구조직은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획하고

---

[50]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3), 58-61.

실천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셋째, 교회의 전도 사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나오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적격자가 생기면 그들을 선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 육성한다. 넷째, 교회당 건축은 가능한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하게 하되, 건축의 구조나 모양은 한국 고유의 양식으로 혹은 지방의 교회답게 건축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벤과 앤더슨의 삼자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자립과 조직적인 성경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51]

한국기독교 역사에서는 한문성경이 아닌 한글성경을 보급함으로써 문명 외치는 물론 한글보급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또한 평신도 중심의 선교운동에도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많은 평신도 지도자가 배출되어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성직자 중심의 하향식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상향식 선교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인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선교지 교회가 자신의 토양과 문화 위에 자립교회를 세우는 토착선교원리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52] 따라서 삼자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선교단체와 교회는 이러한 장점을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다.

5. 교회성장운동

일찍이 Peter Wagner 는 교회성장과 관련된 저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다섯 가지 기본적 신학적 전체들을 추출하였다. 1)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임 2)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3) 성서의 규범적 권위 4) 죄, 구원 및 영원한 사망의

---

[51]H.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109-110.

[52]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5.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실재 5)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53] 그러나 후에 와그너는 교회성장론자들의 신학적 지침을 좀 더 상세히 "신학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리" 7 가지를 제시한다. 1)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3)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4)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규범적 권위이다. 5) 죄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종말론적 현실이다.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을 맡기셨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54]

Tom S. Rainer 는 와그너의 발전적 교회성장을 인용하며 1974 년 로잔회의(The Lausanne Covenant)에서의 신학적 선언이야말로 교회성장을 위한 신학적 진술이라고 주장했다.[55] 교회성장운동을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교회성장의 관계이다. 교회성장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회성, 성령의 은사활용이 각각 독립적으로 언급되기도 한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적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의 협력자로서의 인간의 책임 문제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된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께서 는 잃은 자를 찾아 내어 우리 안에 들이시길 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56]

---

[53]Peter Wagn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서울: 성서연구사, 1986), 16.

[54]Peter Wagner, *교회성장전략*, 명성훈 역(서울: 나단, 1992), 39.

[55]이후천, *현대선교학의 이슈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43.

[56]Ibid., 44-45.

맥가브란은 이 같은 명제에서 출발하여 “탐색의 신학”(search theology)과 “추수의 신학”(theology of harvest)을 대별시킨다.[57]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잃은 자녀들을 단순히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 학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 분의 계획과 목적,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선택 하신 모든 인간은(엡 1:4-5: 딤후 1:9) 자신을 향해야만 하고, 이때 인간적인 수단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가 성장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58]

레이너는 교회성장신학의 기독론적 진리를 여덟가지를 정리 했다.

> 1)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창 1:26-27) 창조하였다”와 관련하여 기독론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요 1:1)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이셨다.”
> 2) “인간은 죄에 빠졌다.”(창 3)---“죄의 결과로서 심판이 피조물과(롬 8:19-21) 인간에게(롬 5:12) 닥쳤다. 인간이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화해자가 필요하였다. 물론 그 화해자는 예수그리스도 이시다.
> 3)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인간이 되셨다.”(마 1:20; 눅 1:35)--“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몸소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빌 2:7-8) 4) “하나님의 외아들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전 6:20)---“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속물이셨다.”(벧전 2:24)
> 5)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셨던 그 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 부활하셨다.”(고전 15:56-57)
> 6) “구원은 그리스도와 그 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요 14:6) 7)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배타성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명령하셨다---”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다. (마 28:19) 이것이 교회성장의 중심교리이다.”
> 8)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재림할 것이다.”---“교회성장과 복음전도의 과제는 예시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더욱 긴급해 진다.”(살전 5:4-10)[59]

또한 George Peters 는 교회성장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보혜사”요 “조력자”인

---

[57]Peter Wagner, *교회성장이해*, 60.

[58]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255.

[59]이후천, *현대선교학의 이슈들*, 45-46.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60] 그는 특히 성령이 교회성장의 "궁극적 근거"요, "영적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61] 이때 성령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는 정삼각형 안에 성령에 있고, 각 변에 이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잡는데 밑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성령과 그것들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바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복음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논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에서는 사도의 본질, 곧 제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교훈적인 의미를 성서에서 발견하려고 한다.

둘째로, 교회론인데, 교회성장학자들은 한결같이 교회론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이해한다. 즉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해석한다. 이점에 관련하여 와그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 의 나라와 부분적으로 동일시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62] 그러나 그는 교회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회심성정을 중요한 것으로 보며 교회성장을 "교파적인 자기 증식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의 보존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63]

여기서 교회론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구원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교회성장운동에 있어 구원은 그리스도와 만남을 위해 교회에 들어섬을 의미하는데, 맥가브란의 경우 이것을 제자화(discipling)와 완전화(perfecting)의 단계로 발전시켰다.[64]

---

[60]Peter Wagner, *교회성장신학*, 96.

[61]Ibid., 139.

[62]Peter Wagn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30.

[63]Ibid., 32.

[64]Donald McGvran, *하나님의 선교전략*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4-35.

여기서 제자화란 처음으로 비기독교문화에서 그리스도께 방향을 전향하는 것, 한 개인이 그리스도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연합하는 것, 성서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화는 제자화 집단 내의 도덕적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교회성장운동의 신학은 교회의 기능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적 복음전도, 제자화, 예배, 사회봉사 가운데 복음전도를 교회론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65] 맥가브란에 의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교회 성장을 위한 동기들 가운데 가장 큰 신학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첫째, 목회자는 "감사와 관련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할 때 교인들은 비로소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전도명령(마 28:19) "가라"는 명령은 율법주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언"이며, "그가 인도하는 길에 그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특권으로서의 명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특권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초대 사도 시대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교인들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수의 교회지도자가 요청"되며 이것은 이웃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동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66] 그는 사도행전이야말로 교회 성장의 교회론의 대한 교과서이며 이 원리에 의해 온전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셋째로, 우리는 성서론으로서 교회성장학자들의 교회성장의 근거로 제사하는 성서적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 살펴보자. 교회성장운동에 있어 성서적 기반에 대한 강조를

---

[65]Ibid., 149.

[66]Ibid., 150-151.

대단히 중시한다. 이것은 복음주의적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복음주의 선교학의 첫 번째 특징이 "삶의 기준으로서 성서"가 있기 때문이다. Text 와 상황(context)에 있어 텍스트에 권위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텍스트를 사용한다. 해석의 경우에도 상황과 자신의 체험에 따라 성서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도 한다. 성서의 이해방식에 있어서 문화와 전도위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는 문제이다. 와그너에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는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도가 확실히 우선적이다. 성서의 모든 본문들은 이러한 방향과 입장에서 해석된다.[67]

[67]이후천, *현대선교학의 이슈들*, 50-51.

Ⅳ. 사회학적 연구

1.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세상에서 정의하는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 이라고 되어 있다.[1] 기독교의 봉사는 "기독교적 정신과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 이라고 이재서 박사는 정의한다.[2] 이 두 정의의 분명한 차이는 그것의 '정신과 목표' 에 있다. 세상에서 지향하는 봉사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 혹은 인도주의이고, 그 목표는 인간의 행복과 평등, 사회적 정의의 실현 혹은 인류의 평화에 두고 있다.[3]

물론 기독교도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중시 여기며 추구한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지 목표나 신념이 될 수는 없다. 기독교가 봉사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연계되어 있으며 그 목표도 인류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 에 닿아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기독교의 본질적 목표가 그대로 사회봉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봉사도 결국 교회 사역의 하나이며 그래서 같은 정신과 같은 목적을 교회와 함께 공유하는

---

[1] *그랜드 국어 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4), 1132.

[2]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세계밀알연회 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45.

[3] 장인협, *사회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6-23

것이다.[4] 특히 창세기 2 장 18 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회 출발의 동기와 사회봉사의 근원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절대적 단서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그 때 가지셨던 마음과 생각을 보여 주심으로서 그 취지와 동기를 이해하게 해 주는 것이다.[5]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사회 창설의 동기이고 사회는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을 인간의 삶의 형태로 정하셨다. 모여서 함께 사는 유기적 공동체, 즉 사회를 인간의 삶의 환경으로 선택하신 것이다.[6] 사회라는 것을 인간의 삶의 형태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담겨야 할 무대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자연과도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7]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4 차원의 범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첫째는 인간 자체의 창조이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것은 지(知), 정(正), 의(義)의 인격을 포함한다. 둘째는 공동체, 즉 사회의 창설이다. 이 사회는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형태로 남녀를 부부로 하는 가정을 기본 단위로 존속된다. 셋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법칙의 설정이다. 이것은 사회를 지탱할 기본 질서로, 그 내용은 봉사이다. 이 봉사는 그 개념을 사랑으로 확대할 수 있다. 넷째는 인간의 삶의 환경으로 자연을 만드신 것이다. 자연은 인간을 돕고 필요를 공급하는 위치로 그 관계는 설정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인간과 관련된 제반의 창조의 과정은 종결된 것이다. 이

---

[4]이재서, *에덴의 복지와 그 신학적 의미*, 총신대 논총 제 19 집 (서울: 총신대학교, 2000), 252-253.

[5]*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55.

[6]Ibid., 57.

[7]이재서, *에덴의 복지와 그 신학적 의미*, 247-248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는 인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법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함께 설정하긴 창조 질서 이다.[8]

이 세상의 철학은 "내가 가진 것은 남에게 주지 않고 붙잡는 것" 이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다. 이 두 종류의 철학을 간단히 '취하는 것' 과 '주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 20:35). 고 하셨다. Stanley Johns 는 "내게 있는 것이 내 형제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형제에게 그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9]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Waldron Scott 은 "선교란 질적으로는 복음을 우리 시대의 큰 이슈에 적용시키는 것이며, 양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무력한 자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며, 유기적으로는 선교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스콧의 선교 개념은 메시지의 현대적 적용,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인 것이다.[10]

20 세기 중반 이후 복음주의(Evangelical)신학 계열에 있어서 선교학의 중요한 성과물 가운데 하나는 미국 풀러 신학대학의 Donald A. McGavran(1897-1991)및 Peter C. Wagner(1930-) 등을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운동(church growth movement)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맥가브란이 전체 기독교인들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성장의 유형, 성장의 방법 및 모델 개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신학적 근거 제시 등 교회

---

[8]이재서,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그 실천 신학적 의미* <신학지남> 제 69 권 1 집 (통권 제 270 호 2002 봄호), 318-324.

[9]Herbert Kane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민병홍 역 (서울: 죠이 선교회, 1986), 167.

[10] Waldron Scott, *Bring Forth Justice: A Contemporary Perspective on Miss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 1980), 35.

성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갖춘 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한 것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와그너는 이런 토대 위에서 교회성장운동의 지평을 치유와 영성의 문제로 확대하고, 이것이 보다 심도 있는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기여하였다. 그 결과로 이 교회성장운동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성장의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학적 성찰로 이어지면서 또 새로운 운동과 이론으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교회성장운동은 이론을 구축하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실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화시키는 진행형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11]

에큐메니칼 신학에서는 수평적 복음의 차원을 중시하여 인간화가 선교의 중심 내용이다. 사회에 하나님의 샬롬을 구현함을 선교의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도는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여긴다. 에큐메니칼 신학에서는 사회복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한 개인 구원과 또한 사회 변화를 강조한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심, 사회적 행동을 가질 것을 말한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제도, 경제 제도, 사회 구조 속에도 뛰어들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이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다.[12]

영국의 John Stott 는 "신자의 사회 행동은 전도의 동반자(partner)이면서 양자가 독립된 것 이라고 한다. 사회 행동은 전도의 수단이나 표현이 아니라 양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전도와 사회 행동이 함께 해야 한다" 고 결론은 내리고 있다.[13] 그는 에큐메니칼 선교와 복음주의 선교의 양극화를 절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교회는 선교란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과장이다. 교회는

---

[11]간하배, *교회성장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51-62.

[12]김승호, *선교의 상황화*, 23

[13]John Stott,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5.

봉사의 단체일 뿐 아니라 예배의 단체이며, 예배와 봉사가 서로 소속적이기 하지만 혼동된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관을 주장하였다.[14] 또한 Donald A. McGavran 은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이다." [15]

제 3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정의, 사회적 평등과 개발을 요구 하고 있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 받게 해 달라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제 3 세계의 개발 도상국가들은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도 기술의 낙후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을 잘 보호하며, 기술을 개발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다. 지금은 말없는 행동의 전달(Non-Verbal Communication)시대이다. 특히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교회가 사회 변화의 행위자이며, 문화의 변혁자이며, 세상을 섬기는 자라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희생적인 봉사가 요구된다.[16]

2. 상황화

사람의 욕구가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르듯 사람의 영적인 욕구도 자신의 개성과 영적인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기독교의 인류구원의 복음(Gospel)

---

[14]John Stott, *현대 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35-36.

[15]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26

[16]전호진, *선교학*, 285-295.

그 자체는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복음사역(The Christian Ministry)의 방법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역사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선교지에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모르고 단순히 신학적 지식으로 어떻게 그들의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문화의 용도 기능 가치를 알아야 이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복음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사회, 경제적 변화가 따르지 않고는 그것이 옮겨 심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화 가운데 교회를 확고히 심으려고 하는 선교사는 문화연구를 시행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17]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에틱(etic)과 에믹(emic)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 에틱의 관점은 특정한 제도(문화)를 외부인의 관점으로 그들의 행동(삶)을 연구하는 방식을 말하고 그 연구 방법의 본질적 접근 방법(외부인에게) 낯선 것(문화, 제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즉 외부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반면 에믹 관점은 내부자 관점으로부터 행동(삶)을 연구하는 방식이다. 분명 상황화는 에믹 관점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18] Harvie Conn 은 "상황화는 문화 및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 전반을 고려하며, 특히 제 3 세계의 문화와 모든 상황 전반을 고려하는 신학적 작업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19]

토착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특정한 문화상황에 맞게 전하려는 신학적 작업이라면, 상황화는 토착화의 모든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인간이 처한

---

[17]Louis Luzbetak, *문화인류학*,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8), 9.

[18]김승호, *선교의 상황화* (토라: 2007), 119.

[19]Harvie M. Conn, *Contextualization: Where Do We Begin?*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7), 93.

상황들을 고려하고자 하는 신학적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Charles Taber는 토착화와 상황화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여섯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첫째, 토착화는 문화적 차원만을 고려하는 반면 상황화는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차원까지 고려한다.
> 둘째, 토착화가 문화를 정적(static)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traditional terms)로 본다면 상황화는 문화의 변혁(change)와 변혁(transformation)과 정을 강조한다.
> 셋째, 토착화가 인간 사회를 닫힌(closed), 그리고 자신에게 국한된(self-contained)체제로 본다면 상황화는 개방(opened)된 체제,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체제로 본다.
> 넷째. 토착화가 주로 해외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진다면, 상황화는 인간이 만든 제도, 구조, 문화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거룩한 것과 사단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3세계를 포함한 서구사회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섯째, 토착화가 복음의 전달 혹은 표현을 주로 다룬다면, 상황화는 복음의 총체적인 차원(universal dimension)을 다룬다.
> 여섯째, 토착화가 외국 선교부로부터 현지 교회로 권위가 이전되는 것이라면, 토착화는 시작부터 현지교회가 자율성(자치성, autonomy)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20]

Fuller 신학 대학원의 Dean Gilliland 교수는 상황화가 현재와 미래의 선교사역에 매우 적합하고 적절한 방식인 여섯 가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1]

> 첫째, 상황화는 신학이 제국주의화가 되는 것을 막는다.
> 둘째, 상황화는 성령 안에서 신학적 훈련을 제공한다.
> 셋째, 상황화는 선교의식적인 교회가 되도록 촉진한다
> 넷째, 상황화는 교회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한다.
> 다섯째, 상황화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다차원적인 필요에 대처하게 해 준다.
> 여섯째, 상황화는 성육신적인 증거의 길을 열어 준다.

---

[20]Charles Tabe, *Is There More Than One Way to Do Theology*, Gospel in Context 1(Jan, 1978), 37.

[21]Dean S. Gilliland, *The Word Among Us*, (Dallas: Word Piblishing, 1989), 13.

Chalres Kraft 역시 상황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2]

"서구의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과 다르기 때문에 상황화는 필요하다."

George Peters 도 비슷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가 대유행이다. 의심할 것 없이 이런 아프리카화에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서구인들은 기독교를 표준화(standardize)하는 권리를 마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되며 또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를 발견해 왔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잘못 생각해왔던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인, 동양인들, 남반구인들(the Southern Hemisphere)도 기독교를 풍부하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의 교회는 분명 서구의 교회와는 달라야만 한다. 그 이유는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필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꺼이 인정해야만 한다. 아프리카화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한다." [23]

"회심(conversion)" 이란 옛 방법에서부터 새 방법으로 전환을 의미하는데 사회, 경제, 종교에 있어서 전제와 목적의 재 방향 설정, 새로운 가치의 수용을 말한다. 선교사는 기존의 문화를 무시함 에서가 아니고 그것과 일치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지도해야 한다. "적응(accommodation, adaption)", "문화적 적합의 원리(the principle of cultural relevancy)" 혹은 "토착의 원리(the indigenous principle)" 는 선교사가 추구하는 것이다. 적용을 위해 "자신을 비움" 에 예수님보다 더한 분은 없다(히 4:15). 그는 자기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과 가치를 비우고 채용된 백성과 동일화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고전 9:22)" 이 되었다.

---

[22]Chalres H. Kraft, The Contextualization of Theology, (Evangelical Mission 14, 1978), 33.

[23]George W. Peter, Current Theological Lssues in World Missions (Bibliotheca Sacra 135, 1978), 162-163.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자신을 동일화하였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이건, 율법이 없는 자이건, 약한 자이건, 강한 자이건 자신을 그 사람들의 위치 속에 두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각 집단에 동화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24]

3. 도시선교

1) 세계의 현황

세계의 인구가 늘어 나면서 도시의 숫자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도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무대가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교의 장이 되고 있다. 20 세기에 와서 폭발적인 인구 성장,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의 향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 하면 아프리카의 정글을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교육 받고, 도시에서 훈련을 받고, 낯선 나라의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돌아 오는 선교사의 수가 점점 많아 지고 있다. 이제는 '콘크리트 정글' 로서의 도시, 새로운 변방으로서 도시를 인식하고, 현대선교의 국면을 이해해야 한다.[25]

1920 년 까지만 해도 세계인구 가운데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50 년대에 이르러 그 수치가 29% 증가하였고, 1990 년에

---

[24]David Hesselgrave, *선교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81.

[25]문상철, *도시선교의 현황과 과제*, 현대선교 3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1993), 37.

이르러서는 45%에 도달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그 수치가 65%에 육박될 것으로 예상된다.[26]

지역별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인구 성장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개발국가에서의 인구 성장은 1960년대에 2.4% 였는데 1980년대에는 2.6% 이고 21세기 초반에는 인구증가의 90% 가 제3 세계에서 일어난 것을 주목 해야 한다.[27]

미국의 선교 학술지인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은 2013년 1월호에 2013년 세계 전체인구가 71억3천만 명이며, 연 증가율은 1.18%이고, 2013년 기독교 인구는 23억5천만명, 연 증가율은 1.32%, 무슬림 인구는 16억3천만명이며 연 증가율은 1.84%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해외선교 연구센터(OMSC)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2억9천만 명(가톨릭 11억5천만 명, 기독교 3억 7천 만명, 독립교회 4억 2천만명)이라고 밝혔다. 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프로젝트는 세계 무슬림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 지금보다 35% 증가해 2030 년에는 22억이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교문제를 연구하는 단체(Denison Forum on Truth and Culture)의 창립자인 서구 무슬림이 늘어 나는 이유가 개종자의 증가라기 보다 무슬림 이민자와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의 증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는 세계 무슬림 인구의 연 증가율은 1.9% 이고 세계 전체 무슬림은 15억8천만명으로 세계 종교 제2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세계제1위로 신도의 수는 22억 3천만명, 연 증가율은 1.2%라고 발표했다. 또한 세계기도정부는 북미대륙의 무슬림 비율이 1.75%,

---

[26]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3), 13.

[27]문상철, *도시선교의 현황과 과제*, 39.

숫자는 616 만명이고, 유럽(러시아 포함)의 무슬림 비율은 6.07%, 무슬림 인구는 4 천 4 백만 이라고 발표하였다.[28]

세계의 급진적인 인구증가는 기독교 인구의 긍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점점 적어 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선교라는 차원에서 도시 선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 선교가 도시를 복음화 하지 못하면 미래 선교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도시 선교의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 1989 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2 차 로잔 대회에서도 로잔 위원회 도시 선교 책임자인 레이 바키가 여전히 세계 선교 자원의 거의 80%가 농촌 지역에 있다고 보고 하였다. 현재 성장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적인 세계 종교들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른바 10/40 에 속한 지역에 세계의 30 대 도시의 절반이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은 다수 종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데 도시 선교가 유리하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교회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도시 선교에 투자할 때 인 것이다.[29]

2) 도시의 개념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 조직, 환경, 기술과 상호 연관 되어 있다. 도시란 영구적이며 상대적으로 조밀한 지역으로 농수산이나 광산업의 1 차 산업을 위주로

[28] *미주크리스천신문*, 2013 년 12 월 7 일자.

[29] 한화룡, *도시 빈민*, 15.

하지 않고 2,3 차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지역으로 정의 된다.[30] 도시는 문명의 상징이며 전파자로서 몇 가지 기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는 종교, 문화, 사회계약 및 정치, 행정적 중심지로서 사회제도의 중심부라는 것이다.[31]

그러나 도시를 비 도시 지역과 구별할 수 있는 계량화된 객관적인 기준은 인구 밀도와 규모이다. 학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메트로폴리스 (metroplises)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0,000 명 이상의 도시를 말하며, 인구 1 백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megacity, 4 백만명 이상을 거대도시(supercity), 인구 1 천만명 이상을 초대형 도시(supergiant city)로 분류하고 있다.[32] 위와 같은 도시들에는 그 규모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 그리고 언어와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고 상호교류를 하며 살아 가는 곳이다.

3) 도시선교의 성경적 개념

도시선교는 도시 산업선교와 사회복지 선교라는 의미로 더 크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도시선교를 논하고자 한다.

도시선교는 도시의 중심적인 현대의 모든 상황에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인구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상장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점점 더 적어지고

---

[30]정병관, *도전 받는 현대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61-165.

[31] 노충희, *도시학 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4), 2.

[32]문상철, *도시선교의 현황과 과제*, 44.

있다.[33]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선교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세계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선교적 기회를 열어 준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도시 문제는 서로 다른 상황이 결합되어 문제의 파급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고용의 불안과 빈곤, 환경의 오염과 공해, 기반 시설의 부족과 교육, 의료 문제, 범죄, 청소년 문제 등 모두가 오늘의 도시의 문제이다.

도시는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에 근거한 은총의 선물이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불신앙과 부도덕으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오히려 정죄의 대상으로 전락 하였다. 이러한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구약의 하나님은 느니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범죄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살 때에 도시를 떠나라는 대신에 그 도시에 샬롬을 구하라고 하셨다(렘 29:3-7). 신약에 예수님은 도시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눅 4:43), 제자들을 각 도시로 파송하셨다(눅 10:1-12). 바울이 각 도시에 복음을 전한 것과 도시를 선교기지로 삼았던 것들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도시선교는 성육신 하신 주님을 본받아 빈민 선교를 위한 토착화가 되는 것이다.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강도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담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34] 따라서 도시선교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며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33]정병관, *도전 받는 현대목회와 선교,* 139.

[34]Roger S. Greenway, *Discipling the City: A Comprehensives Approach to Urban Missio*n (Baker Book House, 1992), 99-110.

도시와 큰 성읍들은 구약의 제반 선교의 적지였으며 초대교회의 선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구약에 도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스라엘은 선교의 목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기지로 열국을 제자 삼기 위한 은혜의 통로이다.

요나서는 특정한 한 도시의 범죄만을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적인 계획이 열방을 향하여 열려있음과 구원에는 예외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요나서의 강조점은 느니웨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 자신의 편협한 태도에서 변화하라는 소명이 그 요점이다.[35] 느니웨는 이방 도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되고 그의 사랑하시는 도시이며, 또한 그 도시의 사회적 그룹까지 온전히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있는 도시 선교의 좋은 본보기 이다.

바벨론은 사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끝내 파괴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선별된 거룩한 백서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하심은 바로 그 상황에 있다.[36] 바벨론 속에 이스라엘은 도시에 거룩한 모범적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문화, 상업, 정치, 그리고 통신의 주요 중심들 속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신다. 이들 중심지는 예외 없는 대도시들이다. 예레미아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 도시 의 복지를 추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렘 29:7). 도시를 위한 기도는 도시의 평화와 복리에 거슬려 작용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항하는 성전이다.[37]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도시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서도

---

[35]David Bosch,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옥 역 (두란노 서원, 1991), 70-71.

[36]Roger. S. Greenway, *Apostles to the City*, 44

[37]Ibid., 36-41.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도시, 악독의 도시, 문제의 도시를 사랑하시며 회개시켜 그 도시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당신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도시의 구원” 을 실현하여 새로운 도시(계 21:13)을 만드시려고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도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로마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종교와 외교, 상업 등으로 국제적인 도시 성격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 난잡하고 어지러워도 복음 전도가 쉬웠다. 인구는 단순한 농촌 거주에서 사회적 이동이 생겨나면서 도시로 집중되었다. 인구집중은 도시의 사회적 혁신을 가져와 농업과 교통이 발달 하여 도시의 시장이 제도화 되었다. 바울의 선교는 처음부터 마치는 날까지 철저하게 도시 중심적이었다.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선교는 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위주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이방 선교의 중심지이며 출발지가 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38]

바울의 선교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은 제한된 시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된 곳, 공용어를 잘 이해하는 곳인 도시에 힘을 쏟은 것이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과 사이의 지역들은 도시 교회들의 선교활동에 의해 2 차적으로 복음화 될 수 있다고 계산한 듯 하다.[3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경의 도시는 소도시나 대도시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전초지가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도시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있으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시대의 변화와 보다 다양해진 도시 문명 구조 속에서 새로운 도시선교를 모색 해야 할 것이다.

---

[38]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1994), 56.

[39]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서원, 1991), 35-36.

4) 도시 선교의 과제

도시의 과속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인구의 이동이다. 매일 18 만명의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40]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형적인 도시 문제를 가지게 된다. 특히 제 3 세계의 경우에는 도시화의 역사가 짧고 급속한 도시 유입 인구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적적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시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기형적인 현상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화 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영적 필요

Harvy Cox 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도시 문명의 발흥과 전통 종교의 붕괴는 우리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이며 또 밀접하게 관련된 운동들이다.[41] 그는 또 "세속화의 세력은 종교를 박해하는데 큰 관심이 없다. 세속화는 단순히 종교를 무시하거나 밑을 도려낼 따름이고 곧 다른 것으로 옮겨 버린다. 세속화는 종교적 세계관을 상대화 시키며 무해한 것으로 만든다. 종교는 사사로운 것이 되었다. 이제 전통적인 종교의 신들은 고시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42]

그러나 이 모든 말이 사실인가? 거의 20 년이 지난 이후 하비 콕스는 자신의 의견을 야간 철회해야만 했다. 종교는 세속 도시에 새롭게 살아 있었고 세속 도시로 돌아 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도시의 압력 아래서 신앙은 더욱 강해지며, 자족과 친족과의 유대를 보존하는데 신앙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는 여전히

[40]문상철, *도시 선교의 현황과 과제*, 49.

[41]Harvy Cox, *세속 도시*, 손명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7.

[42]Ibid., 8-9.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필요는 선진국의 도시화 현상보다 제 3 세계의 도시화 과정에서 더 절실하다.[43]

(1) 도시 빈민

제 2 차 대전 이후 약 10 억의 인구가 제 3 세계의 슬럼으로 몰려 들면서 현대 개발도상국의 도시민의 3/4 가 누추한 슬럼가나 판자촌에 살고 있다. 도시 빈민 선교 전문가 Viv Grigg 에 따르면 1980 년 약 8 억에 달하는 제 3 세계 도시 인구 가운데 25%인 약 2 억이 빈민가에 살고 있다. 여기에 슬럼가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더하여 약 35% 약 2 억 7 천 7 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구상의 빈민지역 주거자의 비율이 50% 가 넘는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멕시코 시티, 인도의 캘커타 등 도시들은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가장 물질적으로 빈곤한 도시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나 다른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 버려진 아이들은 6.000 만명이며 가난한 도시의 아이들 가운데는 집이 없어서 거리에 사는 아이들의 숫자가 4,000 만명이나 된다. 이 아이들은 낮에는 여기 저기 에서 일하고 밤에는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새우잠을 자는 아이들이다. 때론 노예처럼 강제 매매되기도 한다. 스스로 벌어 먹어야 하는 도시의 아이들은 세계적으로 1.5 억을 웃돌며 도시의 아이들의 60% 정도가 생활비를 위해 일하는 피고용인으로 살아 가고 있다.[44]

(2) 주택난

---

[43]Harvie M. Conn, *현대도시교회의 전망*, 한화룡 역 (서울: 여수룬, 1992), 142-143.

[44]한화룡, *도시 선교*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3), 46-50.

전 세계적으로 10억 가구 중에서 약 7억의 가구가 열악한 위생 상태와 비위생적인 물로 인해 표준 이하의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 주택은 수원지가 가깝고 위생처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터, 학교, 진료소 등이 인근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약 15억이나 되는 것이다.[45] 개발 도상국의 도시 인구의 1/3은 빈민가, 또는 무단 거주지에 살고 있다. 많은 도시들이 주택의 질과 양,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 지역 주택의 80%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환경(과밀, 범죄, 교통, 마약, 공해 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도시 안의 절대 다수인 저소득층이 살만한 주택의 절대 부족이다.[46]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재개발을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 재개발이 저소득 층을 위해 낮은 가격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도시 재개발이 성공했다 해도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대신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빈민가 주택 철거, 주차장 증설, 오피스 빌딩, 고소득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 진다. 도시의 유력자들은 저소득 주택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획으로 자신의 재산 가치가 떨어 질 뿐 아니라 구매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자리 잡게 되면 자신들의 사업에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의 기묘한 이해 관계가 도시의 재개발을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범죄에 시달리게 되고, 마약이 범람하게 되고, 절대빈곤층을 가진 자들 사이의 위화감이 점점 심각해 지는 것이다.[47]

---

[45]한국 선교정보연구센터, *미완성 과업*, 선교한국 90 자료집, 1990, 7.

[46]Ibid., 8.

[47]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92-193.

(3) 보건 위생

빈민 지대가 형성되면서 주택난과 함께 찾아 오는 것이 보건 위생의 문제이다. 캘커타의 인구의 60% 이상이 스모그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나이로비의 50 만 빈민가 주민들은 말라리아와 콜레라가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된지가 오래이며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된 매춘으로 나이로비 빈민가에는 에이즈 발병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방콕 시민 가운데 1/5 에 해당하는 12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에는 사람들의 배설물과 썩은 물과 쓰레기가 널려 있고 쥐들이 쏘다니는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또한 300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수도 시설이 없는 상태로 살아 가는 멕시코의 빈민가에서는 주민들이 버리는 폐물이 마시는 물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생충이 생기는 경우가 쉽다. 이처럼 '갖지 못한 자들'의 궁지를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편의만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제 3 세계의 도시들에서는 사회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 가고 있다.[48]

아프리카의 통치구조를 비판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서구의 폭력과 개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의 심각한 문제를 올바로 분석한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적은 AIDS 뿐이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질병과 죽음이 경제발전 능력의 결핍을 불러온 뿌리 깊은 원인이었다. 말라리아는 완치가 될 수도 있지만 해마다 300 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말라리아가 빈곤을 발생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장기 결근이나 결석이 잦기 때문이다. 또한 말라리아는 인적 자본 투자에도 무척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말라리아에 반복해서 걸리는 사람은 만성 빈혈과 악영향에 복잡한 후유증을 일생 동안 겪는 것이다. 그러나 말라리아에 대한 선진국들의 아프리카를 지원한 수준은

---

[48]한화룡, *도시선교*, 58-60.

아주 미미하다, 해마다 20-30 억 달러가 필요한데 지원금은 고작 수천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49]

(4) 청소년 문제

제 1 세계와 비교해 볼 때 제 3 세계에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다. 특히 제 3 세계의 도시들의 경우 주민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청소년들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도시 주민의 70% 이상이 30 세 이하에 속하는 청년 층이다. 아프리카의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자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14 세에서 19 세 사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림잡아 세계 빈민가 주민들의 약 40%가 15 세 이하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 3 세계의 청소년들은 도시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희생자들이다. 현재 전 세계 1 억 이상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 가고 있다.[50]

브라질의 경우 거리의 아이들은 1,300 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길에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다. 또 여자아이고 남자 아이고 가릴 것 없이 매춘을 하는 게 보통이어서 에이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는 약 5 천 명의 집 없는 아이들이 밤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본드를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피운다. 볼리비아의 십대 청소년들 가운데 8 만명이 마약 상용자들인데 수도 라파스의 경우 거리의 아이들 90% 가 하루에 세 번 마약이나 본드를 마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결과 제 3 세계 청소년들의 마약 남용이 어린이 영양실조나 에이즈를 제치고 제일 가는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

[49]Jeffrey D. Sachs, *빈곤의 종말*, 김현구 역 (서울: 21 세기 북스, 2006), 295-310.

[50]한화룡, *도시선교*, 60-62.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닐라의 경우 최소한 5 만명 이상의 거리의 아이들에다가 2 만명의 어린이 매춘부가 있다. 방콕은 60 만명의 매춘부 가운데 어린이 매춘부가 3 만에 달한다. 스리랑카도 4 천명의 어린이 매춘부가 있으며 1956 년에 매춘이 법으로 금지된 인도의 경우도 어린이 매춘 판매가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경우 현재 5 세에서 15 세에 해당되는 1 만명의 소녀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낮에는 구걸을 하거나 공장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밤이면 매춘을 하며 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50 만에서 많게는 200 백만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매춘에 관여 하고 있다.[51]

이상과 같은 문제의 주원인은 도시화에 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복잡한 새로운 세계에 직면한다. 그들이 지난 날 경험한 것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표류하면서 실업과 굶주림 그리고 관료주의에 연타를 당하고 좌절한다. 제 3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도 없이, 세상을 살아 갈 준비도 없이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 따라서 돈을 조금 밖에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안정된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겐 부모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역할 모델이 없다. 따라서 가난과 가정 파괴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하비 콕스는 무명성(anonymity)과 이동성(Mobility)은 현대도시를 구분하고 도시화는 단순한 인구 증가나 지리적 확대가 아니라 공동 생활의 한 구 조라는 것이다.[52] 그의 주장은 무명성과 이동성이 도시 생활에 긍정적이며 성서적 신앙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명성은 인간관계의 면역성에서

---

[51]한화룡, *도시선교*, 63-64.

[52]Harvy Cox, *세속도시*, 11.

출발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인간 상호 간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이 자유는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도시의 무명성은 오히려 인간을 자유하게 하여 사회적 속박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성은 농촌을 떠나 도시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동성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도시의 특성인 무명성과 이동성은 선교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대상일 뿐이다.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도시화를 화해라기 위해 오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시의 문제, 더 나아가 인간의 문제에 화해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다.[53]

4. 세계화 시대의 선교

20 세기 말의 중요한 화두었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처음에는 장치, 경제 문제의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다음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화 차원으로 모아졌고, 이제는 문화, 혹은 문명과 관련하여 집중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세계화 논의에서 정신적인 세계화 논의에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Anthony Giddens 는 세계화가 "경제적 일뿐 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적, 문화적" 이라고 그 범위를 밝힌 바 있다.[54] 그렇기 때문에 타 문화와의 접촉 점을 모색하는 기독교 선교 역시 세계화와 문화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

[53]Ibid., 70-75.

[54]Anthony Giddens, *질주하는 세계*, 박찬욱 역 (서울: 생각하는 나무, 2000), 39.

최근의 세계화 개념이 비록 기독교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세계화는 성서의 명령이고, 기독교 선교 역사 그 자체였으며, 과제이다. 기독교 교회 초기에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중세에는 이슬람 문화와의 대면을 통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새로운 신대륙의 발전을 통해서, 근대에는 교회연합운동을 통한 선교 활동으로 복음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55]

그러나 한편 기독교 선교는 세계화 과정에서 공평하지 않은 무력(십자군 전쟁)과 전체주의화(식민주의 시대 서구문명의 우월 주의에 입각한 선교)의 입장에서 추진하여 왜곡된 진행을 하였다. 그렇지만 David Bosch 는 기독교 선교야말로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문화의 도전을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그때마다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을 전개해 왔음을 논증하고 있다.[56]

세계화란 용어는 현재 인터넷이나 21 세기라는 말과 함께 정치, 경제, 종교 등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세계의 모든 영역을 미치고 있으며, 여러 학문의 탐구대상이 되었다. 즉 세계화란 시공의 압축을 통해 문화적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단일화 과정이 반드시 평화공존과 서구적으로 바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세계화와 지역문화 사이의 상호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세계는 상호의존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 공존의 틀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57]

세계화는 기독교 선교가 지향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신약에서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과(마 28:18-21: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

[55]최수일, *기독교 선교역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20-230.

[56]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American Missiolgy Society, 1991). 25-39.

[57]이후천, *현대선교학의 이슈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13-220.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사랑과 해방의 복음은 세계화를 지향한다(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특히 초대교회는 유대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인 구원에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 처음부터 선교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로(땅끝까지) 확대되는 놀랄 만한 삶과 증언을 실행하였다. 신약은 이방인을 향한 세계선교가 큰 원이라면, 이스라엘의 선교는 그 안의 작은 지역선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서는 지역에 근거하는 세계화를 향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보여주며 증언하는 것이다. 성서는 세계화를 지역화에서 비롯되는 선교활동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58] 세계선교는 작은 지역들의 선교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지역화 또는 상황화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복음의 상황적 이해라는 것은 복음과 문화의 합류가 전제되어 있다. 예수님의 선교 훈련 방식은 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병자치유 등과 같은 사회봉사의 선교활동 그리고 밥상공동체인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원하셨던 선교훈련 방식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타 문화 들과의 공존의 삶들이 엮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에는 세계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고 보셨다. 복음은 상황에 대해 닫혀진 체계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것이다.[59]

복음이 문화를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 안에서 수용된다는 관점은 맹목적인 복음의 세계화 지향을 경계하도록 해 준다. 복음의 세계화는 지역문화를

[58]Ibid., 230-233.

[59]Ibid., 236.

강조하지만, 혼합적이거나 양면적이지 않은 상황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 시대의 선교모델은 당연히 이러한 논지에 따라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그 틀이 정해져야 한다.

첫째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상호교류를 이유로 모든 문화적 가치를 "하나의 단지나 범주 안에 잡아 넣을 수 없다" 는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복음의 세계화란 곧 문화들과의 차이들을 파괴하는 이념으로 보려는 경향도 피해야 한다.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가 저급하다거나 다르다고 해서 파괴하고 일원화하려는 선교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즉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세계화 시대 선교는 일방통행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와의 상호의존과 공존의 모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전적 사고이다. 즉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선교는 반드시 지역문화와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야 하는데, 타 문화들과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는 모든 면에서 성호 연계된 복합문화적 사회에 도달한 것이다.

셋째로 거부할 수 없는 신 자유주의의 국제적인 거센 흐름을 수용하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입장인 제 3 의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원리는 기독교 선교의 세계화 과정과 지역문화들과의 갈등에 적용하면 세계화 흐름에 지역문화와의 조화를 이루자는 입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바로 이때 세계화의 역동성이 살게 된다.[60]

인구가 증가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다가오면서 세계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직면한다. 시간과 거리가 축소되는 대신, 식량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

---

[60]Ibid., 237-239.

파괴의 문제를 비롯해, 전쟁의 위협, 문화간의 충동의 가능성, 경제적으로 더욱 극심한 격차, 신분의 갈등, 세대간의 이해격차, 등의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각 지역문화는 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세계화의 문제들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독교 선교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사로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교모델이나 이해로는 세계화가 진행 중에 나타나는 다문화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61]

기독교 선교는 타문화를 배격하지 않는 지역화에 근거하여 상호의존적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전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세계화의 그 보편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와의 갈등을 통해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공존을 통해서는 평화를 가질 수 있다면, 기독교 선교 역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회를 얻기 위해 다시 틀을 짜고, 형상과 메시지, 즉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 기회는 세 차원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첫째로 복음의 세계화는 지역의 문화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공존의 틀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인류 공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세계의 운명이다. Sundermeier 는 인간 본질의 세 차원, 즉 편심성, 관계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입각한 기독교 선교의 기본 모델로 삼으면서 상생(공존)을 바탕으로 대화와 증언(선교)이라는 삼각형 도식을 마련하여 선교학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로 기독교 선교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세계지역화라는 선교전략의 적용 이외에도 건강한 복음의 실천 혹은 복음실천의 세계적 건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 내적 요소의 자기갱신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내면적 자세이다. 상호의존을 통한 외향(세계지역화)과 개신교의 원리대로 끊임없는

[61]Ibid., 240-241.

내향(자기변혁)을 통한 선교적 실천이야말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기독교선교를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훌륭한 복음선교이다.

끝으로 기독교 선교는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다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해야 할 몫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사회선교를 통해 그 몫을 차지해야 하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예수 생전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소외된 그룹의 치유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62] Anthony Blair 전 영국 총리는 "공동체란 단순히 어떤 낭만적인 행수를 불러 일으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 일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상호책임과 나눔을 위한 비전이다." 라고 역설한 바 있다.[63]

5. 평신도 전문인 선교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평신도의 재발견에 대하 John Stott 는 4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로 실질적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과거에 비해 영국 교회에서 교역자의 수가 감소되어 평신도의 협력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둘째는 실용적인 요인으로 평신도를 세속적인 클럽의 회원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셋째는 시대 정신의 영향으로, 곧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성숙된 시민 의식과 평신도에 대한 관심의 부상은 이러한 이유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 요인을 들고 있다. 세계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평신도가 그러하기를 원해서라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곧 "평신도가

---

[62]Ibid., 242.

[63] William Temple, *기독시민의 사회적 책임*, 김형식 역 (서울: Kuis Press, 2010), 11.

교회 내에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수용하는 유일한 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64]

Howard Snyder 는 평신도신학의 두 기둥은 만인제사장론과 은사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두 가지는 평신도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핵심적인 진리라 할 수 있다.[65] Bavinck 는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66] 모든 성도가 가지는 환경, 기술, 직업,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만인제사장론의 근본이다. Hans Kung 은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했다.[67]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인 평신도 선교 전략인 “텐트메이커”는 “장막 치는 자’라는 뜻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자비량 사역을 모델로 한 사역 모델이다((행 18:1-5). 초대교회 이후 선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자비량 선교사들 중에 윌리암 캐리와 핸리 마틴, 로버트 모리슨 등이 있다. 선교사 윌리암 캐리(William Carey, 1761-1834)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소개되지만 그의 초창기 인도 선교에서는 자비량 선교사로 활약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아 동인도회사 농장에 취직하면서 인도어를 연구하여 5년 후 신약성경을 북부 인도어인 벵갈어(Bengali)로 번역했다. 그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다. “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일이다. 구두를

---

[64]John Stott, *One People* (Downer Grove: IVP, 1982), 15.

[65]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33.

[66]J.H. Bavin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67.

[67]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35.

만드는 것은 단지 그러한 사역을 위한 나의 경비를 조달키 위한 것일 뿐이다." [68] 헨리 마틴(Henry Martin, 1781-1812) 역시 동인도회사에 통역관으로 취직하여 일하면서 신약성경을 힌두어(Hindystanni)로 번역하여 복음전파에 큰 활약을 보였다. 중국에 파송된 미국의 로버트 모리슨(Rebert Morrison, 1782-1834)선교사도 중국 마카오에서 선교사로 마카오의 동인도회사에 취직하여 신. 구약 전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다양한 종교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대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는 저들의 문화와 관습, 종교적 습성들을 가지고 들어와 종교 혼합주의(Syncretism)를 표방하게 되는 중간 지대(middle zone)가 발생하기 때문이다.[69]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세계관까지 변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수용성 중심의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전도 종족에 자립적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어 신학교 중심 지도력 양성 모델은 전문인 선교의 장점을 희석하게 된다. 현재 전문인 선교사를 잘 양성하는 부설 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할 때 좋은 효과가 있게 된다.[70]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가르치는 우리가 자비량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절제하여 자비량으로 학문도 하고 평신도 전문인으로 산다면 현지인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며 선교 목사로서 모범을 보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직업은 사역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 아니면 선교사이다.

전문인 선교사는 바울의 자비량 선교에 기초한 것이다. 근대에는 퀘이커 교도인 모라비안 교도들과 스위스의 바젤선교회의 비지니스를 통한 선교를 들 수

---

[68]Christy Wilson Jr., *Today's Tentmaker* (Chicago: Tyndale 1979). 55.

[69]Ibid., 57-58.

[70]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201.

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비전, 팀사역, 네비우스 원칙, Mission Dei, 전문인 사역, 상황화, 토착화, 기업의 우수성 의 7 가지 원리에 의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 반면 바젤선교회는 창의적 접근 방식, 만인제사장주의, 제자훈련, 성육신 동일시의 원리, 양육 후속의 관리 등 좀 더 발전된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삶의 문화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 존재한다. 즉 반드시 과학과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문화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서시대에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21 세기의 과학과 기술문화가 가져다 주는 급속한 인류문화 변혁의 예고들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헤프너(P.J.Hefner)는 이점에서 성육신(Incaranation)의 원리를 말한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엄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기독교 선교가 토착화 되어야 할 문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성육신은 과학과 기술이 존재하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헤프너는 과학과 기술이 선교의 적과 동지이며, 이것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인간 문화 속에 복음을 성육신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구적 관점으로 점철된 과학과 기술의 독점을 경계하며, 복음을 과학 기술이 지배함으로 미와 추가 함께 존재하는 문화와 역사 속에 인카네이션 시키는 것이 기독교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다.[71]

오늘날의 전문인은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미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 지역 전문가인 동시에 셀프 리더를 키우는 슈퍼 리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71]이후천, *현대선교학의 이슈들*, 68.

것이다.[72] 전문인 선교사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모든 근로자가 타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방법으로 선교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전문인(professional)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specialist)와는 다른 개념으로 선교 현장의 필요성(felt needs)를 채워 주는 모든 직업의 전문성을 말한다.[73] 전문 선교사는 직업의 전문성, 사역의 전문성, 언어의 전문성, 지역과 전문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국제 사회에서 총체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전문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에 맞는 선교 공동체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21 세기의 선교 운동의 주체가 될 사람들은 전문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인들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농경사회, 공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며 지난 40 여년 간 형성된 지식 근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전환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on-line 과 off-line 의 사업을 겸용할 수 밖에 없지만 총체적 고도의 지식 경제 사회에서 신지식인으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74] 이와 같이 총체적인 성육신적 선교로서의 전문인 선교 시대에 탄자니아의 태양에너지를 통한 자비량 전문인 기술 교육 선교는 시대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

[72]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자*, 35

[73]Ibid., 46.

[74]Ibid., 80.

Ⅴ. 교육학적 연구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 즉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원하든 원하든 않든 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 현상들은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들을 준다. 더구나 현대문화의 흐름에 대해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구해 보아야 한다. 현대 문화는 매우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 급격한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그러지고 부패해 가고 있다. 어떤 새로운 대안보다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 즉 예수님께서 하신 교육을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1]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 이라고 생각하고 현대문화의 흐름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적 교육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교육이 기독교교육 다와 지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 우리 현실 사이의 괴리, 대 명제를 향해 가는데 걸림이 되는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루어가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이 요구 된다.

1. 교육의 정의

---

[1]D.C. Wyckoff, *복음과 기독교 교육*, 김득렬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108-109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애(人間愛)로부터 출발하여 상대편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사회기능이다. 교육은 인간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기능으로서 무릇 사회생활이 있는 곳에서 교육 기능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행하여 온 작용으로서 사회가 있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학교가 특히 큰 힘을 가지고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교사가 학교라고 하는 정비된 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 그래서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 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말한다.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때라 다르게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교육에는 공학과 공통된 요소가 있다. 공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임무가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으므로 공학의 핵심 개념은 '의도적인 변화' 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행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것이든 결과를 이루기 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education)에 대한 이해는 '가르치는 행위' 즉 교수(instruction 또는 teaching)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교육은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교수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이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a process of teaching-learning)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의 여러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들로 훈련(training), 양육(nurture), 사회화 (socialization), 자유화(liberation) 형성(formation), 멘토링(mentoring)등이 사용된다.[3]

---

[2] *두산 백과 사전*, Encyber. http://www.encyber.com.

[3]이숙경, *기독교교육과 문화이해*, (서울: 그리심, 2008), 15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기독교' 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이다. '교육' 은 기능적 측면을 나타내 준다면 '기독교' 는 의미와 구조를 제시해 준다. 즉 교육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기독교가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W.C.Graendorf 는 기독교교육을 서술적 의미, 기능적 의미, 철학적 또는 규범적 의 세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서술적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기능적 의미에서는 개개인의 신자들을 그들에게 합당한 성장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고 현대적인 학습 지도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모든 양상에 관여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철학적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언행과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본을 따르고 성숙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조력해 주는 과정의 정의 된다.[4]

기독교교육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제자도의 삶으로 훈련 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5]

E.V. Hill 이 교회의 교육적 임무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독교 교육의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그는 교회의 교육적 임무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

[4]W.C. Granford, *복음 주의적 기독교교육에의 도전*, 김국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2), 21

[5]M.J. Anthony,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1), 133.

선포(kerigma)를 위한 교육, 공동체(koinonia)를 위한 교육, 봉사(diakonia)를 위한 교육, 주창(propheteia)을 위한 교육, 예배(leitourgia)를 위한 교육이다.[6]

이 다섯 가지 중 가장 핵심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한 교육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해야 한다. 다른 네 개의 교육적 임무들은 바로 예배를 위한 교육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선포를 위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영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봉사를 위한 교육은 지역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장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창을 위한 교육의 기능이 있다. 이것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즉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Hill 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교육의 임무는 교육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잘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곧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에서 그 본질과 목적을 찾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성경에서 교육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가를 알아야 한다.

2. 기독교교육의 목적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는 근본적으로 기독교교육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 준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구원으로 귀결된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2 장 13 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6]R. Pazmino, *Foudation Issue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44-53.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자라가길 원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목적은 교육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한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 가는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Paul Vieth 의 교육목적에 기초하여 1940 년 미국의 국제종교교육협의회(ICRE, International Council of Religion Education)에서 제시한 교육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2. 예수님의 생활과 교훈 본받음
3.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
4.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
5. 교회생활의 올바른 참여
6. 건전한 가정생활
7. 기독교적 인간관 확립
8. 현재 경험과 성서의 경험과의 일치적 관계 설정[7]

또한 그의 저서 *교회와 기독교교육*에서 그는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나게 하여 복음에 이끌리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기독교교육의 지상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기독교 공동체와 생동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여러 방법을 통해 이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8]

3. 기독교교육의 성서적 기초

1) 구약에서의 기독교교육

[7]*DPT 교리 강해 연구: 교육편*, (서울: 선린출판사, 1991), 35.

[8]Ibid., 36.

구약에서 교육과 관련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라마드(*lamad*, 가르치다, 배우다), 토라(*Torah*, 교훈하다, 훈계하다, 지도하다), 야라(*yarah*, 보여주다, 지적하다, 가리키다), 아만 (*aman*, 기르다, 양육하다)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은 배우고 습득한 것이 잘 익혀졌을 때 가르치게 된다는 고대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 반영된 것으로서 지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9] 특히 구약성경에 사용된 앎(*yada*)이라는 단어는 산 경험으로서의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참여를 가리킨다.[10]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헌신한 바에 따라 살아냄으로써 지식을 실천 할 때 비로소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지식은 지성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적 지식관에서 앎, 존재, 사랑, 행함은 모두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11]

신명기 4 장 10 절에 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교육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의 주체이신 것을 알 수 있다.[12]

시편 32 편 8-9 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교육의 의지를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의지를 갖고 계시며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원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

[9]변대원, *"그리스도인 자녀 양육을 위한 성경적 교육지침"* (대전신학교, 1998), 6.

[10]Groome, T., *Chir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141.

[11]Harro Van Brummelon,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이부형 역 (서울: IVP, 2002), 96.

[12]*DPT 교리 강해 연구: 교육편*, (서울: 선린출판사, 1991), 36.

섭리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이 하나님의 일이라거나 또는 명령이라는 말은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즉 교육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13]

2) 신약에서의 기독교교육

신약에서 교육과 관련한 표현들은 가르치다, 설득한다는 말로써 지적인 가르침뿐만 아닌 의지적인 가르침이 포함된 '디다케(*Didache*)', 헬라어의 파이데이아(*Παίδεία* 교육, 교훈)와 파이듀오(*Παίδεύω* 훈련하다, 교훈하다)에서 유래한 파이데이아 (*Paideia*)가 있다. 파이데이아는 '지시나 가르침' ,'교훈이나 훈련' 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된다.

교육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 더 잘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위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라기보다는 교사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Rabbi*) 즉 선생님 이라고 불렀다. 디다스코(*διδάσκω*)라고 기록된 '가르치다' 란 말이 신약성경에 95 회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3 분의 2 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바울 서신에 10 회 정도가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사렛에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앉으신 다음 성경을 주석 하셨다.[14]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율법의 전수에 머물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련 속에 적용할 것을 목표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시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의 가르침의 권위는 자신의 인격에서 기인되며 그는 율법을

---

[13]*DPT 교리 강해 연구: 교육편*, (서울: 선린출판사, 1991), 37.

[14]Ibid., 6.

절대화하지 않으나 전인교육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의 노선을 따름으로 그는 율법의 마침이시다.[15]

마태복음 28 장 18-20 절에서 “예수께서 나아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교육은 크리스천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교육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즉 문화와 인종,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원리가 하나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교육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전제임을 알려 주신다.[16]

Lois E. Lebar 는 이러한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즉 기독교교육은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일이며 따라서 주님께서 필요를 충족시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독교교육이란 거룩하신 교사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명령은 사도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 디모데 전서 4 장 11-13 절에서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

[15]Ibid.,7.

[16]P. Tillich, *문화와 신학*, 김경수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45-55.

[17]L.E. Lebar, *Education That Is Christian*, (Colorado Springs: Chariot Victor Pub, 1995), 274.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이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 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고 말씀하신다. 가르치는 일이 믿는 자들의 주된 사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이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그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성격을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L.E. Lebar 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교육 목표를 세우고 첫째,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둘째, 학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며, 셋째,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18]

B. Eavey 는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3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학습자에게 구주로서의 예수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을 불어 넣어 성령의 힘을 통하여 회심하도록 확실히 이끈다는 것, 둘째, 학습자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학습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 셋째, 학습자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는 것 등이라고 보았다.[19]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교육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형성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기독교교육과 현대사회

---

[18]정정숙, *기독교교육학* (서울: 베다니, 1997), 35.

[19]C.B. Eavay, *기독교교육원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1.

기독교 교육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이 변화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일차적 과제는 기독교교육 본래의 목적 즉, 영혼구원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기독교교육은 학습자들이 처한 문화적 환경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J, Fowler 는 21 세기에 기독교 교육이 직면하게 될 현실들 중 하나는 '정처 없는 정신과 마음(homeless minds and hearts)' 대해 언급하고 있다.[20] 이는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선책가능성이 지나치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가치, 의미들 앞에서 '상대성의 현기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한 정체성의 준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즉 현대 사회에 정체성의 준거는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선택하는 것이 되었고 매체의 발달에 따라 정체성의 준거가 될만한 것들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21] 미디어의 발달, 진리관의 변화, 이미지 현상의 확산 등은 정체성의 준거를 다양화하고 심화하고 있다.[22] 정체성 준거의 허구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일상에 대한 욕구불만, 자아로의 도피, 중독성 경향의 확산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는 것, 보다 나은 자아를 추구하는 것, 어딘가에 몰입하려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무엇인가로 대신 채우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철학이나 예술이 또는 이데올로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고, 과학의 진보나 물질의 번영, 성적 만족이나 마약, 환타지 등이 대신 하기도 하고 완전한 자아가

---

[20]J. Fowler, 변화하는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3

[21] Ibid., 35.

[22]D.Keller, *미디어 문화*, 김수정 역 (서울: 새물결, 1997), 435-436.

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 현대 기독교교육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23]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날마다 쏟아내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19:1-2).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실재에 대한 수많은 사실들을 나타내 주셔서 그가 참된 지식을 얻도록 도우신다. 하지만 욥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모든 사실들의 근원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 지식은 공허한 것이었다(욥 38-42 장). 물질 세계의 대한 참된 지식은 창조주를 아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과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응답하라는 부르심을 고취시킨다.[24]

물론, 죄는 모든 삶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가 지식을 얻고 적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는 지식을 사용하여 물질 세계,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삶을 통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거만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 한다. 잘못 적용된 지식은 그리스도인이든, 가정 생활, 비즈니스, 정치, 학교, 교회 등에서 적법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다. 지배욕이 지식을 추구를 주도해 갈 때, 지식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초와 옳은 것을 행하려는 욕구는 실종되고 만다.[25]

지식에 대한 성경적 접근 방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붙들어 준다. 성경은 "우리가 구리로 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식이 희미하나"(고전 13:12) 라고 상기 시켜 준다. 따라서 가르칠 때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문 지식에 대해 거만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상황을 잘못 파악하며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해 야 한다.

---

[23]F.A. Shaeffer,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김영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54-58.

[24]Parker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2006), 55.

[25]David Wells, *윤리실종*,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185-188.

또한 인간이 기술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단기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장기적인 재난과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과학적 지식과 경제적 지식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 보다 사실은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또한 그렇게 통찰력이 결여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 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돌아오는 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26]

가르침은 선교에서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은 이 사역이 특별히 치유와 같은 다른 사역들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27] 분명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아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책망하며,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 학생들 가운데 일치와 조화를 위해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학생들의 필요와 전체로서의 학생들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그들은 공허한 말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논쟁을 피하야 하고(딤후 2:14, 23),) 비판과 중상을 견뎌야 한다(벧전 2:20).[28]

바울은 이런 것들의 모범이었다. 그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이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과 굳건함으로 교훈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기독교 성숙의 더 높은 수준(사랑과 상호순종)을 보여 주었다.[29]

Lesslie Newbigin 은 기독교적 소명이 충실한 공동체가 복음을 어떻게 삶을 위한 틀로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한없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찬양과 감사의 공동체이다.

---

[26]R.J. Mouw, *왜곡된 진리*, 오수미 역 (서울: CUP, 1999), 19-20.

[27]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1981), 55.

[28]James H. Stronge , *유능한 교사의 자질*, 한소영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2009), 35-40.

[29]Eugene Peterson, *거북한 십대, 거룩한 십대*, 양혜원 역 (서울: 홍성사, 2000), 55

이것은 참으로 겸손하고 현실적이면서도 현대의 선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진리의 공동체이다.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또 자신만을 초점으로 삼지 않고 이웃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진 공동체이다. 우리 사회의 공적 삶에서 자신의 다양한 은사들을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순종의 희생을 바치는 공동체이다. 서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에 기초한 사회 질서의 전조가 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망의 공동체이다. 학교와 관련하여 대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펼치도록 도와준다는데 있다. 학생과 교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할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30]

타 문화권 선교사들은 영적인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회심을 위한 영적인 동기에 우선권을 두는 동시적인 노력이 있다면 세상적인 필요를 섬기는 데도 역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게다가 사람들의 건강, 더 나은 수준의 삶, 가치, 정의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열망하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단계로 그들의 교육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혼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전인격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31]

5. 교육선교

1) 교육 선교의 개념

---

[30]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 (서울: IBP, 1989), 227-230.

[31]Ibid., 231-233.

교육 선교란 전문인 선교의 한 영역으로 정규학교, 비정규학교, 세미나, 연구 등의교육 사역을 통해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32]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연구 혹은 교사, 선교사 자녀 교육, 언어 교사, 특수교육, 대학교수, 강사, 학원 및 직업학교 교사로서 교육을 통해 선교의 접촉을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모든 형태의 교육 사역을 교육 선교라고 할 수 있다.[33]

2) 교육 선교의 근거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그는 오늘날 교육선교 활동은 그 교육 구조의 형태나 교육내용면에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역사적인 모델을 19 세기 선교운동에서 찾는다.

학교는 교회처럼 성경 말씀만이 교육내용이 되는 곳이 아니며 많은 세속적인 과목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침이 중요하게 행해졌고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도 사도들도 오늘날 식의 가르침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오늘날의 '세속적인 과목'들을 가르쳤으리라고는 믿을 근거가 없다고 케인은 주장한다.[34] 그는 현대 선교운동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선교의 논리적 근거를 성경보다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19 세기의 선교 운동이라고 말하며

---

[32] 권능, *21 세기 NGO 의 선교방향*, (서울: 개척정보, 2000 년 10 월호), 23.

[33]Ibid., 25.

[34]구장이, *교육선교에 관한 연구*: 페루의 호산나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문학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2005), 31.

교육선교의 요인으로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19 세기의 선교지의 상황이 교육적 필요의 시급성. 둘째, 선교사들이 본국의 선례. 셋째, 전인적인 사람을 위한 전인적인 복음(The whole gospel for the whole man)의 필요성. 넷째, 교육을 통한 굳건한 토착 교회 설립을 들었다.[35] 이와 같은 허버트 케인이 통찰한 방법을 참고로 하여 근대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의 목적을 종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교육 선교의 목적

초창기 교육 선교의 목적은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선교지의 상황이 대부분 문맹이라 전도를 받았어도 성경을 읽지 못해 문맹 퇴치를 우선 해야만 했었다. 1706 년 데니쉬 할레선교회(Danish-Halle mission)에서 인도로 파송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치이겐발크(Bartholomew Ziegenbalg)가 세운 선교의 5 개 원칙 중 첫째가 교회와 학교를 병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원주민의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한편 자선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쳤다. 근대 선교의 개척자인 윌리엄 캐리 역시 성경을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선교사역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했으며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하였다. 그는 문맹퇴치를 위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소학교들 외에도 고급과정의 대학까지 설립하여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을 심는데 성공했고 수많은 인도의 인재들을 길러 냈다.

둘째, 복음을 소개하는 통로로 교육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선교지의 상황이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금지되었거나 여러 다른 요인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35]Ibid., 35-36.

셋째, 교육 활동은 구제와 봉사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치이겐발크의 학교는 자선학교였으며 윌리엄 캐리의 동료인 조슈아 마쉬만이 운영하던 학교도 자선학교였다. 한국에 온 미국선교사들도 최초에 몇 명되지 않는 신분이 비천한 계층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1886 년 봄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고아원 겸 학당으로 시작한 것이 경신학교의 전신이 되었고 정신여학교는 여선교사 엘러즈가 여자고아를 데려다 양육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화학당 역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절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호를 열어 주었다.

넷째, 엘리트층에 대한 복음적 접근의 수단으로도 학교 사업이 사용되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인도 선교사 Alexander Duff 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지적인 엘리트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고등교육으로 접촉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그의 학교사업은 상류층 사람을 복음화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성공에 비해 개종자는 너무 적었으나 소수의 개종자들이 명문집안 출신으로서 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어 공헌하였다. 영어를 매개로 하는 그의 이 선교 모델은 다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에 의해 세계 도처에서 모방되어 실행되었다.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의 서양교육은 상류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교의 전성기에 중국에는 수백 개의 중등학교와 십 수 개의 대학들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상류층의 회심이 중국의 점진적이며 꾸준한 기독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Alexander Duff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심자수는 실망할 정도로 적었다.

다섯째, 전인적인 기독교 지성인을 양육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인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신학교도 이 범주에 들었다.[36] 이것은 곧 교회의 토착화로 연결되는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

[36]Ibid., 44-55.

4) 교육 선교의 형태

선교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교육의 형태가 나타난다. 정규학교, 비정규학교, 그리고 정형성을 탈피한 연구 자체의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정규학교로는 유아원 및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전문대학, 기술 직업학교, 대학원, 사이버학교 등이다. 비정규학교 로는 언어학원, 컴퓨터 학원, 평생학교, 운동학원, 예능학원과 홈 스쿨, 상담학교 등의 전문 과정 등이다. 세미나, 연구 및 출판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터 등으로 접근하는 형태 역시 선교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 선교의 접촉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모든 형태의 교육 사역을 교육 선교라고 할 수 있다.[37]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 중 하나인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선교 전략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전문인 선교이다.[38]

시장경제는 현대 생산기술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교육학교 졸업생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한 전공을 살려 과학 전문학교, 기술전문학교, 대학교 및 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면 전문가의 질 향상, 근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일반교육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들은 배운 전공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전문 교육 필요성이며 수요이다.[39]

산업발달과 경제 성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산업과 경제적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더 나은 사회의 진보를 위한

---

[37]정병관, *도전 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65-67.

[38]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를 깨워라*, (서울: 이레 서원, 2001), 43.

[39]한국교육개발원, *아시아 개발 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241-242.

수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촉진을 유도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교육을 통한 부가가치의 향상을 통해 국민과 사회의 질적 우수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학과 기술에 능통한 사람들을 적극 양성함으로써 국가산업문화의 변화와 성장이 국가 안에 필요하다.[40]

개발도상국들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구조적인 변화가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이다. 즉, 새롭고 다양한 양상의 직업 유형과 역할 지위가 생겨남으로써 신흥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기 시작한다. 새롭게 창출된 직업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의 능력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을 가짐으로써만 발전 할 수 있다.[41]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세계화는 과학, 기술을 통하여 경제 분야에서 국가 간의 강력한 경쟁을 창출할 것이다. 국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초강대국이 될 경우에만 큰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 있어 패권은 주로 인적자원의 질적 우수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가 과학적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앞에 놓인 다양한 기회를 거의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42]

개발도상국은 과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과 공업과 산업과 경제 그 어느 것 하나 분리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경제의 원동력인 과학교육이 필요하다.[43]

---

[40]Ibid., 234-244.

[41] 한국과학문화재단, *새로보는 과학기술*, (서울: 양문, 2007), 45-48.

[42]Ibid., 49-50.

[43]한국전문인 선교협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창조, 2000), 39-41.

우리가 그들에게 과학교육을 들고 접근할 때 그들은 과학 교육을 배척 할 수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과학교육을 통한 선교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의 사회가 기다리고 있고, 세계화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추수할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만약 1~2 세기 전의 1 차 산업에 모두가 치중하고 있을 상황이라면 과학 교육은 개발도상국에 별 흥미가 되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공업 기술부터 다양한 사회구조, 세계화 물결 속에 과학은 그 어디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비중이 높아졌다.[44]

5)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

과학교육을 통한 선교 접근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변의 과학 기술대학교이다. 연변에 이어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는 김진경 총장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사정을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파악하여 추수 밭으로 나간 일꾼이다.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 교수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안 받아주며, 현재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당당한 기독교대학교이다. 그는 사랑의 교회의 설교 중 연변과 기대와 평양과 기대의 건립은 훗날 중국과 북한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초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어 연변과 기대와 평양과 기대에 대한 선교포부도 밝혔는데 김 총장은 "다니엘서에서 느브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훗날 대학을 통해 중국 13 억 인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한의 2 천만 동포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라 선포하였다.

그의 당당한 선교적 대학 건립과 달리 중국은 오랜 사회주의 국가이다. 물론 최근 들어 중국도 개방의 문이 많이 열리고 있다 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김진경 총장에게

---

[44]이후천, *21 세기 과학 기술과 기독교 선교*, 한국기독교학회, 1999), 363-367.

기독교대학의 설립과 개교를 허락하며 또한 북한에서도 김진경 총장에게 대학 설립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이 학교가 과학기술대학교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변과 기대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 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 기업인들이 가장 채용하고 싶어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이며, 북경대학, 청화대학 보다도 더 높은 취업률 100%의 학교가 되었다. 연변 과기대의 성공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학 교육을 통한 선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이다. 비단 아시아뿐만 아닌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두 국가적 접근이 용이한 선교 방법이다.[45]

6) 한국 기독교사에 나타난 교육의 선교 접근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여자의 초등교육이 50%에 불과하며, 중등 교육은 남녀를 막론하고 80%를 넘지 못한다. 대학진학률도 채 20%가 되지 않는다. 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에 교육 선교는 배타적인 기독교 환경에서도 수용자에게 침투력이 강한 선교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46] 그것은 한국의 기독교사 속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은 공업 기술의 직업 교육과도 직결 되므로 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어서 수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한 교육이다.[47]

---

[45] *한국교육개발원*, 45-55.

[46]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교육부, *성숙한 교회와 교육선교*,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47]이정효, *한국교회의 교육선교적 과제-기독교와 교육*, 1989-90 년호, 37-42.

19 세기 후반의 조선정부의 태도와 사회 전반적인 보수적 분위기 때문에 초기선교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보다는 학교와 병원사업을 통한 간접 선교 방식을 취하였다. 1885 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목사였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교사였다.[48]

그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의료선교였지만, 교육 선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확대하였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언더우드는 고아원형태의 교육 사업을, 스크랜튼 부인에 의한 고아나 과부, 첩과 같은 소외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이화 여학당을 시작했다.

복음전도의 도구로는 의료선교보다는 교육선교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의료사역은 불특정하고 매일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교육은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만나며, 교육이라는 자체가 사제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궁극적으로 학교를 한국을 복음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코자 하였기에 학교를 찾는 학생들 간의 갈등은 종교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갈등은 기독교가 민족의 종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관문이었다.[49]

선교사들이 펼치는 의료, 교육 사업으로 인해 종래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릇된 선입관이 많이 해소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사라지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개신교는 타협하는 자세로 교육, 의료 등 문화 사업을 통해 간접 선교를 추구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복음전도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교회 설립보다 학교 설립이 앞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교육 선교가 한국에서 선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50]

현재 개발도상국의 수용자들도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던 한국의 그때와 같은 현실이다. 가난하고 어리며 여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교육을 우리가 제공할 때

---

[48]Steven Neil,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09.

[49]Ibid., 35-40.

[50]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23-224.

그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제공되는 교육과 종교를 흡수할 것이다. 종래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릇된 선입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도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복음 전도를 실시 할 수 있기에 과학 교육은 개발도상국가의 수용자들에게 분명 효과적인 선교 접근이 될 수 있다.[51]

이상과 같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자기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자존 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개인적인 변화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제자도의 삶으로 훈련 되며 세상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51]Ibid., 225-230.

VI. 프로젝트 실제활동

1. 연구팀 구성과 활동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팀은 연구에 대한 보편성과 미래성 특히 교육성을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구성 팀은 다음과 같다.

이름	교회직분	직업
조희선	집사	Oasis Solar Mission 지회장
고 이사벨	찬양팀 멤버	Rye Day School 학생
노마이클	청소년 찬양리더	Brown 대 재학생
노사무엘	청소년 찬양리더	Duke 대 재학생
고동훈	찬양팀 리더	부동산 개발업

본 연구팀은 모두 신실하며,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로 함께 기도하며 연구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낌 없는 조언과 협력을 해 주셨다.

연구팀원 명단에는 없지만 탄자니아에 서 태양에너지로 사역을 하고 계신 최홍규 선교사는 본 연구를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며, 탄자니아 현지인의 입장에서 선교의 방향을 생각하게 해 주셨다. 또한 이 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탄자니아에서 직접 구해 보내주시고, 본 연구를 위해 자신의 사역 내용을 제공해 주셨다. 최선교사는 뉴욕에 있을 당시 2008 년도부터 본 연구자와 함께 제 3 세계에 태양에너지 보급을 통한 선교의 접촉점을 연구하며 추진해 왔다. 최선교사는 한국 KIST 태양에너지 연구소의 창립

멤버로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기술 발전에 초석을 이루다가 미국 Arizona 주립대학에서 에너지 경제 분석으로 석사를, 태양에너지 냉난방으로 태양에너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한국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일을 했다. 2000 년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제 3 세계에 선교 차원으로 태양에너지 보급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2007 년도에는 탄자니아 최대도시 다레살람 우팡가 교회(City Christian Center)에 태양에너지로 교회 제반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책임 맡아 시행한 바 있다. 2010 년에는 탄자니아로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 즉 휴대폰 충전기겸 램프, 온수기, 부화기, 솔라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보급해 주는 동시에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교의 접촉점으로 창의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며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조희선씨는 교육계에 오래 도록 몸담고 있었으며 십 년 이상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며 구내 서점과 선교 부에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어 오아시스 선교회 뉴욕 지회장을 하며 제 3 세계의 솔라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 솔라 미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 이사벨은 Rye Day School 찬양팀 멤버이며 고등학생으로 제3세계의 교육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탄자니아 교육선교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하고 있다. Oasis Global Mission에 리더로도 봉사하고 있다. 노 마이클은 커넷티컷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봉사를 하는 가운데 LINKS(탈북자선교단체)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두 차례 방문하며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바 있다. 현재 Brown 대학 경제학과를 올해 졸업하고 나면 제 3 세계의 경제 문제에 특히 아프리카에 경제 자립을 위해 연구하며 선교에 힘쓸 예정이다.

노 사무엘은 커넷티컷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을 하며, 현재 Duke 대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북한 방문과 함께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등 제 3 세계를 다니며

청소년 영어 캠프 지도교사를 역임하였다. 졸업 후 아프리카에 Medical Clinic 을 설립하여 진료와 함께 교육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신실하고 유망한 젊은이 이다.

고동훈씨는 1.5 세로 고교시절부터 미주 기독교 청소년 운동에 참여하며 지구촌 선교교회 고석희 목사님이 주최하는 시카고 휫튼 대학 세계 선교대회 미주 1.5 세의 영적 각성 운동에 찬양 인도에 10 여년 간 봉사했다. 현재는 커넷티컷 한인선교교회의 찬양 팀을 인도하며 첼 리스트 부인과 함께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에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분들은 모두 앞으로도 탄자니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뿐만 아닌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귀중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분들이다.

2. 프로젝트의 수행

탄자니아의 행정수도인 도도마에서 다레살람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22Km 떨어진 외딴 humwa 마을은 해발 1,098m 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기가 불과 4 개월 밖에 되지 않아 건조하여 물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일교차가 심하여 낮에는 햇살이 따갑고, 밤에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로 매우 쌀쌀하다. 전기의 혜택을 전혀 받아 보지 못한 이 마을 주민들은 휘발유와 맞먹을 정도로 비싼 Kerosene 기름을 태워 불을 켜는데 유독가스와 그을름으로 특히 어린이들은 실명이 되거나 폐질환으로 건강을 잃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22 Km 나 되는 먼 거리 이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을 인구가 만명이 넘지만 이렇다할 산업이 개발 되지 않아 영세 농업으로만 생계를 겨우 꾸려 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떠나고 있거나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이훔와 마을 중심부에 2012 년 1 월 Living Life School 이

세워지고 그 다음해에는 Young Eun Ihumwa Church[1]가 세워졌다. Life Living School 가 2012 년 1 월에 세워질 때 1 KW 솔라 시스템을 최선교사에게 의뢰하여 설치하여 컴퓨터와 전등에 활용하고 중형 냉장고에 의료품을 보관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학생들은 밤에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어른 들은 늦은 밤에도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며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곳에서 디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사용하려면 매일 $10 의 비용이 드는데 GNP $ 75 인 현지인 들의 생활 수준으로는 엄청난 비용인 셈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솔라 설치비를 1 년 반 내에 상환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선교사를 통해 이 마을을 지켜 본 결과 본 연구자의 취지와 부합되는 점이 많아 오아시스 솔라 선교회에서 2013 년 8 월에 이 곳에 기술교육을 실시 하며 자립을 돕는 가운데 그들의 영성의 변화를 연구 하기로 결정하고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전용

---

[1]영은 이훔와 교회는 전 가나안 교회 목사인 박경완 목사는 가나안 교회 목사로 재직할 때 1994 년부터 탄자니아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1995 년에는 탄자니아를 방문하고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가는 이들을 위해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들에게 살아갈 방법은 교육 밖에 없다고 절감하였다. 아프리카 장학회를 만들어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선교사가 유망한 학생으로 소개하여, 아프리카 장학재단으로 신학공부까지 마친 탄자니아의 유망한 청년 Joseph Yusuf Budala 는 가나안 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초등학교 교사도 역임했다. 그는 2011 년 아프리카 장학회에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2011 년 분달라 목사를 가나안 교회로 초청을 해서 후원 모금이 모아져 은퇴한 박경완 목사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도도마 이훔와 마을에 장기간 머물며, 1 만 7200 평의 대지에 2012 년 1 월 9 일에 Living Life School 을 지어 현재 학생 수는 350 명인데 이중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70 여명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신체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다. 교직원은 30 명이 있다.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인재가 있고 박목사를 믿고 후원금을 맡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일은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물이 귀한 이 마을에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도 후원으로 만들어졌고, 2013 년 6 월 26 일에는 자매 결연을 맺은 군포에 있는 영은 교회의 후원으로 헌당 예배를 올리며 영은 이훔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담임 목사이자 교장인 분달라 목사는 감리교 도도마 지구의 감독(Bishop)이다. 분달라 목사의 Motto 는 '가난은 비인간적이다' 이다. 따라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주어 삶의 품격을 높혀 자존감을 확립시켜 주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크리스천 세계관을 지닌 리더를 배출함으로 이들로 하여금 탄자니아의 고질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위한 교육 못지 않게 성인들을 위해서 재봉, 목공, 제빵 기술과 함께 솔라를 활용하는 직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훔와 마을에는 11,000 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교회 주변에는 6,500 명의 주민이 있는데 노인이 1,000 명정도, 젊은이가 1,000 명, 어린이가 2,000 명, 일할 수 있는 여성이 1,500 명, 남성은 1,000 명 정도인데 산업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영세한 농업에 의존하고 실업률이 큰 아주 가난한 마을이다. 더구나 이 곳 마을에서 병원이 무려 22Km 나 떨어져 있어 마을 주민 들이 겪고 있는 말라리아 같은 만성질환과 치통, 혹은 해열제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진료 시설이 없음으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3,000 명의 성인 여성들은 분만시 많은 생명을 잃어 가고 있으므로 산모나 신생아를 돌보는 다목적 진료소를 건립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현지 최홍규 선교사가 직접 조사해서 보낸 자료)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1KW 솔라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Networking Computer 시설과 프린터, 스캔, Fax, 책 제본기, Projector, 책 등 을 구비해 주었다. 이 곳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하며 학부모들에도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그들의 신앙 도와 생활 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는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일반인을 위한 기술교육을 통한 신앙 영접 에 대한 연구

Living Life School 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 지역이 내륙에 자리하고 있어 이슬람 문화권의 색이 강하지는 않아 자녀들을 비록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있어도 종교나 신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 중 가정 형편이 어렵고 기독교인이 아닌 부모들을 20 대에서 40 대 남 녀를 같은 비율로 30 명을 선발해 태양에너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 영접에 대한 것을 설문지를 통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기술교육의 내용은 최선교사가 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휴대용 전화기 솔라 충전기겸 램프를 개발 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삼 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다.

보통 한대를 제작하는데 2 시간 정도 걸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시간에 나와서 두 시간 정도 만들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지으로 돌아 가든지 남아서 센터에 마련한 책이나 음악이나 기독교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대 만드는 노임을 2 불 지불하였다. 하루에 네 다섯대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본격적 생산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들의 영성 변화를 연구하는 단계이므로 보다 긴 접촉이 필요하여 짧은 시간 만 만들게 하였다.

교육을 시작하는 첫날 그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무기명으로 간단한 신앙 상태를 무기명으로 적게 하였다. 그리고 세 달 교육이 끝나고 다시 무기명으로 설문지에 답변하게 하여 연구 분석할 것이다. 설문지는 일단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읽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믿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 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자신이 구원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며 죽은 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가, 가정이나 사회 혹은 교회 내에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를 하며 그를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느끼는가 하는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으므로 인격적 으로 대하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 전도를 하고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가, 소망이 없던 삶이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생활이 활기 차 졌는가 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찬송가와 찬양곡을 틀어 놓고 가사도 칠판에 써 놓았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을 프로젝터를 통해 기독교 영화를 상여하여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물론 평일에도 그들이 원하면 볼 수 있게 하였다. 세 달이 지난 후 영화, 음악, 책 중 어떤 매체가 가장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 분석할 것이다.

이홈와 솔라센터가 바로 이홈와 주민 들 것임에 따라 그들이 앞으로 이 곳을 활용 할 때는 그들의 희망인 자녀들에 대한 희망 직종을 연구 해 보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오아시스 마을 솔라 센터를 어떻게 활용 하고 싶은가를 조사 연구 해 보았다.

2) Living Life School 학생들의 영성 변화 연구

Living Life School 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영접 유무 보다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 했는가를 조사 연구

할 것이다. 학교 학생 중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방과 후에 남아서 세가지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인터넷 사용법, 사진, CD, DVD 제작, 프린터, fax, scanner ,copier 사용법, 또한 일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혀 자신은 물론 졸업후 일반 직장에 취업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word, excel, power point, 상장 , 명함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룹, 나머지는 과학계열이나 공대에 진학 할 학생들을 위한 수학과 과학을 심도있게 가르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세 번째 그룹은 휴대폰 솔라 충전기 겸 램프 제작 법도 가르치고 솔라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원리와 함께 샘플 작업을 함께 하였다.

학부모 그룹과 같이 이 학생 그룹 전원도 수업에 참여 하는 동안 머리를 깊이 쓰지 않는 수업은 기독교 음악을 틀어 주었다. 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독교 영화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부모 그룹처럼 영화, 음악, 책 이 신앙의 성장에 어느 매체가 가장 느낌을 주는 지 연구 분석 했다. 학생들은 이 특별 교육이 끝난 후 학업 성적, 정직성을 더 주시하는 인품, 친구들과의 교제, 학교 생활 전반 적인 적극성과 자발적인 봉사 정신을 조사 분석 해 볼 것이다.

이 학생들도 학부모 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희망 직종과 오아시스 솔라 센터의 활용도에 대해 질문을 해 보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은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3) 태양에너지 기술 교육 선교를 통한 후원자의 관심도의 향상 연구

본 연구를 통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후원자들의 관심도 향상인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첫째는 오아시스 솔라 미션의 꾸준한 회원 증가는 있었는가 이다. 매 달 첫 토요일 오후 8 시에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때는 화상 채팅도 허락하였다. 옆에 친지가 있어도 같이 보며 널리 홍보하는 것도 회원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 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회원을 늘리기 위해 12 월에는후원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 준비 작업도 같이 나누어 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일 대학 내에서 하는 노방 전도나 성경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하였다.

둘째로는 현지에서 충전기용 램프 제작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노트북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하면 더 견고하고 오래 불을 결 수 있다는 것을 최선교사가 발견하고는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배터리 수집을 해 온 것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로는 팀원들과 후원자들은 오아시스 솔라 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학부모, 학생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로는 솔라에너지 교육을 통해 선교 단체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증가 되고 있는지도 조사 하고자 한다.

Ⅶ.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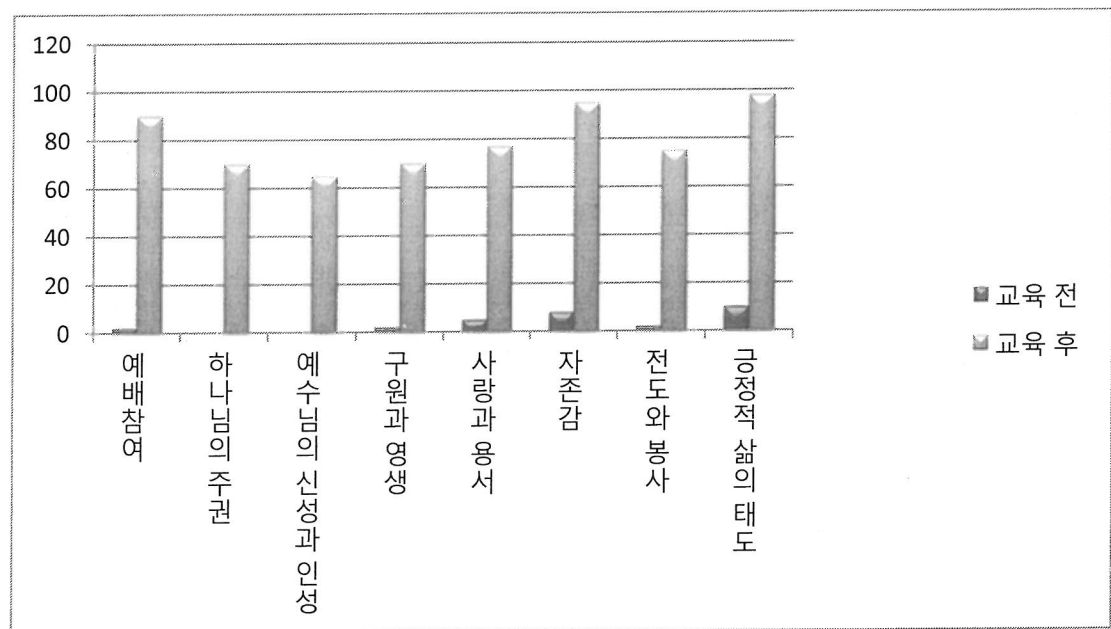
1. 일반인들의 신앙 영접에 대한 분석

가정에서 영적 생활이 성숙해 지고, 삶의 방법을 배우며 사랑과 책임 있는 가족관계에서 어린이들은 한 인격체로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의 프로젝트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부모 중 아직 기독교를 신앙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람들을 30 명 골라 솔라 기술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를 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그들이 신앙을 가져야 적극적인 신앙 생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신앙에 대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세 달 후에 다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변화된 모습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전원 모두 참여하여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었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답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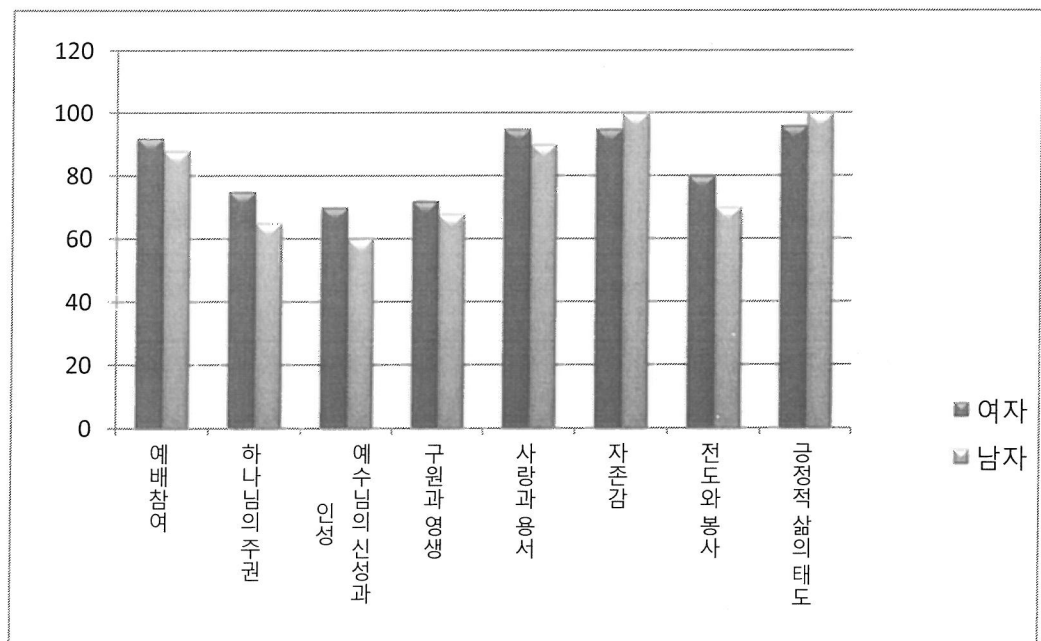
다음은 교육을 받는 학부모에게 조사했던 설문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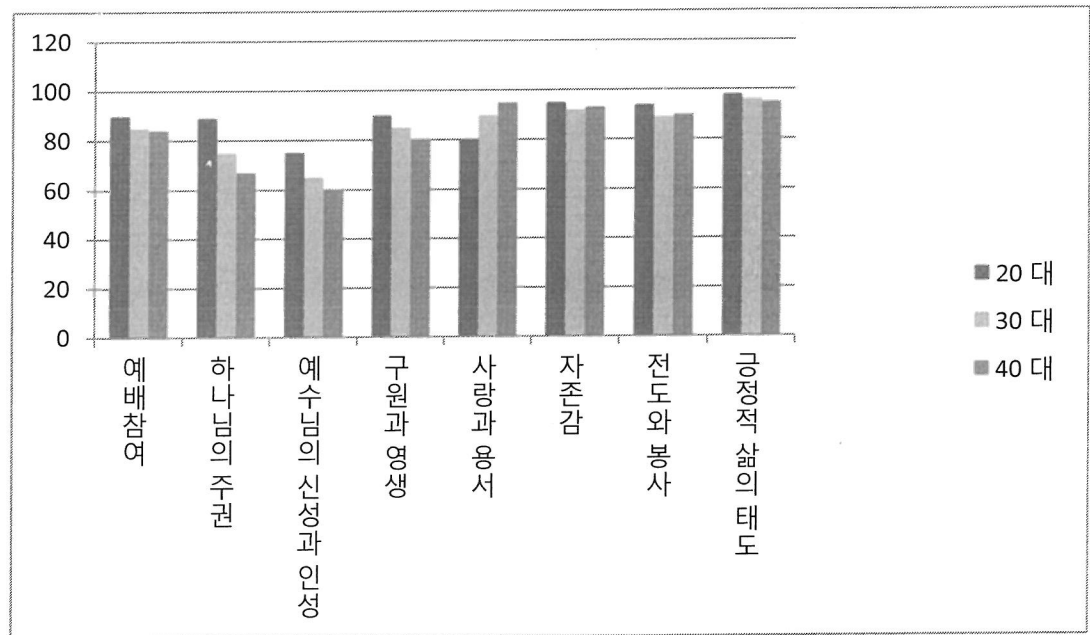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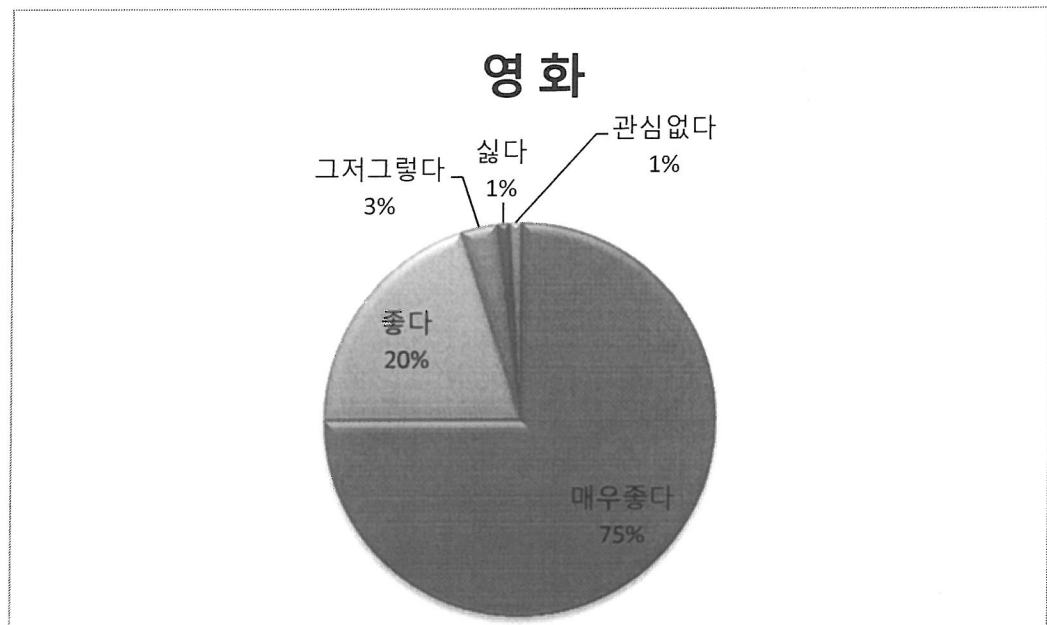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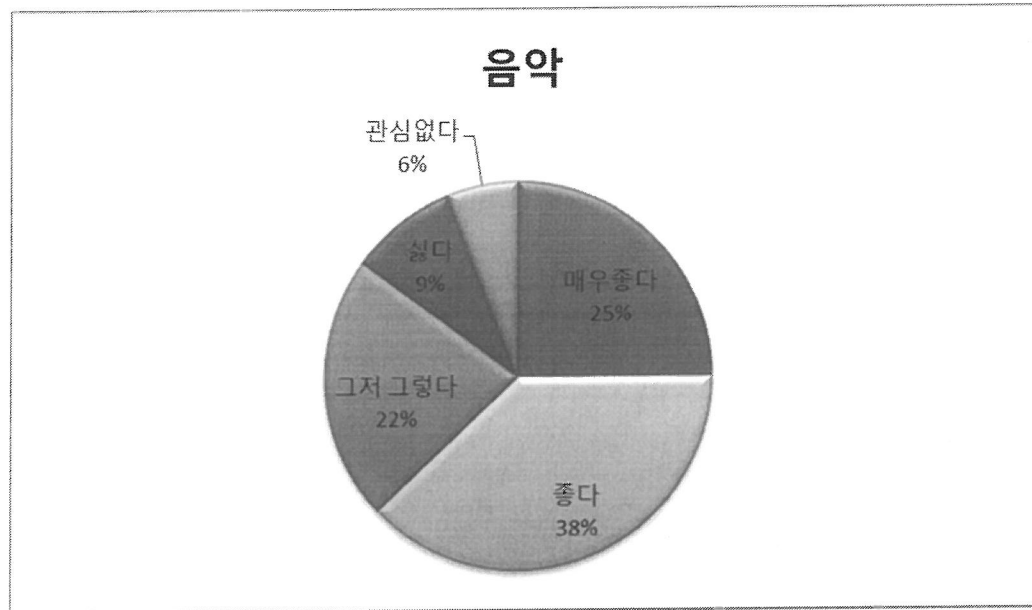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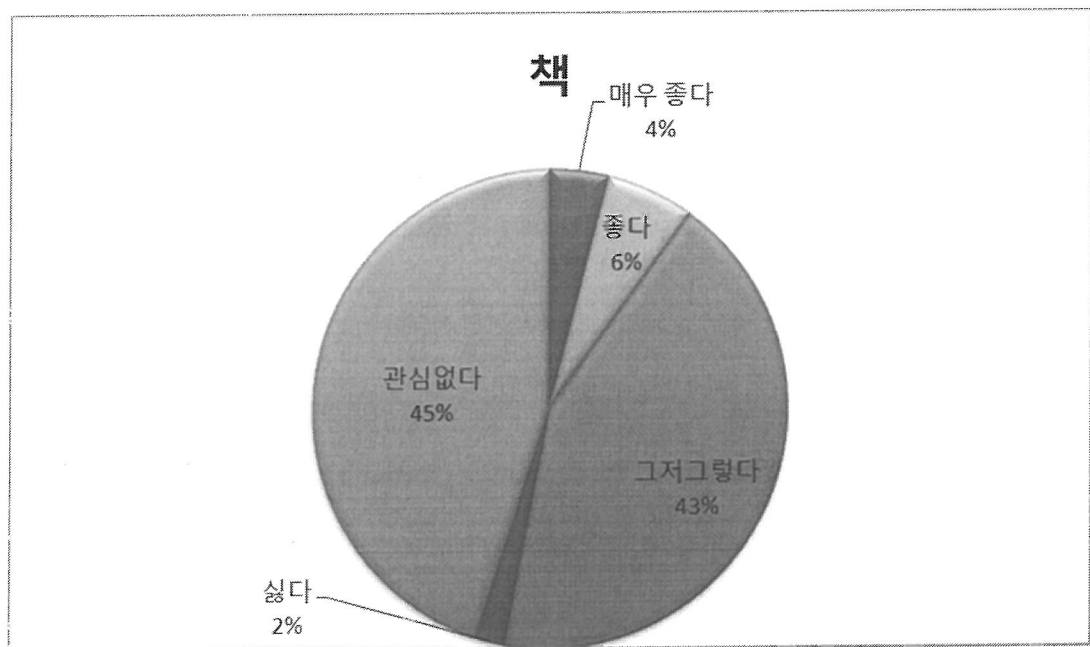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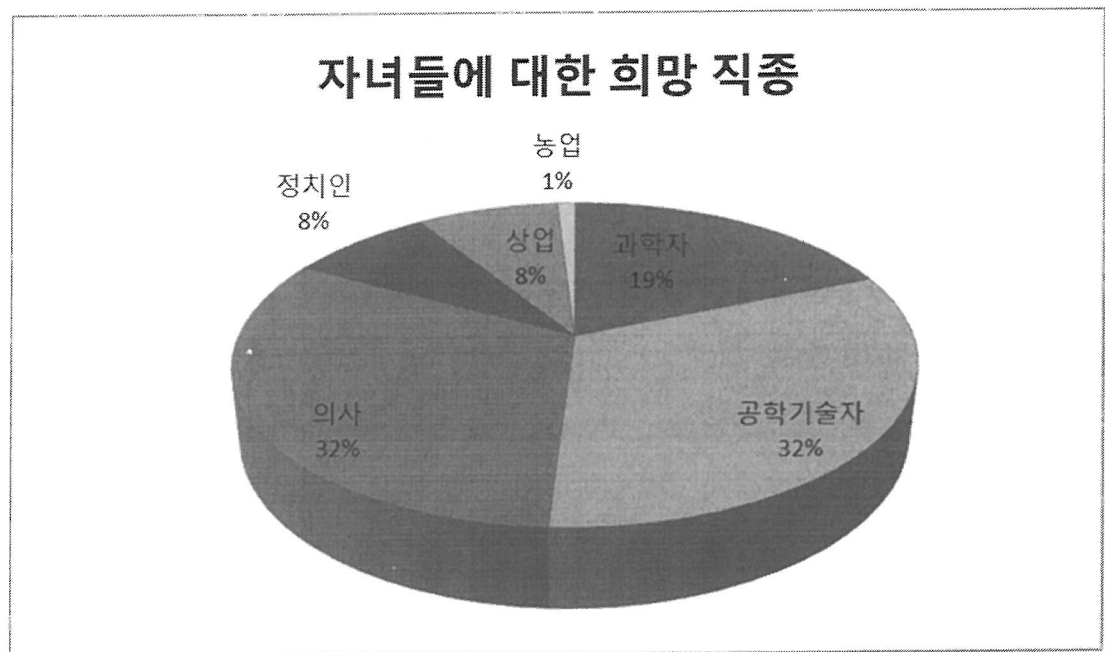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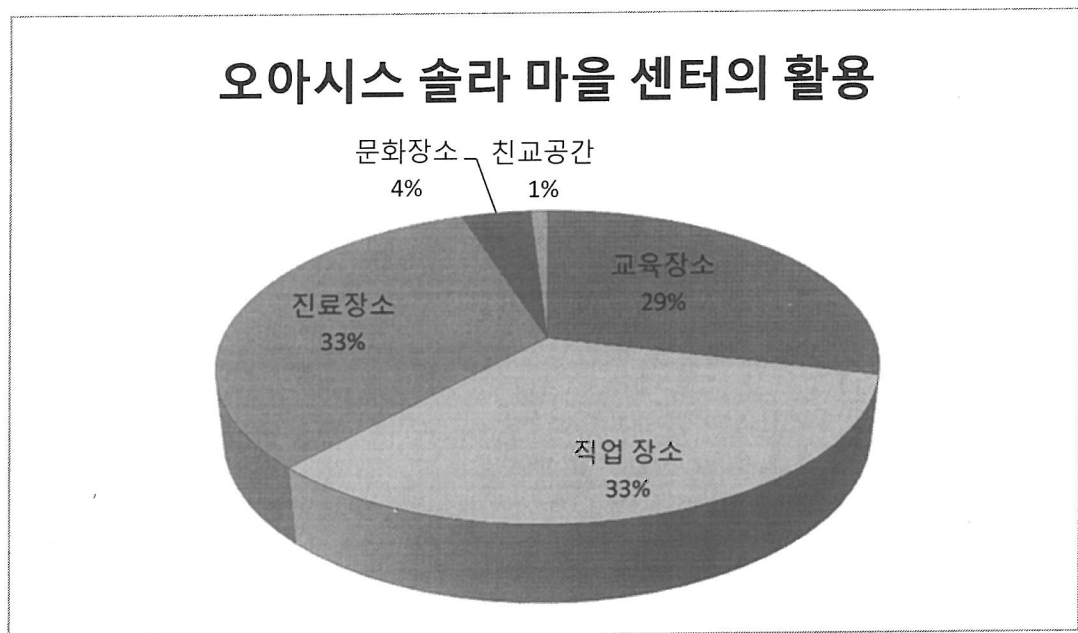
	예배참여와 말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책을 읽는다.	예, 아니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믿는다.	예, 아니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 하신 것을 믿는다.	예, 아니오
	구원과 영생	내가 구원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며 죽은 후	예,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는다.	아니오
	사랑과 용서	가정이나 사회 혹은 교회 내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느꼈다.	예, 아니오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주변의 사람도 같으므로 인격적으로 대한다.	예, 아니오
	전도와 봉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	예, 아니오
·	개인적인 삶의 태도	소망이 없던 삶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뀌어 생활이 활기차 졌다.	예, 아니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술 교육을 받기 전과 후는 현저한 차이로 교육 후 기독교 신앙에 대해 긍정적이 되었다. 그들은 기술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음악이나 영화 등으로 기독교 문화를 접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고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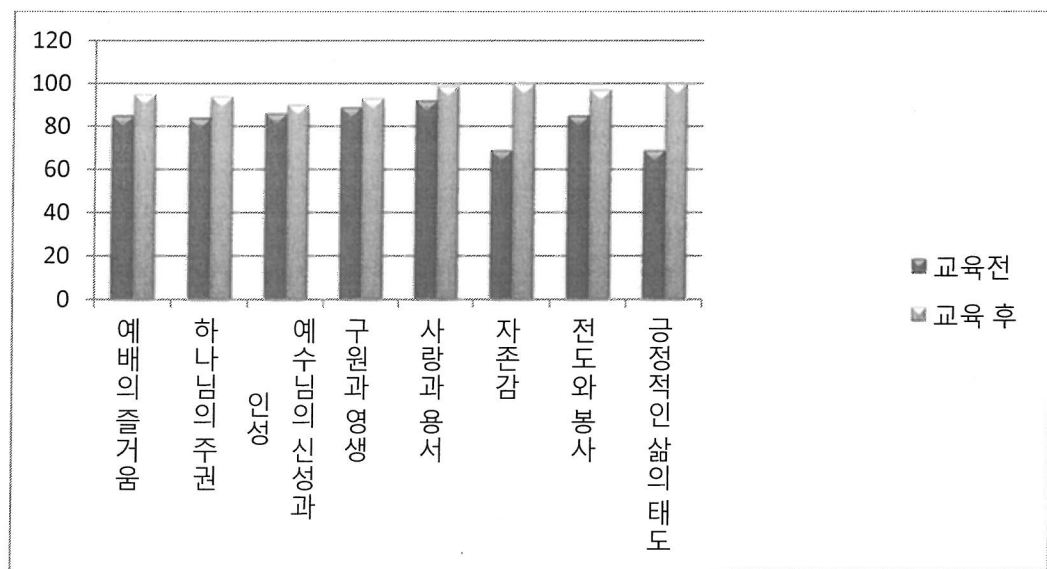
특히 그들의 예배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쉽게 주일을 지킨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대보다 높았던 이유는 그들도 그들의 토속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아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원과 영생, 전도와 봉사는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짧은 기간에 받아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존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농업에만 의존하던 그들이 이홈와 오아시스 솔라 미션을 통해 작지만 수입이 되고,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소망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들은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이슬람 교의 영향으로 신앙심은 이미 자리 잡아 쉽게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뿌리 내리려면 지속적으로 기술 교육을 통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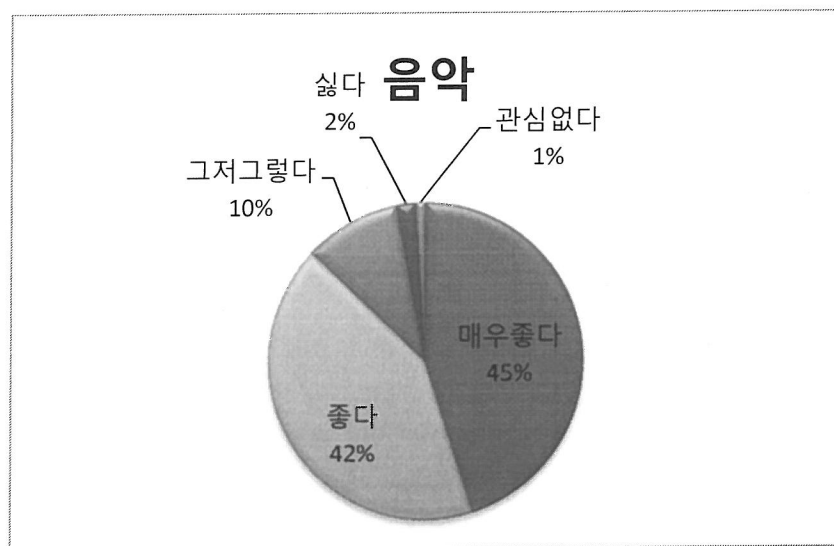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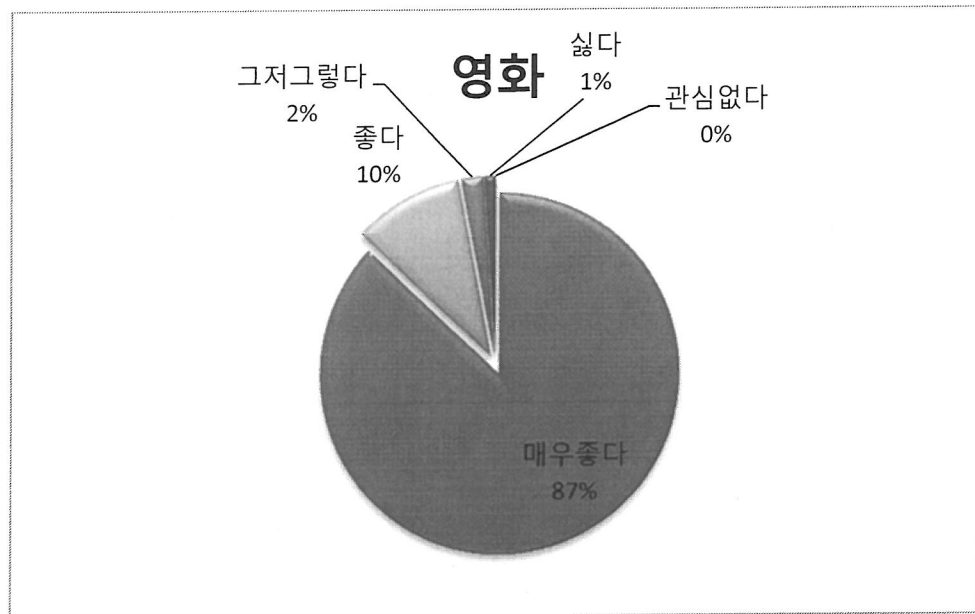
다음 그래프는 여자와 남자의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는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이다.

여자와 남자의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는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예배참여,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원과 영생, 사랑과 용서, 전도와 봉사에서는 여자들이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육아와 교육은 여자들이 많이 관여하므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느 정도는 기독교 문화를 접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자존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가장으로서 직업을 갖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그래프는 어느 연령대가 더욱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쉬운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해 본 결과 예배 참여나 말씀, 구원과 영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젊은 연령층이 더 잘 받아 들여졌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변하기 어렵다고 분석 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 부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랑과 신앙에 관계 없이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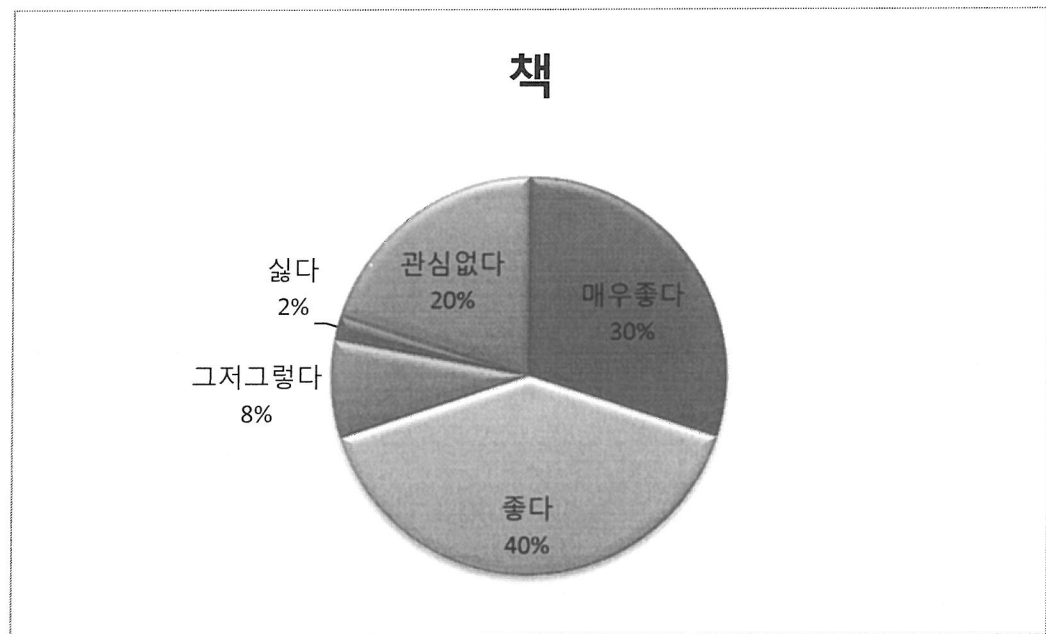
다음은 기술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데 간접적으로 어떤 매체가 좋은 지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그들에게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3 개월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상영했던 영화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 것에 계기에 대해 설문지를 분석해 본 결과 영화가 가장 좋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전기도 들어 오지 않고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던 이 마을에 큰 프로젝터로 보여 주는 영화는 그들에게 호감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분석이 된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연결 시켜 보여 주는 여러가지 로 보여주는 영화나 또는 DVD 는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도 매체라 분석된다.

다음은 음악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프의 수치에서 보듯이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에 틀어 준 찬송가와 찬양곡 등 기독교 음악을 틀어 주고 분석한 결과, 영화 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63% 나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곡을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로 삶에 힘이 되는 곡들 좋아하였다. 작업을 하는 동안을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매체라 생각된다.

끝으로 전도의 매체로 작업장 옆에 비치한 기독교 서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들은 책에는 많은 관심이 없고 별 효과가 없었다. 비치한 책들의 대부분이 영어로 된 것이 많고 그들이 그렇게 읽은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오아시스 솔라 미션이 앞으로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미래를 조사해 보고자 자녀들에 대한 희망 직종을 연구 분석해 보았다. 많은 인원수가 아니므로 분석의 심도를 위해 6 가지 직종으로 미리 구분하고 가장 원하는 하나씩만 첵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홈와 주민들은 자녀들이 기술자가 되기를 가장 원하였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외부 세계와 거의 차단된 상태로 살고 있던 그들이 마을 센터가 솔라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전기가 들어 오고 그들이 휴대폰을 충전하러 다녔던 불편을 해소 해 준 영향이 많았으리라 분석된다. 현재 자신들이 받고 있는 기술이 생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자녀들이 기술을 배우면 가난의 고리를 끊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의사를 기대하는 것은 이홈와 마을에서 병원이 22km 나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많은 노약자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특히 간단한 충치 하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00 여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위한 산부인과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솔라 미션의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위해 이홈와 마을 주민들은 오아시스 솔라 미션 센터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도 자녀들에 대한 희망 직종과 마찬가지로 분석이 되도록 정확하기 위해 5 가지로 분류를 한 후 한 가지만 첵크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 공간과 진료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가장 원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장소에서 직업 훈련을 받아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위에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홈와 마을은 병원이 멀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센터에 진료 공간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교육공간의 수치가 직업이나 진료 공간 보다 낮은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문화나 친교의 공간도 적은 수치가 나온 것도 교회나 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Living Life Church 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영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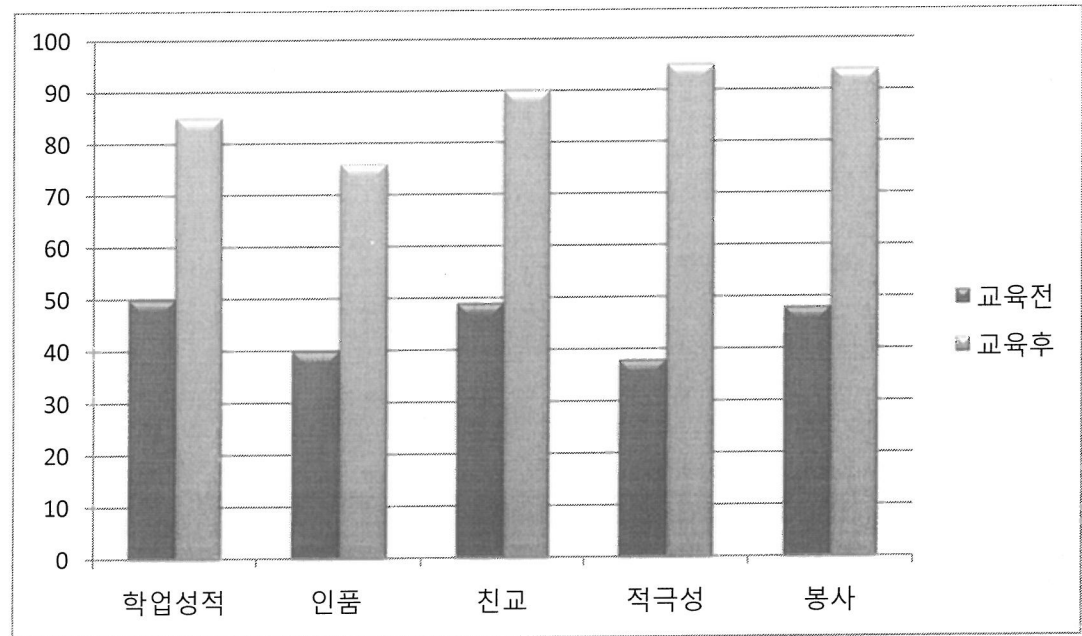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비록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방과 후 세 가지 특별 교육을 통해 변화된 학생들의 신앙의 변화와 함께 오아시스 솔라 미션의 앞으로 선교를 위해 다각도로 연구 분석하였다. 방과 후 특별 교육은 인터넷, 사진 제작, CD 와 DVD 제작, 프린터, 팩스, 카피, 스캔 , 워드, 엑셀, 파워 포인트 등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실 업무, 휴대폰 솔라 충전기겸 램프 제작 기술 교육, 그리고 공학도가 되기 위한 기본적 과학과 수학 교육을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게 하였다. 이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75 명이었고, 많은 숫자가 아니므로 하나로 묶어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합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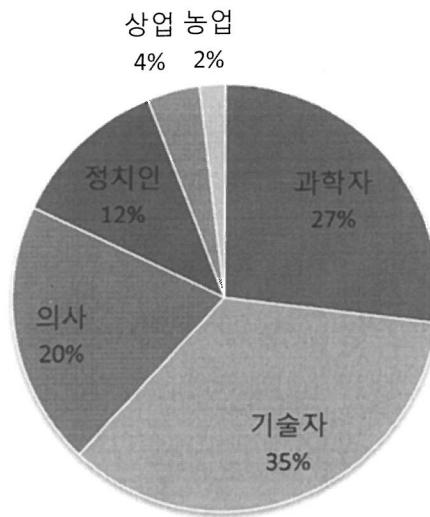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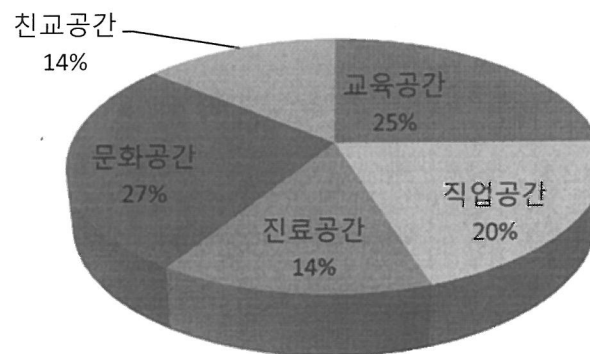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에서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없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자존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특별한 기술 교육으로 인해 자신들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다음 영화에 관한 분석에서는 학생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는 매주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하였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인 만큼 영화에 대한

반응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분석되어 어른 들보다도 더욱 신앙 교육에 효과가 좋다고 분석된다.

다음 음악에 관해 분석한 표에서 보듯이 영화만큼 반응이 높진 않지만 어른들 보다는 음악에 대한 수치가 훨씬 높게 분석되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에 대한 감수성도

예민하고 찬양에 나오는 가사를 반복해 듣는 것은 학생들의 신앙형성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분석 된다.

다음은 책에 대한 분석을 보면 학생들이니만큼 센터에 비치 해 놓은 책들을 자유롭게 보며 집에도 빌려 가는 등 학생들은 어른 들과는 달리 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들은 분류를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 주로 신앙 위인 책들을 좋아하였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 이므로 이들에게 양질의 책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이 되었다.

전인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 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 나는 것을 연구 분석해 보았다. 학교 생활에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가정 생활 보다는 조사하기가 수월해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면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조사한 것을 분석해 보았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신앙심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 모든 면에서 현저히 발달 되었다. 우선 학업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 졌고, 밝고 명랑해져서 친구들과의 친교가 좋아 졌다. 학생들은 적극적이 되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간 접해 보지 못한 것들의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자신을 사랑하게 것과 같이 타인과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한 가지 현저하게 향상된 것은 학생들의 정직성이었다. 정직성은 기독교인의 덕목 중 중요한 것이므로 매우 바람 직 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물건을 훔치는사례가 있곤 했는데 인품면에서는그 면을 많이 주시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종을 조사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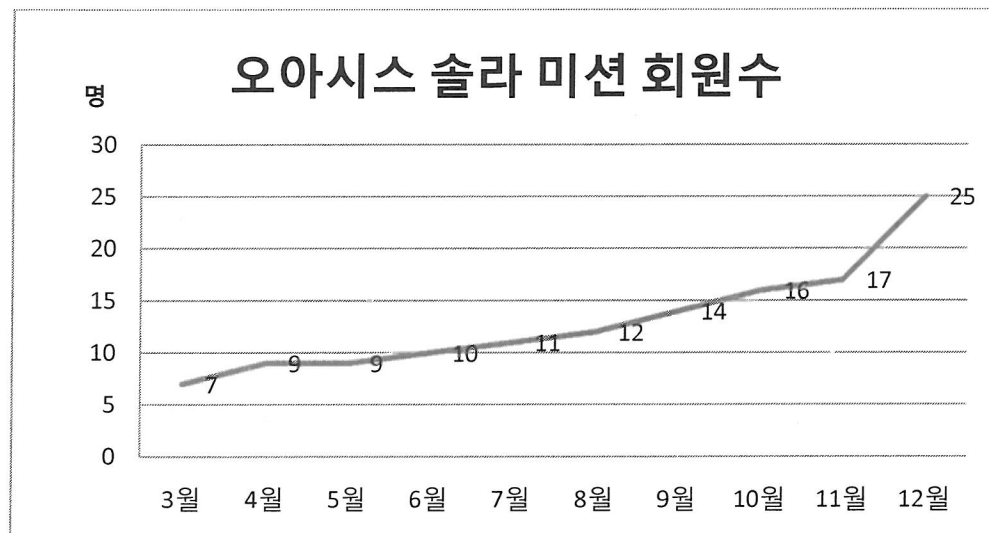
학부모들에게도 조사한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도 희망 직종을 조사 해 본 결과 학생들도 부모들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술자와 과학에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호기심이 많은 연령에 실시한 과학 교육이라고 분석된다. 학부모 들과는 달리 의사에 대한 호감은 좀 낮은 편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소 높은 편이다.

다음은 오아시스 솔라 센터가 장래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을까를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이다.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오아시스 솔라 센터가 어떻게 활용되면 좋겠는가 에 대해 다섯 가지를 주고 한가지만 첵크하게 한 결과 학생들은 학부모와는 달리 문화공간을 가장 선호하였다.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친교 공간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인터넷 교육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와 직업 공간이 낮게 나온 것은 기성 세대보다 현실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학생들이 문화 공간과 친교 공간으로서 솔라 센터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바람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은 다섯 가지 초점 부분에서 종합적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 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그리스도), 돌봄과 책임 있는 가정, 혹은 교회에서 살고 자라야 하며(공동체), 정직하게 커가야 하며(인격),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야 하며(부르심), 그리고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개발시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유능함).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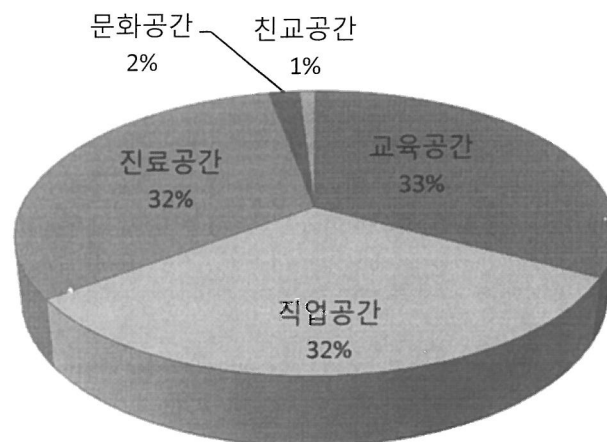
3. 태양에너지 기술 교육 선교를 통한 후원자의 관심도의 향상 연구

본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후원자의 관심도 향상에 대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아시스 솔라 미션의 꾸준한 회원 증가이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난 3 월 7 명으로 시작했는데, 10 개월이 지난 12 월에는 25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예일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예일 대학 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Power Point 제작하여 관람케 한 것이 많이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5 명의 학생이 회원이 되었으며, 그 중 2 명은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 선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완만하게 늘고 있던 회원이 12 월에 갑자기 향상된 것은 12 월 연말 연시 오아시스 솔라 후원의 밤을 본인에 집에서 개최하고 지인들을 초대하여 솔라 사역에 대한 보고를 Power Point 로 하고 현장에 있는 최선교사와 화상채팅과 팀원들이 찬양에 관련된 것을 고려하여 후원음악회를 개최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된다. 그 날 하루 7 명이 회원이 되어 후원을 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꾸준한 대학 내 성경공부 및 노방 전도를 하며 일년에 두 차례 Easter 와 Christmas 즈음에는 솔라 미션 후원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 증가에 힘을 써야 겠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노트북 휴대용 배터리 수집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솔라 휴대용 전화기 충전기 겸 램프를 제작 하기 위한 배터리를 현지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노트북 못 쓰게 되어 버리게 될 때 보통 같이 버리는 휴대용 배터리는 상당히 성능이 좋게 솔라 전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재활용이라는 환경 보존에도 일익이 되고 제작비 중 가장 가격이 많이 드는 이것을 구한다면 더욱 많이 기술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더욱 많이 수많은 집에 밤에 불과 충전기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집집 마다 한 두 개씩 있는 못 쓰게 된 노트북의 배터리를 이 곳에서 모아 보내기로 하고 수집을 하기 시작하여 100 개 가량이 지난 10 달 동안 모아 졌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차로 배터리 수집량이 늘고

있다. 또한 학기가 시작되는 8, 9 월에 배터리 수집량이 많은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신학기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새 것으로 바꾼다는 분석된다. 또한 12 월에 많이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Thanksgiving 다음 날인 Black Friday 와 Christmas 에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12 월에 회원 증가 차원으로 오아시스 솔라 후원의 밤 음악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한다.

셋째로, 연구 팀과 함께 회원들은 오아시스 솔라 미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후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지인들과 똑 같은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훔와 마을의 학부모나 학생들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아시스 솔라 센터를 교육, 작업, 진료 공간으로 활용 하는 것에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이훔와 마을은 학교와 교회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 교육인 컴퓨터 교육장과 마을의 자립을 위한 작업장과 가장 열악한 병원 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이번 해 후원 계획은 진료소를 세워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넷째로 큰 후원단체의 관심이 늘어 후원을 하는 곳과 협력 선교가 늘어 났다는 것이다. 오아시스 솔라 미션이 전기도 들어 오지 않는 작고 외딴 마을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을 센터를 만들어 주고 그 곳을 중심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며 소망을 갖게 해준 것이 알려지자 여러 단체의 문의가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의 선교 전략인 전문인들과와도 현지인들과도 협력 선교가 바람직하게 유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자니아의 Village Community Bank(VICOBA)[1]와 협력을 하게 되었다. VICOBA 총재의 주 관심은 탄자니아 국민들의 절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최선교사의 적정기술[2]과 은행 측의 소액 자본 대출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은행 총재는 이홈와 마을과 계약을 맺고 2014 년 3 월부터 본격적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

[1]VICOBA 는 현 총재이며 여성 문제 대표 국회의원인 Devora Likokola 여사가 1991 년에 다레살람에 과학 기술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무웽게(Mwenge)에 본사를 설립하여 지금은 10,000 개의 지점이 탄자니아 전역에 있다. 이 은행은 벵글라데시의 Grameen Bank 를 모델로 한 소규모 대출 은행으로 소액 자본대출 은행이다. VICOBA 는 탄자니아 2025 에 부응하는 은행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보증금이나 담보물 없이 가난한 사람이란 확인 만 되면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소액 장기 저리 신용대출을 하여 오랜 기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다. 만성적 가난의 사슬을 풀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여성문제, 아프리카의 만성 질병인 말라리아와 에이즈 퇴치와 위생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있다. VICOBA, (Dar es Salaam: VICOBA), 2013

[2]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인간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호,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적정기술이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술’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최신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매일 생활할 물을 구하러 먼 거리로 물을 옮기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아이들, 살기 위해 삶과 싸우는 여성과 농민 등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고 보급하기 위해 과학자, 공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해결책이다. (고재경, 적정기술, 서울: 경제개발연구원, 2013 년 3 월) 1. 특히 적정기술은 개발과 사용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에너지 의존적이지 않으며, 배우고 만드는데 어렵지 않으며,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기술이 현지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더욱 단순하고 쓰기 편한 솔루션을 내놓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훨씬 시장을 선도하게 되는 것이다.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충전기 및 램프, 물 살균 시스템, 빗물수집장치 등이 그것이다.(이근영, 아프리카 망고건조기 보급, (서울: 한국과학창의 재단, 2011 년 10 월), 10.

또한 MOM(Mesenger of Mercy) 선교회의 Empower 는 지난 해부터 최선교사와 협력 선교를 하며 도도마의 응옹오나 (Ng Ong Ona)마을 Christian Mission Fellowship Church 에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Empower Community Center 를 설립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주어 인터넷 카페와 함께 컴퓨터 교육장이 될 것이다. 20 여년 간 탄자니아를 섬긴 한인 선교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Empower 단체가 전액 후원하고 최선교사의 전문 기술이 모아진 아름다운 협력 선교의 결실이었다. 주민이 5 천명이고 교인이 80 명인 이 지역에 복음의 빛과 함께 전기를 공급함으로 외부와 소외된 젊은이 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나가게 해 준 것이다. Empower 단체는 행후 2 년 간 이런 규모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Community Center 를 탄자니아 지역에 세워 주어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탄자니아에는 Arusha 에 본부가 있는 Compassion International 에서는 지난 12 월 에 있는 컨퍼런스에 태양에너지 기술 선교에 관해 초청 강사로 초빙해 강연을 하였다. 컴패션에서는 Arusha 에서 약 100Km 떨어진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음부리아쉬(Mburiash) 마을 교회에 4Kw 급 솔라 시스템 설치 하였다. 이 솔라 시스템으로 인하여 컴퓨터 교실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여 학생들이 첨단 고등 교육을 받을 준비를 시켜 주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Compassion International 은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태양에너지 전문인 사역을 통한 기술 교육은 그 자체에도 좋은 선교의 모델이지만 글로벌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받을 만한 체계적 구축으로 하는 전략적 선교와 협력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Ⅷ. 결론

1. Project 요약

본 연구자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현대 선교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으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기술교육선교를 연구하게 되었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탄자니아 주민들에게 기술교육을 통한 자립을 돕는 가운데, 개개인의 전인적 변화가 성경적인 지역사회 개발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선교를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 것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1 장에서는 탄자니아에 대한 일반적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탄자니아의 자립과 함께 복음 전파가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 탄자니아는 15 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50% 가 넘고 이슬람교도들이 30% 이상이 되므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되었다. 아프리카와 같이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현장을 선교하려면 새로운 삶의 태도와 자세,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국민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선교의 노력은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자니아의 기독교 선교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본 바로 아프리카에 기독교 역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토착화로 인하여 바른 신학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을 직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대치하는 가운데 적절하게 바른 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는 중요한 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 2 장의 성서적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세계 선교의 동기임을 알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늘에서 땅으로 그 위대한 최초 선교 여행을 하러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종이 되려는 정신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세계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낮추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바라는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다. 열방에게 긍휼을 펼치기 위해 사셨다는 점에서도 그 분께서는 종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열방을 불쌍히 여기는 종의 마음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과 열방을 향해 가지는 긍휼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교사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긍휼은 피상적인 것이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진보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한 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위선적인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열정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사람들을 모으시는 전세계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과 열방 가운데서 자기 이름이 지극이 높임을 받기를 한없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3 장 신학적 연구에서는 시대는 변했을 지라도 그 선교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기에 나는 이 장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네비우스 의 '자립, 자전, 자치'라는 선교방침에서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교회"라는 현지인의 자립 선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선조들도 바른 지도자 아래서 성경을 배워 감에 따라 그들은 보화를 혼자 간직할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믿음의 선조들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술교육 선교와 자립이라는 것을 병행하며 선교의 접촉 점을 시도할 때 자칫하면 예전에는 돈으로 고용하며 문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와 비슷한 역효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현지인들을 성경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 현상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회로 받아들여서 도시의 필요들을 관찰하고 그 필요를 채워 주는 적정기술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기회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영혼 구원 차원에 머무르는 선교전략에서 좀 더 포괄적인 선교를 지향함으로써 교회는 인적, 물적, 영적 자원들을 과감하게 도시 선교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선교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선교 매체이다.

제 5 장 교육학적 연구에서는 올바른 교육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내면적 인성과 외면적 행동의 결정과 처세술, 관계성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긍휼, 의로움, 거룩함, 사랑의 원칙 등을 배우게 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서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열쇄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곳이다. 어린이들은 학교뿐 아니라 바른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영적 생활이 성숙해 지고, 삶의 방법을 배우며 사랑과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커가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디모데 후서 3 장 10-

17 절에 보면 디모데의 삶은 집에서, 교회에서, 사역 현장에서, 그리고 바울과 개인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적, 경험적, 그리고 교훈적 네 가지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가족들, 돌보아 주는 사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돌봄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보여 주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잘 교육이 될 때에 그들의 영적인 삶에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관계적 용량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인성이 성장하고, 소명이 확실해 지며, 그리고 사려 깊은 지도력이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실행을 위해 탄자니아의 행정 수도인 도도마에 위치한 이훔와 마을의 Young Eun Ihumwa Church 에 있는 Living Life School 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지 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통한 자립이 그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신앙심이 향상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양에너지 기술교육선교를 통한 후원자의 관심도의 향상을 연구하였다.

제 7 장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연구 조사를 분석하였다. 신앙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두 기술교육을 통해 신앙심이 현저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 교육을 하는 동안 기독교 문화를 접하기 위한 매체로 사용한 영화, 음악, 서적 의 순으로 친밀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복음과 함께 그들의 현실을 개선 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오아시스 마을 센터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문지식과 대중의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주력하는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성육신적 차원으로 기술교육선교를 함으로 현지인들에게 일터와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배 공동체, 훈련 및 삶의 공동체 즉 총제적 신앙(삶)의 공동체를 구현함으로 자립과 함께 성경적인 지역 사회 개발을 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와 연구 팀원들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고 또 나누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 사랑의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회원들을 보내 주셨고 그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본 연구자와 연구 팀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영성 강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교란 선교의 영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를 끌어 안는 그 성령의 본성을 깨닫고, 그 성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경험, 지식, 지혜, 그리고 최상의 물질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선교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과감한 투자와 면밀한 계획 아래 행해져야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다.

2. 제언

21 세기 모든 국가와 첨단기술 산업의 발달은 전기가 기초가 되므로 전기를 원활히 공급하고 지구환경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각종 에너지 절약 및 신. 재생 에너지 분야의 산업들이 새롭게 급성장하고 있다. 그 중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하여 전기 사정이 열악한 제 3 세계의 전력을 공급해 줌으로서 교회는 물론 병원, 물 펌프, 교육, 등을 통해 선교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보호해 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례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슬람 권, 공산권 등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21 세기의 선교환경이 점점 전문인 선교가 주류를 이루어 가면서 전방 개척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업을 통한 전문인 선교사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다. 전문인 선교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의 실천을 이룰 수 있는 21 세기의 중요한 선교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성 있는 첨단기술 산업들을 현지에 맞게 접목시켜 현지인들에 우선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시스템 관련 산업은 전문 실무경험을 갖추어 전문인 선교사로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3 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기술교육 선교와 함께 비즈니스 선교의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의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비 정부기구(NGO)와 선교사, 태양에너지 전문기업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나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팀 워크의 상호협력을 이루는 공동체로 기술 교육선교의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선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을 가진 전문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바로 세워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미래 사회를 이끌 균형 잡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면서 선교사들의 봉사와 나눔에 보다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 전문인들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적정기술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복음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의 절실한 필요를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적정 기술은 화려하고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임에 분명하다. 이는 단순하지만 첨단에 녹아 있는 기술, 지속 가능한 기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된 기술로 세계 곳곳의 빈곤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한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 놓고 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완성교육이며,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빈곤의 억압 속에 방치해 놓는다면 이 또한 미완성 작품이다. 발전한다는 것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발전은 총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과학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그들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평과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렘 22:15-16).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이 논문을 통해 극도의 물질주의와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소용돌이로 인해 인간의 참모습이 상실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미력하나마 책임 있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섬김의 본을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등의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기독교적인 사회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진보의 첫 단계는 기독교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체제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더 많은 온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목자요, 요셉과 다니엘은 국무총리요, 예수는 목수요, 바울은 장막 깁는 자요, 누가는 의사요 수많은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저들의 생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제 사역과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사가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High Tech 에 High Touch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품종 특상품을 구비하여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선교가 무엇을 하기 위한 교육, 봉사, 구제 등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속에 들어가 사는 삶, 사랑, 사람 위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문의 선교활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사는 상황적 선교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모델인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다. 누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상황에 따라 사랑을 구체화시켜 주셨다. 물질적으로 없어 가난한 이들도 우리의 가난한 이웃이지만, 내적으로 충족, 사랑, 보람이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나니……" 이제는 우리는 가난한 이웃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편안하고 익숙한 가정과 직업을 떠나 자신이 가진 직업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변화된 이들이 또 자기의 가난한 친구들과 같이 사는 연속적인 유대관계가 이어지는 것에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술교육선교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전문인들이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지적(知的), 경험적 한계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서 기술교육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한 다양한 선교전략들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연구를 마친다.

BIBLIOGRAPHY

1) 외국서적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1962.

Anthony, M.J. *Evangelical Dictionar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1.

Bavinck, J.H.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8.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Blaws, Johannes. *교회의 선교적 본질.* 전재옥 역. 서울: 대한예수장로회출판국, 1988.

Bosch, David J. *"The Structure of Mission: An Exposition of Matthew 28:16-20" Exploring Church Growth* . Edited by Wilbiert R. Shenk. Grand Rapids, MI: Eerdmans Pub., 1983.

———.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American Missiology Society, 1991.

———.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옥 역. 두란노 서원, 1991.

Bradford, Travis. *Solar Revolution.* Boston: Systematic Investment, 2012.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7.

Brummelon, Harro Van.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이부형 역. 서울: IVP, 2002.

Conn, Harvie M. *Contextualization: Where Do We Begin?*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7.

———. *현대 도시 교회의 전망.* 한화룡 역. 서울: 여수룬, 1992.

Cox, Harvy. *세속 도시.* 손명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Cullman, Oscar. *구원의 역사.*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De Ridder, Richard R. *Discipling the Nation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9.

Eavay, C.B. *기독교교육원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교육원리, 1995.

Fowler, J. *변화하는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Giddens, Anthony. *질주하는 세계.* 박찬욱 역. 서울: 생각하는 나무, 2000.

Gilliland, Dean S. *The Word Among Us.* Dallas: Word Publishing, 1969.

Glasser, Arther F.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Granford, W.C. *복음 주의적 기독교교육에의 도전.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2.

Greenway, Roger S. *Discipling the City: A Comprehensives Approach to Urban Mission.* London:Baker Book House, 1992.

———.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룬*, 1988.

Groome, T.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Hahn,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5.

Hedlund, Roger E.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Hesselgrave, David. *선교 커뮤니케이션론*. 강승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Kane, Herbert J.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8.

———.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룬*, 1988.

———. *선교의 성서적 기초.*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민병홍역. 서울: 죠이 선교회, 1986.

Keller, D. *미디어 문화.* 김수정 역. 서울: 새물결, 1997.

Kraft, Charles H.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김동화 역. 서울: IVP, 1989.

———. *The Contextualization of Theology.* Evangelical Missions, 1978.

Lebar, L.E. *Education That Is Christian.* Colorado Springs: Chariot Victor Pub., 1995.

Luzbetak, Louis. *문화인류학.* 채은수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8.

McGavran, Donald A.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3.

———. *Understanding Church Growth* . 3r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 *하나님의 선교전략.*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Meek, Wayne A. *바울의 목회와 도시 사회.*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Mouw, R.J. *왜곡된 진리.* 오수미 역. 서울: CUP, 1999.

Neil, Steven.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서울: 성광문화사, 1992.

Nevius, John L. *네비우스 선교방법론.*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 서울: IVP, 1989.

Ofcansky, Thomas P. *Historical Dictionary of Tanzania* . Maryland: Scarecrow Press, 1997.

Palmer, Park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서울: IVP, 2006.

Pazmino, R. *Foundation Issue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Peter, George W. *Current Theological Issues in World Missions.* Bibliotheca Sacra, 1978.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4.

Peterson, Eugene. *거북한 십대, 거룩한 십대.* 양혜원역. 서울: 홍성사, 2000.

Sachs, Jeffrey D. *빈곤의 종말.* 김현구역. 서울: 21 세기 북스, 2006.

Sanders, Oswald J. *지도자 바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5.

Scott, Waldron. *Bring Forth Justice: A Contemporary PErspective on Miss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 1980.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0.

Seamands, David A.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서울: 두란노, 1981.

Senior, C.P. Donald & Stuhmuller, Carroll. *The Biblical Foundations for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3.

Shaeffer, F.A.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김영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Sölle, Dorothee.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광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Stott, John. *One People.* Downer Grove: IVP, 1982.

———. *현대 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Stronge, James H. *유능한 교사의 자질.* 한소영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2009.

Temple, William. *기독시민의 사회적 책임.* 김형식 역. 서울: Kuis Press , 2010.

Tillich, P. *문화와 신학.* 김경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Tube, Charles. "Is There More Than One Way to Do Theology." *Gospel in Context*, January 1978.

Uisso, Justina P. *Rural Energy Agency and Innovation in Delivery of Modern Energy Services to Rural Areas.*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Rural Energy Agency (REA), 2009.

Underwood, H.G.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

Wagner, Pet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86.

———. *교회성장전략.*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2.

———. *선교현장의 영적 전쟁.* 정운교 역. 서울: 나눔터, 1994.

———.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Wells, David. *윤리실종.*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Wilson Jr., Christy. *Today's Tentmaker.* Chicago: Tyndale, 1979.

Wyckoff, D.C. *복음과 기독교 교육.* 김득렬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2) 한국 서적

간하배. *교회성장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문서선교회 편찬. 서울: 세계밀알연합회, 2005.

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3.

김성남. "한국장로교교회의 태동과 성장 분열." 뉴욕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1987.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김승호. *선교의 상황화.* 토라, 2007.

김은수. *해외선교정책과 현황.* 서울: 생명나무, 2011.

———. *현대교회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생명나무, 2010.

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전문인 선교사를 깨워라.* 서울: 이레 서원, 2001.

노충희. *도시학 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4.

박근용. *바울서신.* 서울: 기독교문사, 1986.

박영지. *선교신학개설.* 서울: 성광문화사, 1997.

박영호. *선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성숙한 교회와 교육선교.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문상철. "도시선교의 현황과 과제." *현대선교*, 1993.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 서원, 1991.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이숙경. *기독교교육과 문화이해.* 서울: 그리심, 2008.

이재환. *미션파서블.* 서울: 두란노, 2010.

이후천. *21 세기 과학 기술과 기독교 선교.* 한국기독교학회, 1999.

———. *현대선교학의 이슈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장인협. *사회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의회, 1985.

———. *한국교회와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한국교회와 선교 네비우스의 고유원리.* 서울: 정음출판사, 1983.

정병관. *도전 받는 현대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서울: 베다니, 1997.

조귀삼.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1994.

채은수. *역사와 문화속의 선교.*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2.

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역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기독교 선교역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한화룡. *도시 빈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 *도시선교.*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3.

3) 간행물

권능. "21 세기 NGO 의 선교방향." 한국전문인선교협회. No.32(2000 년 10 월).서울: 창조.

김명수"성숙한 교회와 교육선교."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 No. 25(1984 년 5 월)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김태연.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한국전문인선교협회. No.32(2000 년 5 월).서울: 창조.

문상철. "도시선교의 현황과 과제." 현대선교. No.37(1993 년 12 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서범석. "아시아 개발 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No.35(2007 년 5 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정효. "한국교회의 교육선교적 과제." 기독교와 교육. No. 19(2000 년 7 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이재서.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그 실천 신학적 의미." 신학지남. No.69(2002 년 3 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에덴의 복지와 그 신학적 의미." 총신대학교. No. 19(2000 년 7 월).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정유경. "탄자니아 환경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o.206(2012 년 1 월).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한규. "미완성 과업." 한국 선교정보연구센터. No.15(1990 년 2 월)서울: 선교한국.

최응규. "새로보는 과학기술." 한국과학문화재단. No.10(2007 년 3 월).서울: 양문.

"탄자니아 경제통상 및 자원 현황". 주탄자이아대한민국재사관. No.20(2012 년 12 월).다레살람 : 주탄자니아대한민국 대사관.

Lyimo, Barth M.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anzania. Energy. No.25(January 2010). Dar es Salaam: Helio.

Mwewe, Debora. "Human Right & Business in Tanzania" . Business. N0 32(January 2012). Togo: Systematic Investment.

Muweny, Sogolre. "Poverty and Deforestation in Tanzania." Economics. No.10(February 2012). Dodoma: REPOA.

The President's Office. "Report on the Fifth Years of Independence of Tanzania." United Republic of Tanaznia(December 2011). Dar es Salaa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he President's Office.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United Republic of Tanzania(January 2012). Dar es Salaa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he Vice President's Office "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United Republic of Tanaznia (December 2012). Dar es Salaa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anzania National Parks." Tourist Association. No. 31(August 2009). Arusha: Fotorafx,

"Tanzania Travel and Tourism Directory." Tourist Association. No. 34(August 2012) Zanzibar: Tanzania Tourist Board.

4) 논문

구장이. "교육선교에 관한 연구:페루의 호산나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문학석사학위논문 , 장신대학교, 2005.

신대식. "어린이 사역을통한 타 문화권 교회 개척에 관한 연구: 필피핀 민다나오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선교학석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한승진, 비즈니스 리더십 개발을 통한 기업선교 전략연구: 마임을 중심으로." 선교학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5) 기타

Bundala, Joseph. "Solar Community Center". *Tanzania Daily News*." October 24, 2013. Energy Section, Dodoma edition.

Mah, Mungu. Buget 2011-2012. *Tanzania Daily News.*" January 5, 2012. Economic Section, Dar es Salaam edition.

Lonely Planet. Maps.< http://www.lonelyplanet.com/maps/>(accessed 1 Febuary 2013).

World Bank. Project & Operations.<http://data.worldbank.org/country/tanzania.> (accessed 1 January 2014.)

World Book Encylopedia. Vol. 19. Chicago: A Scott Fetzer Company, 2012.